

2014 여성들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평등한 택시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좋은 택시' 문화 만들기 : 좌담회

일 시 ॥ 2014년 10월 23일(목) 오후 2시

장 소 ॥ 광주여성민우회 교육실

주 최 ॥ 광주여성민우회

후 원 ॥ 광주여성재단

2014 여성들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평등한 택시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 ‘좋은택시’ 문화 만들기 좌담회

□ 사업개요

- 일 시 : 2014. 10. 23(목), 오후 2시~오후 4시
- 장 소 : 광주여성민우회 교육실
- 주 관 : 광주여성민우회
- 후 원 : 광주여성재단

□ 좌담회 내용

- 주제: 여성들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평등한 택시 문화 만들기
 - 발표: 김효경(광주여성민우회 사무국장)- 광주지역 여성들의 택시경험수기를 중심으로 불편했던 경험과 좋은택시 만들기 위한 제안
- 좌장 : 조영임(광주여성민우회 이사/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 패널 : 고보혜(광주여성재단 정책연구팀 과장)
박희춘(광주광역시의회 이미옥 의원 보좌관)
유종천(택시현장노동자, 정의당 광주시당 노동위원장)
유대선(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

'좋은 택시' 문화 만들기

(광주지역 여성들의 택시이용경험 수기를 바탕으로)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여성들이 말하는 "택시"이용 경험담

: "고객의 입장에서 말하다, 택시에 대한 말, 말! 말!"

- 1) 택시이용하면서 불편했던 경험
- 2) 칭찬해주고 싶은 택시
- 3) 내가 생각하는 좋은 택시

부록: 2014년 민우회가 만들어간 좋은택시 만들기 프로젝트

△ 여성들의 택시이용 수기(광주거주 여성 37명)

△ 광주광역시 택시관련 조례:

- 광주광역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차별없는 세상을 여는 광주여성민우회

1. 들어가는 말

왜 택시인가요?

민우회 활동가들의 모임 자리에서 자연스레 나온 ‘택시’ 이야기, 붓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택시”에 대한 말, 말, 말!

“택시는 무서워서 아예 타지 않아요”

“택시에 타면 큰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외치며 탄다니까, 그러면 불안을 좀 떨칠수 있으니까“

“특히 밤 늦게 택시 타면 지인에게 핸드폰을 하면서 가요”

“어리다는 이유로 무조건 반말, 성적인 농담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아줌마 아줌마, 하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근거로 아줌마라고 하는 지”

여성들이라면 많이들 겪어본 나만의 또는 우리들의 이야기

또한, 사회와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무시무시한 택시에서 발생되어지는 범죄(성범죄등)들을 접할 때, 우리에게 택시는 그리 편치 않은 공간이지만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다. 특히, 여성들이 밤늦게 택시 타는 것은 위험한 일로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택시는 우리에게 불편한,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다. 그렇다고 택시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주로 이용하는 이동(교통)수단을 남성과 비교해 볼때 여성 자가용 운전 비율은 여전히 적다.¹⁾ 또한 택시 이용률도 남성보다 여성이 두배 가량 더 많다고 한다. 설사 자가용이 있더라도 어린아이와 함께 병원에 가거나, 마트에 갈때는 차가 있어도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원한다. 낮에도 밤에도 안심하고 탈수 있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는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택시를 원한다.

“우리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1) 2013년도 광주시 사회지표에 따르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가용승용차 이용자중 여성은 24.6%, 남성은 55.2%로 2배 이상 적다. 그리고 영업용승용차 이용자 중 여성은 2.9%, 남성은 1.6%로 역시 여성이용자가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취지로 올 한해 민우회는 “여성들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택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여성들이 택시 이용했을때, 불편했던 경험”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아주 단순하게 시작되었지만, 택시산업구조의 복잡성,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난폭운전등으로 인한 택시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는 문제들이 양산되면서 택시업계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꼭 필요한 교통수단으로서의 택시는 특히, 여성들의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이라고 볼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들이 체감하는 안전,안심택시를 만들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다음 글은 광주지역 여성들의 택시이용수기(광주거주 여성 37명)들로 첫째, 불편했던 경험(부당요금, 난폭운전, 차.내외부환경, 불친절, 두려움/공포/성희롱/성폭력) 둘째, 칭찬해주고 싶은 택시 셋째, 내가 생각하는 좋은 택시(택시 이렇게 바뀌었으면~)이다.

위의 내용들이 비단 여성들만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이 체감 하는것은 분명 다르며, 개인의 경험이지만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페트라 켈리)처럼 비슷한 경험과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시민(여성)이 직접 제안해준 실천과제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에 택시업계는 물론, 시민사회, 전문가, 행정, 의회가 머리를 맞대어 좋은택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2. 여성들이 말하는 “택시”이용 경험담 :

: “고객의 입장에서 말하다, 택시에 대한 말, 말! 말!”

민우회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여성들의 경험을 듣고자, 올 4월~8월까지 광주지역 여성들의 수기를 모았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칭찬해주고 싶은택시, ‘좋은택시’를 만들기 위한 제안, 모집결과 결과 37명의 여성들이 소중한 경험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10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의 경험들로써, 수기의 내용중 비슷한 경험들을 카테고리로 묶어, 정리한 것입니다.

1) 택시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경험

▶부당요금: 운전미숙, 기준없는 요금청구, 멀리돌아가기, 거스름돈 문제, 카드결제 불편함

부당요금 청구(운전미숙, 기준없는 요금청구)

김○(52세) 운전자의 판단미스로 해매다가 요금이 많이 나왔을 때도 피해를 고스란히 고객이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항의를 해야 하지만 밤늦게 이용했을 경우는 무서워서 더구나 여성이어서 대꾸를 못한다. 그러면 기분이 상한채로 내릴 수밖에 없다.

김○○(36세) 목적지를 말했더니 기사아저씨가 모르는것 같아서 그럼 네비게이션을 켜세요... 했더니 이거 켜면 더 오래 걸린다면서 알아서 가보겠다고.

그래서 핸드폰으로 대략에 위치를 보여 드렸더니 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더니 목적지 근방에 도착해 모르겠다고며 뱅뱅 돌더니 우리보고 찾아보라는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지요.

어찌됐든 급하니 주위사람에게 전화해 물어 물어 찾아 갔는데 도착해서 택시비를 그대로 받는 겁니다.

오○○(39세) 5명의 아이들 데리고 택시를 타게 되었다. 가야하는 거리는 5분정도였고, 기본요금 거리였다. 그런데 아이를 많이 태웠다고 1000원을 더 요구했다. 요금을 내긴 했지만,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야 청구하는 요금이 상당히 기본 나뻤다.

멀리 돌아가기

이○○(16세) 항상 가는 길을 처음보는 길로 15분정도 더 걸려서 요금이 3천원, 4천원이나 더 나와서 화가 나 어의가 없었다.

항의를 했는데도 좋지 않은 말들만 듣게 되고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 당한것이 더 화가났다.

학생 (16세) 엄마와 같이 택시를 탔는데 돌고 돌고 이상한 길로 가서, 택시기사에게 항의를 하였는데 막말까지 들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택시기사가 요금내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한적도 있다.

박○○(37세) 내가 아는 곳도 뺑뺑 돌아서 가는데 택시비가 왕창 나온적이 있다. 아직도 이런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후진적인 행태라니 부끄럽다.

윤○○(24세) 학교 가는 길에 택시기사아저씨가 항상 학교가는 길이 아닌 멀리 돌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원래 길을 알려드리면서 빠른 길로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아저씨는 내 말을 무시하였다. 그래서 수업에도 늦고 내 기분도 나쁘고 무시당한것 같아 짜증났다.

허○○(28세) 터미널까지 평소에 길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전에도 터미널까지 택시를 여러번 이용했던지라 걸리는 시간이나 요금이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날따라 기사님은 길을 꽤 돌아가셨고 요금도 몇백원 차이가 아닌 천원 이상으로 더 나왔습니다.

이미 차도 놓쳤고 기사님이 길을 돌아가는 걸 안 순간 기분이 상해 내릴 때 왜 길 돌아서가시냐고 한마디하고 내렸습니다.

빨리 가기위해 택시를 탔던 건데 오히려 돌아가고 요금도 더 나오고 버스도 놓치고... 터미널 간다니까 이 지역사람이 아닌줄로 아시고 그런 것 같아 더욱 더 화가 났었습니다. 타지에서 온 사람이라도 그렇게 운행을 하면 안되는데 말이죠.

정말 하루 내내 짜증이 솟구치는 날이었습니다..

황○○(18세) 어떤 택시기사아저씨들은 일부러 더 멀리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빠른 길을 놔두고 꼭 신호가 걸리는 길로 가서 돈을 더 받으려는 꿍꿍이가 뻔히 보인다거나 할까?! 내가 “이쪽 골목으로 가시면 신호 안 받고 가실 수 있어요.” 하면 택시를 탔으면 택시 기사가 가는 쪽으로 가는 거라면서 무

언의 무시하는 느낌을 주고 여자고 어린학생이라서 그런지 운전에 대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식의 발언이 매우 거슬린다.
났다.

윤○○(19세) 예전에 학교 가는 날인데 늦잠을 잤다. 친언니가 콜택시를 불러 줬다. 그런데 콜택시가 생각보다 너무 늦게 오고 가까운 길이 있는데도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호가 많이 걸리고 더 오래 기다리는 먼 길로 돌아서 갔다.

차마 택시 기사 아저씨께 왜 먼 길로 가시냐고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택시비도 많이 나오고 ‘내가 여자고 어려서 이러나?’ 라는 생각에 기분이 나빴다.

결국 학교 수업 1교시가 끝나고 도착하여 선생님께도 혼이 나고 청소를 하였다.

거스름 돈 문제

김○(52세)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모시고 택시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하차 하는 것을 거두고 뒷문을 닫고 앞문을 열고 거스름돈을 받고자 했으나 출발해 황당했던 기억이 있다

손○○(33세) 잔돈을 거슬러주지 않으려는 기사님들이 있습니다. 한번은 잔돈을 받으려 기다리는데 “그걸 받으려합니까”라며 돈을 던져주듯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몇 개는 택시 뒷자리 바닥으로 떨어지고 너무 민망하고 화가나 줍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동한 만큼 돈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받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처럼 거슬러 주지 않으려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카드결제시 불편함

김○○(24세) 현금이 없던 저는 일부러 “카드택시”라고 적혀있는 택시에 올라탔다.

카드계산을 하겠다고 기사 아저씨께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택시에 카드택시라고 적혀 있어서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손에는 카드를 들고 앉아서 ‘이 카드로 계산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착하기 10분 전 택시 기사 아저씨께서 카드 기계를 끄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목적지 도착 후, 카드로 계산하겠다고 기사 아저씨께 이야기하자 카드기계를

꺼버려서 다시 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현금 없냐고 이야기 하였다. 일부러 카드기계를 꺼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카드택시를 탈 때는 “카드로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탑니다. 이상하게 카드로 계산한다고 할 때 마 다 손님이 미안한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24세) 카드택시가 요즘 많은데, 카드 기계가 안되거나, 되는 택시라고 표시되어있기는 하나, 카드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 당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현금이 없어서 카드택시로 일부러 골라서 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도 카드가 안되니, 현금을 뺏아오거나, 집에 가서 다시 가지고 나와야하는 경우가 있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택시마다 꼭꼭 카드기기를 확인하고 운행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28세) 요즘 택시들이 거의 카드결제가 되기에 제가 말한 목적지가 다다를 쯤에 카드를 꺼내들고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기사님이 목적지 도착 하기 전에 미터기를 정지 시키시는 겁니다. 거의 다 와서 요금 안 올라가게 해주시려는 건가 하며 저야 요금내는 입장이니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착 후 카드를 드렸더니 카드 긁는 척을 좀 하시더니 왜 미리 카드결제라고 말씀안하셨냐고 하시면서 카드결제인지 몰라서 이미 미터기를 꺼버렸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40대) 요샌 카드결제가 되는 택시가 많아서 카드를 믿고 기다렸다. 다행히 택시는 카드결제가 되었다. 카드를 쓱 내미니 난감해 하는 얼굴. 카드 단말기가 꺼져있었다. 켜지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했다. 결제 승인이 쉽게 나지 않았다. 카드를 여러번 긁었다. 승인이 나고 택시는 떠나갔다. 9천 얼마였을 게다. 기다리는 잠깐 사이 아들이 굉장히 불편해한다. 현금으로 드리지.. 현금이 없었고 찾을데도 없었시아!!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면서 편했던 적이 없다.

▶차 내외부 환경: 운전중 통화와 DMB 시청, 운전자에게서 느껴지는 담배와 술 냄새,운전자 복장, 불편하고 무서운 차내.외관

운전중 통화/DMB시청

김○(52세) 운전 중에 핸드폰을 받는 경우가 있음. 기본적인 교육이 잘 안된것 같다. 서비스업이니만큼 정기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윤○○(24세) 택시 기사 아저씨의 핸드폰 벨이 울렸다. 그러자 택시 기사 아저씨가 핸드폰을 한 손으로 받아서 운전하셨다. 블루투스를 이용하거나 이어폰을 이용하여 운전이 지장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으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불안했다. 거기다가 아저씨가 통화하시느라 운전이 집중도 안하셔서 느리게 가셔서 신호도 계속 놓치고 다른 차들이 뒤에서 뺨뺨 거러서 괜히 내가 민망했다. 뒤에 손님이 타있는 것을 까먹은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의 통화로 집중하시고 자신의 업무인 운전하시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아서 불쾌했다. 사실 운전은 목숨과도 연관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보다 안전을 중시하고 뒤에 승객에게 책임을 다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손○○(33세) 택시라는 공간은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서의 작은 소음은 승객에게는 큰 소음으로 다가옵니다. 간혹 스피커폰을 켜시고 지인분들과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시고 욕설도 하십니다. 작은 대화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승객이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너무 긴 통화나 욕설, 괴성은 불쾌감을 준다는 것을 알고 정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이○○(38세) 운전 중 통화하기. 운전할 때 위험한 일이다. 전화가 오면 다음에 건다고 끊어야지. 온갖 사담을 다 이야기 한다. 심지어 전화를 건다. 뒤에서 불안하게 타고 가게 된다. 이럴 땐 그냥 내리고 싶다.

정○○(28세) 가끔씩 네비로 DMB를 시청하면서 운전을 하는 기사들이 있고 간혹은 네비에 영화를 받아와서 영화를 보면서 운전을 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있으신 기사들의 경우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운전할 때에 네비 이외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은 불법인데 지적을 해드리면 기분만 상해하시고 분위기만 싸해져서 지적도 못하겠고 승객인 저는 내내 불안하기만 합니다. 다섯째, 말 안듣기입니다.

황○○(18세) DMB시청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아져 더 이상은 DMB시청은 불법이 되었다. 10대인 나도 아는데 어른들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택시 기사님들은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러나 알기만 하지 행동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어찌된 이유이든 내가 손님으로 탔을 때에는 잠시나마 나의 생명은 기사아저씨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니 아저씨, 나는 오래 살고 싶다고요!! 운전중에 통화하시는 것도 불안해용~~

이○○(70세) 가끔 운행중에 DMB를 시청하는 기사님을 봅니다. 물론 운행중에는 안본다고 얘기를 하지만, 안보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켜야 맞는게 아닌가요?

황○○(18세) 뒷자석에 누가 앉던지 간에 의식하지 않고 욕하시는 택시기사아저씨들은 들었으면 좋겠다. 아저씨들 만약 뒤에 앉은 손님이 당신의 자석이고 부모이면 앞에서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운전자에게서 느껴지는 담배와 술냄새

학생(16세) 택시에서 술 냄새가 진동해서 불안한 적이 있다.

윤○○(24세) 택시에 타자마자 택시 안에서는 담배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그 담배 냄새가 너무 불쾌했지만 이미 타버렸기 때문에 참고 출발하였다.

박○○(37세) 택시를 탔는데 담배냄새가 가득해서 내릴 때까지 호흡곤란인 적이 있다.

김○○(36세) 아이를 데리고 탔는데 차안에서 담배 찌든 냄새와 언제 씻었는지 알수 없는 기사아저씨에 쾌쾌한 냄새들... 정말 서비스직중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쩔 이리 다니실 수 있는지 택시라는 좁은 공간에 손님을 응대 하면서 자기 관리라는걸 진정 모르시는것 같아 “아! 그래서 택시기사란 직업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무시 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들더군요.

손○○(33세) 요즘도 택시에서 담배 냄새가 날 때가 있음... 정말 불쾌한데.. 말은 못하고.. 내릴 때 까지 창문 가까이 얼굴 돌리고 속으로 택시 탄거

후회함.

윤○○(35세) 병원 가는 길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택시를 탔는데 그전에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웠는지 차안에 담배 냄새가 가득했다. 아이가 아파 병원 가는 길인데 담배냄새가 가득한 택시를 이용하게 된 것이다. 이 상황에 대해 화를 낼 수도 없고 굉장히 불쾌하고 속상했던 경험이 있다.

이○○(38세) 여자 혼자 탔 다고 아무런 양해 없이 담배를 핀다. 콜록콜록 해도 문 열면 그만이신 분. 손님이 탔으면 끄는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김○○(35세) 택시 내부에서 나오는 술 냄새가 같은 이상한 냄새에 순간 멈칫했다.

먼저 탄 친구도 모르고 탔는데 영 분위기가 좋지 않아 다시 내려야 하나 생각하는 듯 얼굴이 굳어져 있었다. 그때 운전기사가 어서 오세요..하는 말에 이미 친구가 타고 있고 한발만 걸치고 있던 발을 택시에 몸을 신게 되었다. 원래는 봉선동 내가 내리고 친구 집으로 갈 생각이었지만 두사람은 그냥 두 집의 중간지점을 목적지로 말하고 가기로 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운전기사의 모습은 뒷머리가 감지 않은 듯 딱이 지고 자고 일어난 듯 까치집이 지어져 있었고 바지는 트레이닝복을 입고 아주 편한 신발을 신고 있었다. 정말 최악이었다. 가는 동안 친구랑 나는 불안에 떨며 아무 일없이 목적지에 다다르기만 기다렸다.

목적지에 도착을 했을 때 우리가 내린 쪽 반대편에 다른 여성 두명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사는 우리를 택시에서 내려주고 불법으로 유턴을 해서 두 여성을 태우러 갔다. 택시를 탈 때 운전기사쪽 바깥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쪽도 심한 굵힘 자국을 볼 수 있었다. 친구와 나는 무사히 내린 것에 안도했지만 바로 탄 두 여성들이 엄청 걱정이 되었다.

황○○(18세) 담배나 여러 냄새로 택시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택시기사아저씨가 운전 중에 담배를 피기도 하고,

불편하고 무서운 차내.외관

김○○(35세) 언제부터인가 택시를 타면 먼저 걱정부터 앞서게 된다. 타게 될 택시 기사는 어떤 분일지, 택시안은 담배 냄새없이 깨끗할지, 현란한 인테리어는 없을지...

택시를 잡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택시 내부의 인상은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나를 편안하게 하거나 아님 불안해서 등을 뒹 등받이에 붙이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세워 있게 만들기도 한다. 우선 택시안에서 나는 냄새다. 담배냄새와 불쾌한 남자냄새(아~이건 편향된 시선이지만 적당한 말이 없네요)가 섞여 냄새나는 택시를 타면 일진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거기다 뒤쪽에 조화로 담쟁이 같은 것이 장식되어있거나 cd를 꽂아서 인테리어를 해놓은 택시, 방음 천장을 만들어 놓은 택시는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공적인 공간인데 남의 사적인 공간에 들어 온 것 같은 불편함을 느낀다.

김O(52세) 노후된 차량이 정말 많다. 개인택시는 좀 덜하지만 회사택시의 경우 걸보다 안이 많이 노후 되고 불혀져 있는 신분증과 기사분이 다들 때가 많다. 그걸 왜 그러냐고 물어본적은 없지만 여러 사람이 몰기 때문이라고 짐작했다.

조OO(37세) 귀걸이를 하신 남자 기사님, 몸치장과 함께 택시 내부 인테리어에 상당한 노력을 들였다. 조수석 천정에 공갈젓꼭지, 짝을 잃어버린 한 쪽 귀걸이들이 여러개 꽂혀있었다. 아저씨 것인가?? 그런데 왜 한쪽씩이지? 저 오래된듯한 공갈젓꼭지는 또 뭐가? 차량 내부를 도배한 호랑이와 대나무 숲 포장지. 2012년으로 기억하는 어느날 부모님을 모시고 잡아탄 택시 실내 인테리어에 조금 놀랐던 기억이 선명하다. 왜? 솔직히 무서웠다. 귀걸이와 젓꼭지는 손님들이 흘린 것들일까? 아마도...밤에 혼자 탔다면 빨리 내리고 싶은 택시로 기억한다. 세상이 흥흥해서 일까 아니면 영화를 많이 본 탓이었을까 마치 전리품처럼 보이는 한쪽짜리 귀걸이들의 모습에 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던 기억이다.

조OO(37세) 이른아침 출근길에 잡아탄 택시는 실내 인테리어가 마치 무도장을 연상케하는 모습이었던 적이 있다. 많은 씨디와 천정에 붙은 야광별과 달들..그리고 알록달록한 불빛.

윤OO(19세) 차 내부가 노래방 형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택시기사 아저씨께서 우리에게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하셨다. 구가 노래를 한 곡 하기는 했지만 자꾸 부축이는 것은 참 언짢았다.

▶ 불친절:묵묵부답, 무조건 반말, 승차거부, 운전자 맘대로 하차등

가까운 거리 가자고 했을때의 불편한 분위기, 원치 않는 불편한 대화

묵묵부답,, 무조건 반말, 승차거부, 어리다는 여자라고 무시등

윤○○(35세) 택시를 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타고 원하는 곳에서 내리고 싶은 것도 있다. 하지만 유턴하기 귀찮다고 다른 손님이 바로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사님이 편한 곳에 내려주면 택시비는 택시비대로 내고 더운 날 혹은 추운 날 고생하며 또 다시 걸게 된다.

김○○(25세)택시를 타자마나 먼저 인사를 건넸는데도 기사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제까지 택시를 이용하면서 대부분의 기사님이 그랬던것 같다.

김○○(25세)목적지를 말해도 그냥 아무 반응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 얼마나 무안한지, 이분이 제대로 나의말을 알아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

김○○(25세)나이 많이 드신 운전자, 무조건 반말로 응대한다.

이○○(16세) 교회를 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항상 교회를 가던 루트가 아닌 먼 거리를 돌아서 교회를 가셨다. 어의가 없어서 기사분께 이 길은 멀리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네가 택시기사냐고 “학생주체에 뭘 안다고 어른 말씀에 말대꾸 하나”고 화냈다. 그 이후로 거칠게 운전을 하셨다.

이○○(38세) 두손 가득 짐과 아이들 2명과 함께 택시를 기다렸다. 택시가 많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선뜻 문을 열어주는 택시는 없었다. 그렇게 한 시간을 넘게 기다리다 맘좋은 택시기사분이 우리를 태워주었다.

이○○(22세) “유창허니문”으로 가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어디?“라고 답문 하셨다. 다시 말했더니 ”아 유창허니문“이렇게 말씀하셨다. 적어도 처음보는 사람에게 존댓말을 쓰는게 예의 아닌가?

이○○(22세) 요금 지불할 때 만원 짜리를 드렸더니 잔돈이 없냐고 물으셨다. 그래서 잔돈이 없으신 줄 알고 카드로 계산할 때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잔돈이 있었는데 나중에 잔돈이 없어지만 바꾸러 가기 귀찮으니까 물어보신 거였다. 잔돈을 내주시면서 투덜대시기에 기분이 매우 언짢아졌다.

박○○(23세) 학교근처에서 자취를 하기 때문에 집에 올라올 때 반찬들을 가지고 택시를 이용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터미널 앞에서 창문너머로 반찬이면 트렁크에 넣으라고 욕박질렀다. 그 말 듣고 다시는 택시를 안탄다.

김○○(24세)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탔다. 택시가 길게 줄서있는 것을 모르고 반대편에서 택시가 유턴해서 오길래 택시를 잡아 탔니다. 그랬더니 택시 승강장 맨 앞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 기사 아저씨가 불같이 화를 내시며 제가 타고 있던 택시를 막았다. 당연히 내가 타고 있던 택시 기사 아저씨는 어이가 없었고, 화를 내시던 택시 기사 아저씨는 줄 서 있었는데 그 줄을 무시하고 태웠다고 하시면서 기분 나빠 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니 민망하고 기분도 언짢았다.

이○○(38세) 골목으로 안갈려고 하는것. 아이들을 태우거나 짐을 많이 실고 갈 때 먼 눈치가 보인다. 아파트에 살면 그나마 나올 텐데 주택에 살면 욕 먹으면서 골목길로 드러선다. 치사하지만 아이들과 짐을 함께 들고 있어야 꼭 참아야한다.

정○○(28세) 제가 이러한 경로로 목적지에 가달라고 요구를 해도 제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이 아는 경로가 더 가깝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여성으로서 무시를 받았다는 생각에 모멸감을 느끼고 불쾌합니다.

김○○(46세) 약속이 있거나 급하면 미리 택시친구한테 예약을 한다. 주택이라 기사들이 꺼리기 때문이다.

오○○(39세) 아이가 셋이라 아이들과 한번 외출을 하려면 짐이 적지않다. 둘째 아이가 아파서 입원하게 되었다. 입원을 위한 물품들을 챙겨서 택시를 탔다. 평소에도 들고 나서야 하는 짐이 적잖은데 입원물품까지 챙기고 보니 아이셋에, 짐까지 참으로 많았다. 택시가 섰지만 기사는 트렁크를 열어줄 뿐 내 짐을 싣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다. 짐 싣고, 아이 태우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나를 쳐다보며 빨리 탔으면 하는 눈치를 계속 주었다. 도착해서 아이들을 챙겨 내리려고 하는데 어린 아이들여서 모두 엄마 손을 기다리고 있다. 아픈 아이가 있으니 내리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기사님이 한말씀 하신다. “빨리

내리세웁!”

이○○(70세) 둘째 딸이 많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집에 오려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조금이라도 택시를 빨리 잡아 얼른 집으로 갈 생각에 딸아이가 빨리 걸을 수 없지만 먼저 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환자가 오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딸아이는 아픈 몸을 끌고 힘겹게 걸어왔습니다. 택시를 잡아두어서 미안하지만 딸아이를 재촉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힘겹게 택시 쪽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택시가 쾅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나도, 딸아йд도 모두 황당했습니다.

윤○○(24세) 택시를 타고 집을 향해 가는데 기사 아저씨께서 나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갑자기 합석을 시킨 적이 있었다.

주○○(44세) 콜을 기다리는데 3분후 도착이라고 해서 기다렸다. 근데 10분이 기다려도 오지 않아 연락했더니 곧 도착한단다. 다행히 금방 왔다. 왜 이렇게 늦냐고 했더니 차가 막혔단다. 가는 도중 콜 대기 연락이 왔다. 콜을 하고 콜대기 손님께 전화를 해서 차가 막혀서 10분정도 더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하는것이다. 내가 10분 기다려야 했던 이유가 기사아저씨의 욕심 때문이지 않나 싶다.

이○○(16세) 콜택시를 불렀는데 콜회사에서 계속 기다리라는 말뿐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다. 몇분 후 콜택시 상담원이 그쪽으로 가는 택시가 없다는 무뚝뚝한 말과 내가 끊기 전에 먼저 전화를 끊어 버렸다.

가까운 거리 가자고 했을때의 불편한 분위기

김○○(25세) 기본요금 나오는 거리를 가면 짜증을 내기도 하고 불편한 얼굴을 하는 택시기사분들이 많다. 가는 내내 눈치가 보인다.

남○○(45세) 대한민국 택시 탈때는 기사눈치를 보며 타야함. 만약 가까운 거리를 간다고 하면 기사아저씨의 눈치를 봐야하고 오만상을 찌뿌리며 심지어 가급적 천천히 운전하며 간다. 택시운전자가 “갑”이고 손님이 “을”인경우가 많다. 그래서 승차거부, 부당요금, 거친 운전등이 많다.

양○○(43세) 광주역에서 집까지 거리가 5~10분 거리였다. 그러자 기사가 너무 짧다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1시간 가까이 기다렸는데 5분 거리면 돈이 안된다는 것이다. 밤 12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어떻게 집을 가란 말인가?

박○○(37세) 가까운 거리를 이용할 때 더없이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시스템 역시 불편. 아기 엄마가 아닐때도 가까운 거리를 이용할 때 쭈뼛거리며 택시를 타야했는데, 아기엄마가 되니까 가까운 거리여도 택시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김○○(24세) 가까운 거리를 가려고 할 때, 택시에 탈 때면 괜히 죄송해지고 민망한 경우들이 있다. 택시 기사 아저씨께서 가까운 거리 간다고 한소리 하시면서 가는 내내 궁시렁 궁시렁 혼잣말을 하실 때가 많아요. 특히 뭐 이렇게 가는 것은 돈도 안되네..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실 때에는 괜히 택시를 잡기도 민망하고 타서 목적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죄송하답니다. 사실 제가 제 돈 주고 타는 것인데도 죄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또 가끔은 목적지를 말하면 거기는 안 간다고 하시면서 승차거부 하시는 경우도 있다.

최○○(40세) 가까운 거리를 갈 때도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기도 한다. 짐이 많거나 빨리 시간에 맞춰야 한다거나 ...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택시를 타는 데 가까운 거리를 가자고 할 때 기분 나쁜 티를 내는 택시기사들이 있었다.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를 타는 데 가깝던 멀든 손님의 입장에서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택시 안에서 눈치보며 요금내고 택시를 이용한다는 게 정말 화 난다. 근데 거기다 대고 항의하지도 못했던 나도 속터지지만 말이다.

김○○(36세)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면 콜택시를 많이 이용하게 되죠. 그런데 가까운 거리를 가게되면 일단 목적지를 말하기 전부터 주눅이 들게 됩니다. 택시를 타자마자 친절히 인사를 하셨던 기사분이 목적지를 말하고 나니 행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출발하는 상황을 여러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땐 아이를 업고 나와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를 탄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 단지가 크편이고 제일 안쪽에 있는 터라 한번 나가려면 힘이 드는데도 기사분에 냉랭한 모습이 불편해서 그런적이 꽤나 된답니다.

손○○(33세) 목적지가 가까운 즉, 기본요금이 나오는 거리를 요청하면 거부하시거나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윤○○(35세) 걸어가자니 멀고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곳에서 마침 옆을 지나가는 택시를 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때마다 고민하게 되는 게 있다. ‘가까운 거리인데 걸어가지~’라며 통명스럽게 한마디 한 후 침묵이 흐르면 미안하기도 하면서 슬슬 화가 나기도 한다. 가까운 거리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내는 건데 뭐가 저리 불만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 일을 몇 번 겪은 후에는 가까운 곳을 갈 때는 택시를 타면서 한마디를 하게 된다. ‘가까운 곳인데 죄송해요~’라며 멋쩍게 웃어 보이면 ‘가까운 거리라도 많이만 타면 좋겠네요.’라며 웃어 보이는 기사님들도 분명 있다.

강○○(43세) 자동차가 없는 40대 주부로 아이를(6살) 키우면서 외출을 할 때면 대부분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먼거리를 이용할 때는 콜 택시를 부를 때 불편함이 없는데, 아이가 아파서 가까운 동네 병원을 가고자 목적지를 말할 때 부담스럽다. 가자고 하는 마음도 불편하고, 기사님들의 표정도 반갑지 않은 눈치다.

박○○(37세) 아기와 함께 마트를 가기위해 콜택시를 기본요금이 나오는 거리라 기사님이 내릴 때까지 욕을 하였다. 비오는 날이라 손님도 많았고 그 손님들 태웠으면 멀리갔을텐데 괜히 콜을 잡았네. 왜 먼거리의 다른 동네 마트 가지 않고 코앞에 마트를 가냐며.

원치않는 불편한 대화

주○○(44세) 길치인 내가 버스 타는게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많이 이용한다.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땐.. 그런데 택시기사아저씨들이 계속 얘기 하시는게 좀 불편할 때가 많다. 그렇다고 대답안하고 그냥 가는 것도 좀 그렇고, 특히 애들과 같이 갈 때, 아저씨가 아이들 듣기 좀 민망한 얘기들을 할때에는 정말 참기 힘들다.

한○○(37세) 선거철 택시 이용할 때 정치적 견해에 대해 일장연설을 하심. 조용히 목적지에 가주는 센스.

조○○(37세) 5살 딸아이랑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 가끔 아이에게 계속되는 질문과 왜 대답을 안는지 되묻는 아이를 예뻐하는? 기사님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아이들의 특성상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많은데, 남편과 동행한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질문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 결혼하지 않은 나의 친구 역시 여자 혼자 타면 기사님의 질문이 많아진다. 처음엔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고 일상적인 인사말로 시작해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경우 내 친구는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고 심한 경우 도중에 내린적도 있다고 한다.

윤○○(19세) 친구들끼리 뮤지컬 관람을 하고 택시타고 집으로 가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께서 계속 말을 걸으셨다. 말 걸어주시고 하는 건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 주시려고 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과하게 “어디 학교 다니냐?” “뭐하고 왔냐?” 등등 사적인 질문들을 엄청 하셨다. 나보다 훨씬 어른이셔서 말을 무시할 수는 없고 해서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아저씨께서 더 이상 말을 못 걸게 친구들이랑 틈을 주지 않고 말을 멈추지 않았다. 택시를 내리고 나서 친구들과 나는 택시 아저씨 부담스럽지 않았냐는 등등의 불만을 토로 하면서 집을 갔던 기억이 있다.

최○○(40세) 택시기사가 내내 아줌마, 아줌마,,,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데 생각보다 불쾌했다. 물론 내가 아줌마인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을 보고 아줌마라고 판단하는 지,,, 그리고 ‘아줌마’라고 부르는 뉘앙스는 그다지 존중받는 느낌이 아니었다. 존중까지는 아니더라도 웬지 다 같은 손님으로 보는 것 같지 않았다. ‘손님’이라는 표현을 쓰면 좋을 텐데

손○○(33세) 택시에서 기사님과 소소한 일상에 대한 대화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는 택시 기사님들의 지루한 일과에 도움이 되며 승객에게도 좋은 말씀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정치적 견해 또는 종교적 강요 등은 불편함을 줍니다. 정치적 견해는 개개인마다 선호하는 정당·인물 등 다르며 심지어는 관심의 정도가 다른데 과도하게 어필하시거나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28세) 제 성격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는 택시를 탔을 때에 기사가 이런저런 말을 걸어오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간혹 제가 정신이 없거나 바빠서 급할 때에는 말을 걸어오면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황○○(18세) 택시를 타 보면 생판 처음 보는 택시 기사아저씨들이 나에게 말을 건다. 나이, 학교, 어디를 가는지, 누굴 만나는지... 이러다 내 사촌의 친척의 팔촌까지 알게 될 판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꺼려한다. 물론 하루 종일 운전만 하고 다니는 아저씨들 보면 ‘적적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지만 좀 지나치다고 생각될 때도 있다. “그만 물어보세요.”하고 싶지만 나 같은 아이가 어른에게 말하기도 불편하고 ‘조금만 참자.’ 그러면서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를 바랄뿐이다. 우리는 호구조사를 당하려 온 게 아니라 택시를 타러 온 것이다. 그러니 너무 사적인 질문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

황○○(18세) 자신의 정치색을 강요하는 아저씨도 있다. 예를 들어 박정희는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전라도 쪽이다 보니 특히 이명박이나 박정희를 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것을 강요하고 안 그러냐고 계속 물으시니 어찌 할 바를 모르겠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 난폭운전

김○○(25세) 어린 아이와 함께 뒷좌석에 타면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속을 한다던지,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했을 경우 불안하다. 아이가 탔으면 좀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 그렇다고 기사님에게 천천히 가달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 택시안이라는 좁은공간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힘있는 남성운전자와 힘없는 여성의 입장

박○○(37세) 아기엄마로 임신때부터 이용하는 횡수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 택시를 타고 나서 심중팔구는 기분이 나빠서 내리곤 한다. 분명 모든 택시가 다 그런것은 아니다. 누가 봐도 임부로 보이는 만삭때나 아기띠로 아기를 안고 탑승을 했음에도 거침없는 난폭운전은 임신중이었을때 아기와 함께일때도 엄청난 스트레스이다. 승차후에 임신중이니까 아기가 있으니까 천천히 가주세요 라고 부탁들 드리지만 빠른 속도와 난폭운전은 내가 느끼기에 만히 조심하지 않는다.

이○○(22세) 내가 타는 택시의 대부분은 제한속도를 넘기고 신호를 무시하는 일이 많았다. 마치 이게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다. 심야영화를 보고 집

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12시를 넘은 시간이라 한적했지만 자동차의 속도는 120을 넘기고 있었다. 순간 바이킹을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정도로 매우 빨랐다. 오른쪽진입이 안됨에도 돌아가지 않기 위해 무시하고 오른쪽으로 갔다. 신호등이 직진 방향이었는데도 왼쪽으로 꺾는 일을 서슴지 않아하셨다.

박○○(23세) 어떤 날은 너무 빠른 속도로 인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창문에 머리를 박을때도 있고 속이 울렁거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윤○○(19세) 눈이 와서 길이 푹푹 얼어있던 겨울 나는 엄마와 언니와 함께 외할머니 댁에 다녀왔다. 돌아 올 때 택시를 이용하였다. 겨울이라서 길도 미끄러운데 택시들은 신경 쓰지 않고 차들 사이로 끼어들고 신호위반하고 속력을 내면서 갔다. 무서워서 옆에 손잡이를 꼭 잡고 가고 있었다. 그 때 우리가 타고 있던 택시가 얼음에 미끄러져 길에서 한 바퀴를 돌았다. 진짜 나는 택시가 도는 순간 이렇게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웠던 기억이 있다.

최○○(40세) 택시안에서 난 별 말 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는게 좋은데 가끔 말을 걸고 뭔가 자신의 의견이나 가십거리들을 말하는 기사들이 있다.

오○○(47세) 서울에서 일정을 마치고 남편과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 인사를 하면서 타는데도 기사님의 무시에 적잖이 당황스러웠었다. 운전도 거칠게 하시는데 순간 멀미가 날 정도로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면서 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 옆 차선의 기사님과 경적을 울리면서 싸움이 시작되는데 마구잡이 욕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최○○(24세) 기사 아저씨들께서 요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일부러 먼 길로 돌아서 간다거나, 다른 길로 빠져서 길을 잘못 든다거나,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곳인데도, 멈춰달란 곳 보다 더욱더 가서 멈춘다거나, 택시가 멈추고 나서도 요금이 계속 올라가도록 끄지 않는다거나하는 사소한 부분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최○○(24세) 택시를 타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길을 가다가 계속 경적을 울리면서 따라올 때도 있어 밤에 걸어가다가 깜짝깜짝 놀란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님들이 신호를 안지킬 때도 있지만, 차선을 지키지 않고 끼여

들기를 마구 할 때도 있어 그때가 가장 공포 스러웠습니다.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 편하게 택시를 타기 힘든 점이 많습니다.

최○○(24세) 내리기 힘든 곳에서 내려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른 차들에 이동 방향에 방해가 되는 곳이나, 갑작스럽게 멈춰서 내려준다거나, 멈추면 안되는 곳에서 내려줄 때도 있어 뒤에 오는 차에도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내리는 손님도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잘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35세) 임신초기에 유산이 조금 우려되는 시기에 갑자기 택시를 타게 됐다. 유난히 골목으로만 가고 과속방지턱을 속도도 줄이지 않고 넘어 다니고 급출발급정지는 습관처럼 하는 택시를 탔던 기억이 난다. 임신부이며 조금 조심해줬으면 좋겠다고 친절히 말씀 드렸지만 내말에 대꾸조차도 하지 않았으며 운전도 변함없이 난폭하게 하였다.

정○○(28세) 특히 젊은 택시 기사들이 과속을 많이 합니다. 그로인해 경적을 많이 울리고 급정거나 급한 핸들조작이 빈번히 일어나고 한 번씩은 아찔함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둘째, 신호위반을 하는 것입니다. 늦은 시간이 되고 차량 운행이 많지 않을 때에 특히 할증시간에 택시 기사들은 신호위반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을 습관적으로 하는 기사들은 차량 운행이 많은 낮에도 신호위반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셋째, 욕설과 폭언입니다. 택시들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솔직히 아무 곳에서도 정차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회전차선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기다리지 않고 바로 출발하여 가장 바깥 차선에서 안쪽 차선으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종종 뒤 차량의 운전자와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버스 기사와의 마찰인데 마찰이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상대방과 욕설과 폭언을 나누고 심한 경우 정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 두려움.공포/성희롱.성폭력

김○(52세) 항의를 해야 하지만 밤늦게 이용했을 경우는 무서워서 더더구나 기분이 상한채로 내릴 수밖에 없다.

김○(52세)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신역에서 밤늦게 택시를 타려고 보면 정류소에 많은 택시들이 장거리 호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였다. 시외가는 정류소가 있었으면 한다.

이○○(16세) 친구와 택시를 탔다. 먼 거리여서 10분동안 아저씨가 계속 말을 하였는데, 도가 넘는(성적인 농담) 말을 계속 하여서 곤란함.

학생(16세) 친구 4명이 함께 택시를 탔는데 어쩔수 없이 조수석에 탔다. 그런데 기사분이 자꾸 나를 힐끔힐끔 보고, 윈크까지 하셔서 짜증나고 기분이 매우 나빠 그냥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집까지 왔다고 했다. 나이가 50이 넘어 보였는데, 아직도 소름이 끼쳐서 택시를 잘 타지 않는다고 한다.

양○○(43세) 밤늦게 택시를 이용한적이 있었는데 늦은 시간에 이용하다보니 친구가 걱정이 되어 택시의 차번호를 외우고 뒷자석에 탄 나에게 차번호를 알려주었다. 택시기사가 “더 늦은 시간에 젊은 처녀가 타도 그냥 타는데, 아줌마가 뭘 걱정을 하느냐”고 하였다.

이○○(38세) 친구와 함께 낮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슬쩍 우리를 훑어보더니 자기가 아는 택시기사의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했다. 어느날 낮에 30대 여자손님을 태웠는데, 기사분이 둘이서 근처에서 밥도 먹고 결국 모텔도 갔다고 했다. 자기도 그런 손님 만나도 싫다며 부럽다는 말을 계속 해댔다. 기분도 상하고 수치스럽고 짜증도 나고, 가다가 멈추어 달래서 내렸지만 나혼자 탔더라면? 무서운것이 현실이다. 나는 딸아이도 자라면서 이런 상황을 혹은 더한 상황을 여러번 달할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든다. 우리 여성들에게 성추행을 일삼는 혹은 승차거부를 하는 행위자체가 건강한 교육이 안된 성인들이 너무 많은 사회여서 그런거 같다

한○○(45세) 모 지역에서 택시 시가분들이 전과기록이 있는 분들도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소식을 방송매체에서 들었다. 예전에 친구가 택시기사아게 성폭력을 당할뻔 했던 경우가 있어 그후로 택시는 되도록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 부득이한 경우 택시를 이용하게 될 경우 여럿이 같이 타거나 낮에 타는 경우가 많고 혼자 타게 되면 차량번호를 외우고 친구나 가족에게 핸드폰을 계속 한다.

한○○(37세) 목적지를 말했다니 거기 가지 말고 자기와 좋은곳에 가자고 기분나쁘게 웃음. 자기가 밥도 사주고 술도 산다고 하면서 계속 거지가지 말고 나랑 같이 있자는 농담아닌 농담을 함. 처음에는 웃으면서 넘기려 했으나 계속되어서 불쾌해 반응없이 있어도 멈추지 않음

한○○(37세) 손크기를 보더니 보통 남자로는 성에 안차겠다며 남편과 꽤찮냐는(성적으로 꽤찮냐는 뉘앙스) 사적인 부분에 대해 질문함. 자기가 손크기나 생김을 보면 대충아는데 하면서 부부관계에 대해 자주 물어봄

박○○(37세) 밤에 택시를 이용할 때 여성대부분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을것이다. 그래서 택시를 탈 때 기사님 몰래 번호판을 슬쩍 봤다가 부모님께 택시번호를 문자로 남기는것 참 많이 해봤다.

윤○○(24세) 늦잠을 자서 학교에 가려고 택시를 탔다. 그런데 갑자기 기사님이 시외버스 요금을 물어보시면서 스마트폰으로 찾아주면 안되겠냐고 부탁하셨다. 처음에는 아무 의심없이 찾으려고 했다. 그와중에 학교에 도착해서 아직 못찾았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친절하시던 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무섭게 돌변하시며 시외버스 요금을 알아보고 알려달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핸드폰번호를 알려주셨다. 그러고는 내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면서 알려줘야 된다고 한다고 강요하며 말했다. 그 때는 알려드리지 않으면 택시에서 안내려 주실 것 같은 분위기여서 너무 무서운 마음에 드리기 싫었지만 기사 아저씨가 혹시나 나쁜 행동할까봐 무섭고 학교에 못갈 것 같아서 핸드폰 번호를 드리고 내렸다. 다음에도 연락이 올까봐 무서워서 택시에서 내린 후에 번호를 차단해 버렸다.

그리고 스마트 폰으로 아저씨가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신 것을 검색하는데 갑자기 기사 아저씨가 오빠라고 불러보라며 하는 것이었다.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쁘고 수치스러워 성희롱처럼 느껴졌다. 택시에서 빨리 내리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내가 어려서 이렇게 행동하시나 하는 생각에 기분 나쁘고 어떻게 처신 하는 것이 맞을지 몰라서 고민 됐다.

윤○○(24세) 택시를 타고 가는 중에 다른 차가 내가 타고 있는 택시 앞에 끼어들기를 하였다. 그러자 택시 기사 아저씨가 그걸 보고는 내가 뒤에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심한 욕을 하시면서 끼어들기 한 차를 쫓아가려고 하고 그 차를 따라서 무섭게 운전 하셔서 내가 어찌 할 바를 모르고 겁이 났

다. 여자가 혼자서 택시에 탈때에는 참 무서운 경우가 많고 불쾌하고 언짢은 일이 많다

김○○(24세) 친구들과의 술자리 약속이 있어서 콜택시를 불렀다. 기사분이 20대 초반정도로 보이는 젊은 분이였습니다. 팔에 문신도 하고 있고 클럽에서 나올법한 노래를 들으면서 운전하고 계셔서 한편으로는 무서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기사 분은 “구시청은 왜 가느냐?”, “술 마시니 좋겠다.”, “부럽다.”, “몇 살이니?”, “어디 대학교 다니느냐”, “무슨 과니?”, “남자친구 있느냐?” 등등 자꾸 사생활을 물어보셔서 대답을 안 하기도 애매하고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처음엔 좋게 대답했는데, 점점 사생활을 물어보시니 그냥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분이 자꾸 무전기로 다른 기사 분과 욕을 하시면서 대화하셔서 무서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물론 제 욕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화를 하실 때 욕을 섞어가면서 이야기 하시고 하니 뒤에 앉아 있는 저는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빨리 내리고 싶은 마음 뿐 이었습니다.

최○○(40세) 아주 좁은 공간에 기사와 손님인 내가 단둘이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은 데 택시기사에 대한 인상 등을 살피면서 나에게 혹시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긴장을 하게 된다.

최○○(40세) 한번은 성적인 말을 하면서 나에게 동의를 구하는? 안그러나며.. 응큼하게 물어보는 기사도 있었다. 완전 밥맛이었지만 기사를 기분 나쁘게 하면 혹시 내가 위험해질까 봐 아; 예~ 하면서 듣는 척을 억지로 하기도 한다. 이때만은 정말 내가 고객인데도 불구하고 한없이 약한 자가 된다. 능구렁이처럼 성적인 말을 돌려서 이야기하는 그런 택시기사 나빠요

오○○(47세) 늦은 시간 택시를 타게 되면 꼭 집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면서 가는데 택시를 타기 전 집에 전화를 해서 몇 분 후 나한테 전화를 걸도록 미리 정한 후 택시를 탄다.

오○○(40대) 아저씨는 백미러를 통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떻게 내려왔소?” 친근한 전라도 사투리로 말을 붙였다. 내가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타다보니 외지인이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었다. “대전 출장다녀오는 길이에요. 일이 남아서 사무실 가려구요....” “이 시간에 아가씨가 겁 없이 다니네” 하면서 백미러를 통해 뭐라 표현하기 힘든 불편한 눈빛을 보내며 웃고 있는 모습으로 내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순간 멈칫했다. “뭐지?” 며

리가 쭈뼛 서고 몸에 소름이 돋는 듯 느낌이 엄습해왔다.

손○○(33세) 택시 기사님이 자신의 딸의 일탈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딸의 성 문란함을 계속해서 깊이 이야기하시고 여성이 문제라며 여성 비하적인 말씀을 계속하시며 백미러를 통해 자꾸 쳐다보셨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화제를 바꿔보기도 하고, 불편함을 조심스레 이야기해보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으시며 계속 말씀하셔서 결국에는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 하차하였습니다. 성희롱을 당했다는 느낌과 여성 비하적 언어에 심히 불쾌감을 느꼈으며 택시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늦은 시간 택시를 탈 경우에는 일부러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하였습니다.

최○○(40세) 터미널 이나 이런 데서 시외를 외치며 호객하는 기사님들은 켈렁켈렁 건달 같다.

최○○(23세) 택시를 타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길을 가다가 계속 경적을 울리면서 따라올 때도 있어 밤에 걸어가다가 깜짝깜짝 놀란 적이 많습니다.

최○○(23세) 택시 기사님들이 욕설이나 성희롱과 같은 발언을 하는 기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욕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가 하겠지만, 너무나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시는 것을 듣다 보면 괜히 무서워지기도 하고, 특히나 개인적인 것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별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어보시니 불편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저도 가끔씩 운전을 하는데, 기사님들이 여성 운전자들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보면, 괜시리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운전자라고 해서 괜히 무시하고 욕설을 하는 것을 듣다 보면, 내가 운전할 때도 다른 기사님들이 저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기분도 나빠 괜히 택시가 더 타기 싫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28세) 다른 차량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운전을 하면서 혼자서도 욕설을 하시는 분이 있고 간혹 여성운전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승객인 저는 불편하고 불쾌할뿐더러 기사분의 기분이 나빠지니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정○○(28세) 간혹 기사 중에는 제가 이러한 경로로 목적지에 가달라고 요

구를 해도 제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이 아는 경로가 더 가깝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여성으로서 무시를 받았다는 생각에 모멸감을 느끼고 불쾌합니다.

정○○(28세) 가슴이 답답하여 창문을 열었는데 얼마 뒤에 창문을 닫아주시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위에서 들은 말들이나 인터넷에서 본 글들에 의하여 저는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어느 때에는 불안하여 목적지가 아닌 곳에서 내려서 걸어서 집까지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28세) 택시 범죄가 문제가 되면서부터 먹을 것을 주는 행위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지만 아직도 먹을 것을 주시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자인 저로서는 당연히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김○○(46세) 택시를 많이 타는데 난 무조건 앞자리에 앉는게 편하다 역쉬 사모님 버전이 내겐 맞지 않나봐!!!
그런데 기사님 말로는 뒷 좌석에 앉는게 정석이라고 한다. 일단 기사님이 성실한 분위기면 좋다. 웬지 지저분하고 끈적이는 기사들은 처음부터 도착할 때까지 편하진 않는다. 간혹 이런 기사들은 폰번호 주면서 만나자는 말도 한다. 기분이 매우 나쁘고 화가 난다.

허○○(28세) 밤늦게 탔던 적이 있는데 기사님께서 험하게 말을 하시면서 요즘 젊은 여자들 욕을 하시는 겁니다. 기사님께서 당시 며칠 전에 술이 잔뜩 취한 여대생을 태웠는데 본인에게 반말을 하고 무례하게 했다는 이유로 살인 충동을 느끼셨다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어디 어두운 곳 데려가버릴까 생각도 들었는데 참았다고 하셔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황○○(18세) 자신의 운전 방해가 되는 운전자 특히, 여자들에게 ‘여자가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는 운전도 못하면서’ 라는 등 여성차별 발언을 서슴없이 한다.

뒤에서 듣는 여자 기분 나쁘게... 집에 계시는 아저씨들의 부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말하기를 바란다

오○○(39세) 심야에 택시를 탄 적이 있었다. 늦은 밤 택시를 탔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약간의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합승을 해도 되겠냐고 기사님이 물어보셨고 난 거절을 하지 못했다. 결국 합승을 하게 되었

는데 모르는 사람과 한 공간에 있다보니 너무 불편했다. 그래서 택시를 잘 안 타게 되었다.

오○○(39세) 택시는 특성상 한 명의 승객과 기사만이 한 공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남자기사님과 한공간에 단 둘이 있다는 이유 자체가 때로는 불편하고 두려움이 있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험한 인상을 쓰거나 불친절한 말투 등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우선 택시에서 내리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생기게 된다. 승객이 이유없는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많은 택시에서 편안함과 친절함을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이○○(70세) 택시를 타면 좁은 한 공간에 기사님과 둘만 있게 된다. 가는 동안 대화도, 라디오도 없으면 참 무겁고 불편한 시간이다. 기사님 표정이 하나 있어 보이면 더욱 좌불안석이다.

최○○(40세) 탈때마다 약간 긴장하는 나를 느낀다. 그래서 인사를 크게 한다. “나 물렁물렁한 사람 아니거든”하면서 말이다.

김○○(24세) 어느날 택시에 탔는데 여자 분이 기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사 분께서 밤에 운전할 때 술이 취한 남자 승객들이 타시면 성희롱 적인 발언을 많이 하신다고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돈을 더 준다고 모텔에 가자고 하신다거나 술에 취한 척 하시면서 몸을 쓰다듬으시거나,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여자 분이 택시 기사하신다는 이유로 술이 취한 승객들에게 성희롱 적인 말로써 수치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김○○(25세) 50대로 보이는 여성운전자. 정말 드문 경우이다. 순간 마음이 놓인다. 대낮인데도 택시를 타면 항상 불안한것이 사실이다. 타자마자 “안녕하세요! 인사를 먼저 건네주신다.” 처음인것 같다. 나도 인사를 건네고 여성분이라 마음이 놓인다고 말을 건넸다. 운전자분도 마찬가지로 한다. 남성이 타면 본인도 항상 불안하단다. 실제로 앞좌석에 남자손님이 탔을 경우, 성추행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2) 칭찬해주고 싶은 택시

◎주행길을 물어봐주고 무거운 짐들도 스스럼없이 들어주고 하셨습니다.

◎여성운전자, 너무 반갑다. 일단 안전하다는 느낌이 든다. 먼저 인사를 건네주시고, 목적지를 말했을때, 이쪽으로 가되 되겠느냐? 물어봐주신다.

◎지역을 말하고 택시기사에게 갈수 있냐고 물은적이 있었다. 그러자 기사는 손님이 원하면 어디든지 간다고 말하며 타라고 했다.

◎딸과 함께 택시를 탔는데 짐이 많았다. 기사가 직접 뒤 트렁크에 짐을 모두 실어주었다. 하차할때도 차에서 내려 우리의 짐을 내려주었다.

◎아이와 함께 택시를 탔을때 동요를 들어주시는 기사님이 있었다. 신기해서 동요CD도 있네요라고 물었더니 손님에 따라 맞춤 선곡을 하신단다.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셨지만 감동은 크게 다가왔다.

◎아직 어린 학생이라고 택시비를 반절만 받으시는 분이 있었다

◎새벽에 택시에 타자마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주위를 살펴보니 택시 안에서 나오는 상쾌한 향과 청결함, 그리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동시에 친절하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택시 기사님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터미널에 도착 했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을 할 수 있었다.

◎아무래도 낮보단 저녁에 택시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저녁이라 그리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땐 안전이 더욱더 중시되는 상황이죠. 유독 아이를 생각해 조심히 운전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나와 아이를 존중해 주는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밤이라 집앞에서 내리면 현관입구에 들어 갈때까지 내린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기다려 주는 배려까지...그런게 진정 서비스정신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웃고 맞아 주시는 택시 기사분들 보면 그날에 기분까지 좋아 진답니다

○돈이 부족하거나, 당장에 현금이 없을 경우에도 계좌이체나 혹은 금액을

조금 깎아 주신다거나 하는 기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고마움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갈 때 가까운 거리여도 여자 기사님들은 (콜택시)항상 웃으면서 이야기 하신다.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있어서 그런 걸까?

3) 내가 생각하는 좋은 택시

: 택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1)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 잘 되어야 : 첫 번째 광주시는 택시노동자의 보수교육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정근거마련을 하여 주체들이 책임성을 갖도록 한다. 둘째, 성인지 교육, 인권교육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세 번째, 택시노동자의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가 될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운수종사가 교육 제대로 되어야 (친절등)

◎회사택시의 경우 당장의 이익보다는 기사들의 처우개선과 서비스교육에 투자를 한다면 기사님들도 고객님에게 더 친절하고 손님입장에서 대우 받는다는 생각이 들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MK택시처럼.

◎광주의 외교관인 만큼 광주의 얼굴이 될수 있는 택시 기사님들의 “친절외교, 미소 외교”가 될수 있도록 ~~

◎아이들이 함께 이용할때는 특히 바른 언어를 사용해주시고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택시기사님의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가 잘 되도록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은것 같아요. 이렇게 행동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정확하게 교육되거나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택시기사들에게 젠더감수성 교육

◎택시 기사님들에 대한 성의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사회적 범죄들 속에서 택시 탑승 시, 특히 늦은 시간에는 여성 탑승자들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택시 기사님들의 성적인 농담이나 성에 대한 언급은 불쾌감과 불안감을 넘어 두려움마저도 느끼게 됩니다.

현재, 운수종사자(여객자동차운수) 교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 58조에 의해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조합법 시행규칙 제58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운송사업자는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16시간 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5.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운송질서의 확립, 안전운행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위에 법에 근거하여 광주시는 신규일 경우 16시간, 보수교육일 경우 년 1회, 4시간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으로는 신규의 경우, 정신교육, 직무교육, 소양교육 분야로 진행이 되었고(2014년), 보수교육의 경우 친절교육, 직무교육, 소양교육, 시정홍보문화관광 분야로 각각 1시간동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이치

2) 운수종사자 교육- 신규채용자

분야/구분	교과목	교육시간	비고
정신교육	13과목 특강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16 1	초빙강사 연수원장

럼 신규일 경우에는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되어있으나 보수교육일 경우 58조 2항에서도 살펴보듯이 “필요에 따라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래서 교육시간 확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택시노동자 보수교육이 1년에 4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각각의 주체들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내용면에서도 인권교육은 물론 성인지 교육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택시회사(법인)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점검이 되어야 겠다.

(2) 여성친화적인 택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 첫째, 여성이 편안한 마음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운전자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현재, 2014년 5월 기준 광주시 택시운전자 남녀비율을 살펴보면 보면 여성 193명(2.2%), 남성 8,457명(97.8%)이다. 여성운전자 비율은 남성대비 약 2%에 불과한 현실이다. 여

직무 교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	총무과장
	우리고장 지리및 관광명소(광주지리)	2	교수부장
	교통사고관련 사례 및 판례	1	교관
	응급처치요령	1	교관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서비스	1	전문강사
	국제행사대비 기초영어회화	1	전문강사
	LPG가스취급요령	2	가스안전공사
	도로교통법	1	팀장
소양 교육	교통사고 예방요령	1	경찰공무원
	택시/버스 취업안내	1	조합교육담당
	주요시책및 문화 관광 명소 안내	1	시 공무원
	운전자를 위한 건강관리	1	전문강사
	시정홍보, 입교식 등	1	교수부장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보수교육)

분류/구분	교과목	교육시간	비고
계		4	
친절교육	국제행사대비 및 고객만족을 위한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1	공제조합
직무교육	2014 교통안전대책 및 교통법규	1	초빙강사·지방경찰청
소양교육	특강 · 교양 ·외국어	1	초빙강사
시정홍보 문화관광	시정홍보 동영상 및 시책 추진안내 광주문화 관광지 소개	1	시 공무원(교수부장)

성고용이 늘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여성고용할당제, 여성 고용시 인센티브 제공, 근무형태의 변경등 다양한 형태로 여성운전자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둘째, 여성의 택시 이용률이 2배 이상 높고, 그중 주부가 많다. 주부들은 아이와 함께 병원을 간다거나 마트를 자주 이용하게 된다.

특히 어린 아이와 함께 이용할 때는 안전벨트를 할 수가 없어서, 또는 불편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 아이와 임신부를 위한 안전장치(안전벨트)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여성들은 주거지 근처,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택시를 많이 이용한다.

수기내용에서도 많은 얘기되었듯이 가까운 거리를 갈때의 불편한점이 많아 근거리, 장거리 이동택시에 대한 구분(차 디자인:색깔, 표시등)이 있어서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해서 택시도 고객도 서로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섯 번째, 대부분의 여성들이 협소하고 어두운 택시안,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차량 내.외부, 운전자의 복장등에 매우 민감하다. 사적인 공간이 아닌 공적인 운송수단으로서 여성친화적인 내.외부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 여성택시 운전기사님들을 많이 고용해 여성고객들이 마음 놓고 택시를 이용하게 하는것: 각 회사마다 여성 운전자들을 고용하는 할당제를 의무적으로 법을 만들거나 여성 인력을 뽑는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어 여성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성 손님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밤 시간데 택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거양득 제도를 만들었으면 한다.

◎아이와 함께 택시를 이용할 때 안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것 같다(안전은행, 안전벨트?)

◎가까운 거리를 가는 택시, 멀리가는 택시 차 색깔을 달리 하여 고객들이 차를 났을때 “승차거부”를 당하지 않게 구분을 하면 좋을것 같다

◎택시기사분들 이것도 하나에 서비스업입니다. 제발 자다 일어나 세수도 안하고 나온 사람처럼 모자 꼭 눌러쓰고 냄새 풀풀~풍기면서 다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성친화적인 도시는 여성들이 심야시간에 맘놓고 택시를 탈 수 있어야 하고 심야시간에 거리를 거닐고, 안전한 도시공간권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두운 택시안의 문제, 택시기사들에게 젠더감수성 교육, 어두운 밤거리 조도개선을 통해 여성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타는 승객에서 인사를 했으면.. 도착지를 먼저 물어봐 주었으면,,, 어떤 길로 갈지를 물어주기를,,,, 여성의 경우 필요없는 질문은 삼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로 남성인 기사와 타는 승객 1명이 그 좁은 공간에서 있을 때 어색함이 흐른다.

◎택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공적인 운송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택시를 이용한 살인사건, 성폭력 사건등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택시의 내부 환경도 승객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택시 내부의 환경을 점검할 수 있는 관리지침도 필요할 것이고 운송회사는 영업 이익만 생각하기 보다는 고객들의 안전도 중요시 해야 한다고 본다. 택시내부 환경은 고객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외부 시야가 확보되어 위급시에 자신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게, 너무 사적인 공간처럼 느껴져 기사와 단둘이 타는 공간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들이 많이 타는 택시가 좀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느껴진다면 택시를 더 잘 이용할 것이고 불안하지 않을 것 같다.

(4)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택시: 첫째, 안전한 2015년 귀가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주시는 2천 만원을 들여 ‘택시 안심귀가서비스’를 올해 초에 도입하여 5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 택시안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택시이용자는 물론 택시운전자의 안전을 지킬수 있었으면 좋겠다

◎최근 카드를 미리 결제해 승차정보가 지정된 사람에게 전송되는 ‘택시안심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여성은 드물다. 그이유로 홍보의 부족도 있지만,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당당하

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기사를 의심하는 것처럼 여겨 지는 것도 있을 것이다.

택시안심서비스가 활발히 이용되려면 택시기사교육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래야 지금 현금영수증 여부를 당연하게 물어보는 풍토처럼 여성 승객이 승차시 기사는 당연하게 택시안심서비스를 권할것이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빠름보다는 안전을 원한다. 그리고 택시기사님의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가 잘 되도록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성택시운전자의 안전에 대한 문제

◎안전 택시로 표시가 되있는 택시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전 불감증이 대두되면서 제가 택시에 바라는 점은 승객이 탑승 시에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권해줬으면 합니다. 간혹 승객이 기분이 상해하여 쓴 소리를 한다고 해도 기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승객이 잠깐 타는 거지만 택시도 버스와 같이 승객의 안전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꼭 안전벨트 착용을 권해줬으면 합니다.

◎택시는 특성상 한 명의 승객과 기사만이 한 공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남자기사님과 한공간에 단 둘이 있다는 이유 자체가 때로는 불편하고 두려움이 있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험한 인상을 쓰거나 불친절한 말투 등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우선 택시에서 내리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생기게 된다.

승객이 이유 없는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많은 택시에서 편안함과 친절함을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서울시에서는 “안심귀가서비스가 제공되는 새브랜드 콜택시”³⁾를 추진함으로 시

3) 서울시의 “안심귀가서비스가 제공되는 새브랜드 콜택시

* 지정기준 : ① 가입대수(4,000대 이상) 기준 충족 ②GPS수신기를 활용한 고객인근의 빈택시 근거리 지정배차 ③업무택시, 카드결제, 안심서비스제공 ④가입택시, 운전자, 고객에 대한 DB구축 ⑤콜시스템, 콜전화번호, 차량외장 등 통일적용 ⑥콜단말기, 카드결제기, 요금미터기 상호연동 ⑦고객만족형 서비스(예약, 행사, 운전자, 차중선

민들은 안전,안심할수 있고, 불황에 허덕이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브랜드 콜서비스는 고객이 유.무선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 콜택시를 요청시 GPS로 가장 근거리의 택시를 배차하고 배차된 정보는 고객에게 전송됨. 호출수수료는 1,000원임. 안심귀가서비스는 브랜드 콜센터에 택시호출시 안심귀가서비스를 요청하면 고객의 탑승정보(탑승시간, 위치, 차량번호등)를 가족 등에게 문자로 전송해 줌으로써 심야시간 택시의 안전에 이용에 도움을 줌. 이외에도 가입택시기사에 대한 엄격한 관리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한다.

광주시도 브랜드 택시 활성화 방안으로 브랜드 안심콜택시를 지정하여 지원 해주는등, 택시의 서비스 개선시킴으로 시민도, 택시업계도 도움이 될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개발해 나가야 할것이다.

※ 차량내.외부 차량정보, 안심/안전 택시 확인 가능한 택시 디자인



<그림1 서울시 GPS안심 택시>

택 등)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⑧운영규약에 가입회원 및 콜센터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포함 ⑨적정규모(근무인원, 홈페이지 등)의 콜센터 구축 ⑩통신설비구축(콜수신, 차량위치파악, 콜센터와 차량 간 통신, 고객정보 보호, 차량운행 번호관리)

<p>▶ 운전기사예절 승객을 가족처럼!! 인사, 미소, 굽손 첫 인상부터 감동으로 목적지까지 안전운행</p> <p>▶ 승객예절 기사를 가족처럼!! 목적지는 정확하게.. 차내에선 조용히.. 기사분 인격존중</p>	택시 운행정보 안내		<p>불편사항 신고</p> <p>콜센터 042-12</p> <p>시 청 270-5845, 동 구 251 중 구 606-6871, 서 구 611 유성구 611-2585, 대덕구 608</p> <p>내리실때 소지품 “꼭” 확인하</p>
	차량번호		
	성 명		
	회 사 명 전화번호		

<그림2. 대전시 택시 내부 택시 운행정보: 앞, 뒤 좌석 모두 부착>



<그림2. 교통안전공단에서 인증한 안전한 개인택시스티커>

(5) 이용자 중심의 택시를 만들기 위한 택시회사의 적극적인 변화모색과 종사자의 책임 있는 직업의식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4,000여개의 버스, 택시회사 중 업종별로 교통안전도 상위1%에 해당하는 42개 운수회사를 [2014년 교통안전 우수회사]로 선정하여, 교통안전 우수회사 인증스티커 부착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등 교통안전을 위한 위와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반택시가 2013년도 28개회사, 2014년도 17곳 회사가 교통안전우수회사로 지정되었다. 그중 대전시 3곳, 전라남도 2곳등이 선정되었지만, 광주시는 한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이처럼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사용자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수 있도록 하여야 겠다.

더불어 “손님의 안전을 위해 안전띠를 매주세요!, ”택시 안심귀가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라는 등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안전정책에 대한 적극 홍보를 통해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회복할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기사님들의 옷 복장을 회사마다 달리하여 그 회사의 옷에 맞는 책임감을 심어주면 손님들에게 서비스 정신으로 최선을 다 할것이고 고객들도 그 회사에 맞는 택시를 고를 수 있을것이다.

◎콜택시의 경우, 콜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할수 있도록 콜을 받을수 있게, 그리고 이용자가 택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택시는 시민과 택시운전자, 택시업계 모두의 변화가 필요한 듯, 시민들이 이용하고 싶도록 만드는 안전성 담보, 친절한 택시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는것. 실제적인 변화모습 필요.

◎내가 택시를 타면서 느낄때 택시는 손님이 타고 도착지로 가고 요금만 받으면 되는 단지 운송업 일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그러나 택시는 서비스업이면서 운송업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택시에 실리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잊으면 안될것 같다

◎택시는 폐쇄적인 공간이고, 달리고 있는 차라 내가 대응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 더 두려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우리나라 회사택시, 개인 택시를 운영하는 주체는 고객응대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라는 맘이다.

◎먼 거리를 가든 가까운 거리를 가든 웃으며 맞아 주셨으면 합니다. 어쩔때 진짜 택시 타면서도 가시방식에 앉아 있는 기분이라고나 할까? 집에까지 오면서도 무슨 정신으로 왔는지 모를 정도로 불편함을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경로에 대해 먼저 물어봐주고, 콜 택시명함처럼 기사이력에 대한 명함을 건네고 필요 없는 말은 삼가면서 예의를 갖춰준다면 정말 금상첨화겠다.

◎버스와는 달리 택시 운전기사는 유니폼을 입지 않는다.

장시간 동안 운전을 해야 하는 특성으로 불편한 신발과 옷을 강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사가 모자를 눌러쓴다거나 너무 편한 트레이닝복을 입는 다거나 잘 씻지 않아 냄새를 풍긴다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회사의 유니폼을 입게 하는 것은 어떨까. 회사에 대한 이미지도 나아질 것이고 택시에 대한 신뢰도 훨씬 좋아질 것 같다.

마지막으로, 택시업계의 불황, 하루 평균 14~20 시간 가량을 작고 답답한 택시 안에서 보내는 택시운전자의 열악한 처우는 택시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점점 택시를 외면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이면서도 사회적 약자(여성, 장애인등)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이동수단으로써,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번 좌담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시민사회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공공적인 기능과 역할을 택시가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어 실천과제와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 이후 민우회에서는 좋은 택시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시민과 운전자 모두가 택시라는 공간 안에서 웃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 한다.

부록1

: 광주지역 여성들의 택시이용 경험 수기

광주시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광주여성민우회는 올 한해 4월~8월까지 여성들이 택시이용하면서 경험한(불편했던, 칭찬해주고 싶은 택시, 내가 생각하는 좋은 택시) 수기를 받았습니다. 총 37분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본 자료는 연구·조사 및 책자 제작 등의 활용에 관해 동의를 해주신 36분에 한하여 사례가 실려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작 활용에 동의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례1. 김○ (52세)

자가 운전을 하면서부터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긴 했으나 가끔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로 분류해보겠다

1) 가장 난감 할때는 밤에 연로하신 운전자를 만나는 것이다.

물론 직업이니만큼 잘 하시겠지만 경험상 밤운전은 나도 잘 안되고 위험하기 때문에 택시를 타는일이 많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나이가 많다고 다시 내린다면 그 분이 상처 받을꺼고 앉아 있자니 도착때까지 편하지가 않았다.

2) 도시가 확장되면서 도로 상황이나 길에 대한 정보를 네비게이션에만 완전히 의지 하는것을 볼 수있다.

그러다보니 출퇴근시나 차량이 밀리는 시간에도 우회할 생각을 안하고 기계가 지시하는 방향으로만 주행하는 바람에 도로에 묶여 시간과 돈을 낭비한 경우도 있었다.

운전자와 탑승자가 모두 길을 모를때, 특히 운전자의 판단미스로 헤매다가 요금이 많이 나왔을때도 피해를 고스란히 고객이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항의를 해야 하지만 밤늦게 이용했을 경우는 무서워서 더더구나 기분이 상한채로 내릴 수 밖에 없었다.

3)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모시고 택시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하차 하는것을 거들고 뒷문을 닫고 앞문을 열고 거스름돈을 받고자 했으나 출발해버려 황당했던 기억이 있다.

얼마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지만 그 후론 잔돈을 받기 전까진 절대 문을 닫지 않는다.

4) 나도 가끔은 운전 중에 핸드폰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택시 기사분이 집 도착때 까지 통화를 한적이 있었다.

여자라 뭐라 못할꺼라고 생각하고 그런 건지 몰라도 내릴때 미안하다는 인사도 없었고 나 또한 아무말 못했다. 기본적인 교육이 선행되지 못했을꺼라 생각이 들고 서비스 업이니만큼 정기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5) 택시를 이용하다보면 노후된 차량이 정말 많다

개인택시는 좀 덜하지만 회사택시의 경우 걸보다 안이 많이 노후되고 불허져 있는 신분증과 기사분이 다를 때가 많다. 그걸 왜 그러냐고 물어본적은 없지만 여러 사람이 몰기 때문이라고 짐작했다

6)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신역에서 밤늦게 택시를 타려고 보면 정류소에 많은

택시들이 장거리 호객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조금 위험해보이기도하고
무섭기도 하였다

시외가는 택시정류소가 있었으면 한다

7) 반대방향 으로 가고자 할때 유턴하기가 쉽지 않아 지하도를 건너가 택시를
탈 때 지하도보다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위의 내용은 이용하면서 개선했음 하는 내용을 쓴거고 대다수의 기사분
들은 친절하고 예전과 다르게 늘 손님에게 주행길을 물어보고 무거운 짐들도
스스럼없이 들어주고 하셨습니다.

사례2. 김○○(25세)

불편했던 경험:

- 현재, 나는 자가용이 있음에도 아이가 너무 어려서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집에서 택시를 이용할려면 큰 길까지 나가야 돼서 주로 콜택시를 이용하는 편이다. 우리집에서 택시가 많이 있는곳 또는 쉽게 택시를 잡을수 있는곳은 큰길까지 나가야 돼서 아이와 동반하거나 바쁠 때는 콜택시가 매우 편리한것 같다. 콜택시를 두 번째 이용 했을때,(월드콜인지 엔콜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나의 집(동, 아파트명, 동)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먼저 “네에 운암동 @@아파트시지요? 라고 콜센터 직원이 말을 하였다. 처음에는 그냥 편리하더라는 생각정도, 왜냐하면 평소에 배달음식점에서도 한번 이용하면 나의전화번호와 집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것 같다. 그렇지만 나의 정보가(휴대번호, 집) 택시운전기사에게도 들어 가는것 같다. 내가 집에서 조금 늦게 내려왔을때 택시운전기사분이 내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하였다. 그래서 알아보니 나의 정보가 택시운전기사에게도 그대로 문자로 발송된단다. 요즘처럼 개인정보유출로 문제발생이 빈번이 일어나는 시대에 나의정보를 운전기사까지 알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에 상당히 당황스럽고, 불쾌했다. 택시콜센터에서는 나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나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 문자에 택시 차량번호가 와서 번호를 확인하고 택시를 탔다. 타자마자 인사를 먼저 건넸는데도 기사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제까지 택시를 이용하면서 대부분의 기사님이 그랬던것 같다. 그리고 목적지를 말해도, 그냥 아무 반응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 얼마나 무안한지, 이분이 제대로 나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아이와 함께 뒷좌석에 타면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속을 한다던지,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했을 경우에는 더 불안하지 않을수가 없다. 아이가 탔으면 좀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야 하는데 그럴지도 않다. 그렇다고 기사님에게 천천히 가달라고 말하기도 쉽지가 않다. 택시안 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힘있는 남성운전자와, 힘이 없는 여성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근무 중 시내에 볼일이 있을 경우에 주차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가용이 있음에도 택시를 가끔 이용하는 편이다. 우리 회사는 시내에 위치에 있다. 금남로 쪽은 택시가 많아서 잡기 쉽지만, 수창초등학교 후문쪽에서는 지나가는 택시가 거의 없어서, 택시 잡는데 한참이 걸린다.

그날도 근무를 하고 있던 중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가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게 되었다. 택시를 타고 인사를 하고 목적지를 말하였다. 인사에 대한 대꾸도 목적지에 대한 반응도 없었다. 물론 남성운전자이고 저보다는 더 연장자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런지 일단, 무조건 반말로 응대를 하신다. 처음에 목적지를 말하고 ‘죄송하지만 목적지보다 다른쪽으로 다시 가달라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 짜증을 내기도 하고 여전히 반말로 응대를 하였다.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하는거는 택시운전자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른들, 특히 남자 어른들이 자주 범하는 잘못된 관습인것 같다. 하지만 당하는 나는 기분이 나쁘다. 나이가 어리든, 많은간에 나는 고객인데 말이다.

-광주같은 경우 택시가 터미널, 광주역, 공항등에는 택시정류장에 택시들이 길게 줄을 서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집 같은 경우는 운암동이기 때문에 버스터미널에서 가까운 거리이다. 그래서 일단 미안한 마음으로 탈 수밖에 없다. 이제까지 손님 태우기 위해 긴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기본요금 나오는 거리를 가면 재수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짜증을 내기도 하고 불편한 얼굴을 하는 택시 기사분들이 많이 있다. 이것 또한 손님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정작 시내에 택시가 많이 보이질 않아 택시잡기 힘들지만, 터미널 같은곳은 택시가 넘쳐나는 현실을 보았을때, 조정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좋은택시 사례: 2014년 5월에 길가에서 택시를 잡았다. 택시를 잡자마자 항상 운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본다. 인상은 좋은지, 모자를 눌러쓰거나, 옷이 단정한지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우와! 다행이도 50대로 보이는 여성운전자. 정말 드문 경우이다. 순간 마음이 놓인다. 대낮인데도 택시를 타면 항상 불안한것이 사실이다. 타자마자 “안녕하세요! 인사를 먼저 건네주신다.” 처음인것 같다. 나도 인사를 건네고 여성분이라 마음이 놓인다라고 말을 건넸다. 운전자분도 마찬가지로 한다. 남성이 타면 본인도 항상 불안하단다. 실제로 앞좌석에 남자손님이 탔을 경우, 성추행도 당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목적지로 가는 방향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디로 가는게 편하냐고 물어보신다. 이런 경우도 드물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한 경험이 있었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택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과 택시운전자, 택시업계 동시에 변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택시업계에서는 손님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고, 시민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점, 불친절한 느낌을 받는 이상, 이용하고 싶어도 외면하게 될것이다. 그래서 우선, 행정 또는 택시업계에서는 택시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 실제적인 변화모습등을

모범적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특히 여성들은 택시운전자의 복장에 예민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모자를 눌러썼다던지, 팔에 문신이 보인다던지 등등. 담배냄새가 차에서 난다던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 매우 민감하므로, 자체적으로 택시운전자의 복장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행정에서 콜택시관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콜택시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놓으면, 편리성 때문에 시민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사려된다.

사례3. 남○○(45세)

“택시”의 의미란 대중교통에서 바쁜 시간을 아끼기 위해 타는 대중교통이라 생각합니다..그런데 대한민국 택시 탈 때는 기사 눈치를 보며 타야합니다..만약 가까운 거리를 간다고 하면 기사 아저씨의 눈치부터 봐야하고 오만상을 찌뿌리며 심지어 가급적 천천히 운전하며 갑니다..특히나 일부개인택시 운전사님들의 이런 행태는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그래서 차라리 영업용 택시를 더 선호할 때가 있긴 합니다 왜냐면 더 빠를 수 있으니까요. 그 기사님들은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시기 때문입니다.(바쁜 손님 입장에서 본다면) 또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타시는 노인분들이나 애기엄마들을 위해 직접 나오셔서 드렁크를 열어 짐을 직접 실어주는 기사분들이 있다면 아마 SNS에 글을 올려 “훈훈한 감동을 느끼게 하는 택시 운전기사”란 타이틀로 글을 올리겠지요.. 그만큼 택시를 타면서 손님 입장에서서는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택시를 안 탈수도 없고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 “좋은 택시”를 만들 것인가?

첫째, 이 문제는 택시기사님들의 마음가짐 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 직업정신,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일본에 갔을 때 일본 MK 택시 본적이 있는데 손님이 오면 뒷 자석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운전기사는 넥타이에 정장 차림 복장으로 차에서 내려 손님에게 인사를 하고 문을 닫은 후 미터기를 누르며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호텔에 들어가기 전 호텔로비에서 문을 손수 여 닫아 준 것처럼... 그리고 MK 회사는 고객들에게 맞는 서비스 교육을 기사들에게 매달 실시해서 택시기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만약 서비스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이면 다시는 MK 회사에 입사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장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택시 운전기사들이 운전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회사측에서 “배려”와 “후생복지”에 최선을 다해주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MK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택시기사님들이 “갑”이고 손님들이 “을”인 경우가 승차거부 ,부당요금(우리나라는 손님이 문도 닫기 전에 미터기를 누르는 경우가 많지요), 거친운전 등 많습니다. 물론 운전기사님들도 사납금과 저임금 때문에 힘들다는 점도 알고 있지만 대중교통은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경쟁사회에서 이길 수 가 없습니다. 택시 회사도 당장의 이익보다는 기사님들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교육에 투자를 하신다면 기

사님들도 고객님에게 더 친절하게 손님입장에서는 대우 받는 면에서 그 회사의 택시만 불러서 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기사님들의 옷 복장을 회사마다 달리하여 그 회사의 옷에 맞는 책임감을 심어주면 손님들에게 서비스 정신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이고 고객들도 그 회사에 맞는 택시를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택시 운전기사님들도 회사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해 친절과 정당한 요금으로 운전을 하실 겁니다. 저도 가끔은 이런 기분 좋은 택시 기사를 만날 때 마다 ‘다음에도 이 기사님을 부르면 좋겠다’란 생각을 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셋째, 여성 택시 운전기사님들을 많이 고용해 여성고객들이 마음 놓고 택시를 이용하게 해주는 겁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간대가 버스가 끊기는 밤에 많이 이용하는데 솔직히 여성 입장에서 밤에 택시 타기가 제일 무섭고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운전 기사님들이 남성이다 보니 뉴스에 나오는 범죄이야기에 괜히 망설여지지만 어쩔 수없이 택시를 이용하면서 ‘친구들이 택시 번호판을 기억해 준다던’가 아니면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며 마음을 진정 시키고자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마다 여성 운전자들을 고용하는 할당제를 의무적으로 법을 만들거나 여성 인력을 뽑는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어 여성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성 손님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밤 시간대 택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거양득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으로 가까운 거리를 가는 택시, 멀리 가는 택시 차 색깔을 달리하여 고객들이 차를 탔을 때 “승차거부”를 당하지 않게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제도가 자기 동네에 해당하는 택시가 아니라고 ‘승차거부’ 느낌이 들겠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회사마다 만들어 선택을 한다면 환경적으로나 비용면에서도 절감이 되고 기사님들도 사납금 때문에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 이라 생각 됩니다.

옛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란 말처럼 친절한 미소로서 자기 회사의 이미지를 가슴에 담고 고객들에게 행동한다면 “좋은 택시” 만들기 프로젝트 란

문제점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나쁜 일이 터질 때 마다 개선할 것이 아니라 미리 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어 앞으로 광주 유니버시아 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빛고을 광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첫 번째 외교관 얼굴이 될 수 있는 택시 기사님들의 “친절외교, 미소 외교”를 펼친다면 이미 이 대회는 절반이 성공이 된 거라 자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택시가 더욱 서민 곁에서 친근한 벗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례 4. 이○○(16세)

먼 거리의 교회나 충장로 등의 장소로 자주 나가게 되어 버스보다 편리한 택시를 자주 타게 된다. 물론 좋은 택시기사 분들도 계시지만 3분의 1 정도의 기사 분 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곤란하고 불편한 상황을 만드신다. 한번은 콜택시를 부르려고 콜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어 내가 있는 위치를 말씀드렸는데 계속 기다리라는 말뿐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다. 몇 분 후 콜택시 상담원이 그쪽으로 가는 택시가 없다는 무뚝뚝한 말과 내가 끊기 전에 먼저 전화를 끊어 버리는 무례한 행동을 범했다. 기분이 나빠 그냥 지나가는 택시를 탔지만 아직까지도 무례했던 그 콜택시 상담원 때문에 다시는 그 콜택시를 타지 않는다.

이번 사례는 콜택시 상담원 때문 이었지만 지금 말할 사례들은 택시에서 있었던 일들이다. 충장로에서 친구와 놀다 다리가 아파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택시를 잡았는데 딱 택시를 탄 순간 기사 분께서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다. 처음에는 좋은 분 인줄 알고 나와 친구도 인사를 했다. 처음 10분 동안은 재미있는 말로 우리에게 웃음을 주셨지만 점점 도가 넘치시더니 결국에는 우리가 듣기 거북한 말까지 하셨다.

친구와 나는 말로 하기 에는 곤란해 문자로 ‘어찌지?’ 라고 대화하며 초조해 했다. 기사 분께서도 우리의 대답이 들리지 않으니까 알아서 말을 멈추신 것 같았다. 집에 다 와서 택시에서 내릴 때 잘 가라는 말을 하긴 하셨지만 우리는 거북한 말을 들어 기분이 나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없이 택시에서 내렸다. 그리고 한번은 일주일에 한번 씩 가던 교회를 가기위해 택시를 탔는데 기사 분께서 내가 항상 교회를 가던 루트가 아닌 먼 거리를 돌아서 교회로 가셨다. 어의가 없어서 기사 분께 이 길은 멀리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씀 드렸더니 네가 택시기사냐고 “학생주제에 뭘 안다고 어른 말씀에 말대꾸 하나”고 하시면서 막 화를 내셨다. 나도 기분이 나빠 이러면 택시 어떻게 타겠냐면서 혼잣말을 했더니 기사 분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거칠게 차를 운 전하셨다.

결국 교회에 도착했지만 나는 기분이 매우 나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지폐 몇 장을 내밀고는 거스름돈도 받지 않고 쑥 내려버렸다.

아저씨는 창문을 내리시고 막 뭐라고 하시더니 거칠게 운전을 하시면서 자리를 떠 버리셨다. 지금 와서 생각 하니 그냥 끝까지 따져 버리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

항상 가는 길을 처음 보는 길로 15분도 더 걸려서 요금도 3000원,4000원이나

더 나와서 화가 나 어의가 없었던 것 같다.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말들만 듣게 되고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한 것이 시간이 더 걸리고 요금을 더 내는 것 보다 더욱더 화가 났다.

내 친구들 중에도 위 사례와 같은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친구 한명은 엄마와 같이 택시를 탔는데 나와 같은 경우와 함께 막말까지 들어서 경찰에 신고까지 하려다가 기사 분이 요금을 내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해서 요금을 내지 않고 사과 까지 받고 택시에서 내렸다고 했다. 또 한명은 택시를 4명이 같이 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조수석에 탔는데 기사 분께서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고 윈크 까지 하셔서 짜증나고 기분이 매우 나빠 그냥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집까지 왔다고 했다. 50세가 더 넘어 보였다고 했는데 16살 중학생 한테 그런 음란 행위를 하다니. 친구는 아직까지도 그 기사 분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서 택시를 잘 타지 않는다고 했다. 그 기사 분 한명 때문에 내 친구는 편리한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친구는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해서 많이 불안했다고 말했다. 정말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위 사례 같은 일들로 우리에게 불편을 주시는 분들 때문에 택시타기가 싫어지는 상황까지 일어나는 것 같다. 이용자와 택시 운전자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대화를 유도 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 대화의 선을 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이다. 사람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버스 보다는 편리하고 빨리 갈 수 있는 택시를 이용자들이 자주 애용하고 기사 분들은 기분 좋게 수입을 벌 수 있는 서로서로에게 좋은 상부상조를 했으면 좋겠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택시를 많이 타는데 나와 내 친구들 같은 사례로 한국의 택시 문화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 시켜주고 싶지 않다. 그리고 택시가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데 안전선을 잘 지키고 과속도 하지 않고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편리한 택시를 자주 이용 했으면 좋겠다.

사례5. 조○○(37세)

여성으로써 택시를 이용하면서 겪은 불쾌했던 기억

귀걸이를 하신 남자 기사님, 몸치장과 함께 택시 내부 인테리어에 상당한 노력을 들였다. 조수석 천정에 공갈젓꼭지, 짝을 잃어버린 한쪽 귀걸이들이 여러개 꽂혀있었다. 아저씨 것인가?? 그런데 왜 한쪽씩이지? 저 오래된 듯한 공갈젓꼭지는 또 뭔가? 차량 내부를 도배한 호랑이와 대나무 숲 포장지. 2012년으로 기억하는 어느날 부모님을 모시고 잡아탄 택시 실내 인테리어에 조금 놀랐던 기억이 선명하다. 왜? 솔직히 무서웠다. 귀걸이와 젓꼭지는 손님들이 흘린 것들일까? 아마도...밤에 혼자 탔다면 빨리 내리고 싶은 택시로 기억한다. 세상이 흥흥해서 일까 아니면 영화를 많이 본 탓이었을까 마치 전리품처럼 보이는 한쪽짜리 귀걸이들의 모습에 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던 기억이다.

언젠가 이른아침 출근길에 잡아탄 택시는 실내 인테리어가 마치 무도장을 연상케하는 모습이었던 적이 있다. 많은 씨디와 천정에 붙은 야광별과 달들..그리고 알록달록한 불빛. 내가 택시를 타고 조금 달리다 불빛은 꺼져서 달도 별도 사라졌던 기억이 있다. 그때는 집천정에도 야광별과 달을 붙이는게 유행이었던 때고 그 모습이 놀랄만한 소재가 아니었다. 그리고 기사님도 젊고 수려한 외모의 훈남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 외모에 대한 나에 편견이 작용한 택시 이용 에피소드는 세 번째로 이어진다.

초행길인 장성군을 다녀온 적이 있다. 기사님은 속된 말로 깡두기 형님의 헤어스타일과 체구까지 갖추신 분이였다. 택시를 타고 속력을 내자 잠금장치가 찰칵 소리를 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가방에 휴대 전화를 꺼내서 문자 메시지로 내가 지금 택시를 타고 달리는 중인데...라는 문자를 찍었다. 당황해서 심장박동소리가 빨라지고 이 상황에서 어찌해야 하는지 정신이 없었다. 상황파악이 끝나기도 전에 택시가 장성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내 참..잠시나마 누군가를 치한으로 오해한 것이 많이 죄송했다. 직장동료분께 이야기를 했더니 중형차 중에 속력을 내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는 차종이 있다며 하필 기사분 외모는 왜 깡두기 형님 스타일이었냐며 잠시 웃고 넘겼다. 우리를 불안케 하는 택시 사고에 관한 뉴스 탓이 크다.

난 5살부터 목포에서 30년을 살았다. 잠시 대도시에서 살았던 적도 있다. 음..

대도시와 작은 중소도시의 택시 문화도 많이 다르다. 목포에서 택시를 타면 호구조사를 비롯해 끊임없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것도 소년의 신변에 관한 물음들. 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그럼 지금은 무슨일을 하며 부모님은 아직 목포에 계시는지 기타 등등. 대답에도 한계가 있고 그냥 무응답으로 앉아 있자니 목적지까지는 아직도 멀었고. 기사님이 알아서 잠시 침묵을 유지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참 말이 많은 기사님들이 종종 계신다. 이것이 시골 목포라서 그런가? 광주로 이사와서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식의 끊임없는 대화형 기사님이 많지 않다는 것. 하지만 5살 딸아이랑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 가끔 아이에게 계속되는 질문과 왜 대답을 않는지 되묻는 아이를 예뻐하는? 기사님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아이들의 특성상 대답을 하지않는 경우가 오히려 많은데.

남편과 동행한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질문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 결혼하지 않은 나의 친구 역시 여자 혼자 타면 기사님의 질문이 많아진다. 처음엔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고 일상적인 인사말로 시작해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경우 내 친구는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고 심한 경우 도중에 내린 적도 있다고 한다.

요즘은 애견 인구가 참 많다. 우리 집에는 15년을 함께 살다 지금은 세상을 뜬 작은 말티즈가 한 마리 있었다. 1998년부터 함께 살았는데 그때만 해도 반려견의 개념은 크지 않았다. 개를 데리고 택시를 타려면 먼저 기사님께 개와 함께 타도 되는지 묻고 확답을 듣고 택시를 타야 했다. 개를 차에 태우면 재수가 없다는 식의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한번은 경기도 수원에서 택시를 탔다. 타기전 개와 동승임을 알렸고 태워도 좋다는 대답을 들었다. 문제는 태운 기사님이 출발 후 두 번의 괜히 태웠던 식의 말을 했다. 개는 3킬로 그램정도였고 짓거나 킁킁 거림이 없었음에도 기사님은 싫은 내색을 했다. 승객인 나는 불쾌했다. 처음부터 태우지 말것이지.

두 번째 반려견과의 택시 승차에 관한 불쾌한 일을 경험했다. 역시나 개를 태워도 되는지 물었고 택시 기사님은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 이 택시는 내가 잡은 택시가 아니었다.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 내 앞에 택시가 와서 멈춰섰다. 이미 다른 손님이 타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합승은 가능했던 때다. 곧 손님이 내린다면 나를 태웠다. 개를 키우냐면서 가족들이 개를 다 좋아하는지 개랑 정이 나면 정을 못뺏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다. 내가 무대답으로 일관하자 목적지에 거의 다 와서야 말을 멈췄다. 나중에서야 알았다. 포르노 중에 동물과 행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미리서 알았다면 신고했을 것이다.

최근 택시나 버스기사님들의 차내 흡연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기사를 접했다. 반가웠다. 날이 더운 여름날에도 에어컨을 켜채 흡연을 했는지 승차시 담배연기를 함께 태우고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 특히 아이와 함께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더 신경쓰이는 부분이다. 잡아탄 택시 도로 내릴 수도 없고. 고작 창문을 내리고 환기를 시키는 것이 다고 아이가 어려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다 맞게 하는 것도 신경쓰였는데.....

사례6. 양○○(43세)

불편했던 경험 :

- 밤 늦은 시간에 택시를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늦은 시간에 이용하다보니 친구가 걱정이 되어서 택시의 차량번호를 외우고 뒷자석에 탄 나에게 차량번호를 알려주었다. 차는 출발하였고 택시 기사는 나에게 차량번호는 왜 알려주었냐고 물었다. 아무래도 여자 혼자 밤 늦은 시간에 택시를 이용하니 걱정되어 친구가 신경 쓴 것 같다고 하니 기사가 하는 말이 “더 늦은 시간에 젊은 처녀가 타도 그냥 타는데, 아줌마가 뭘 걱정을 하느냐” 라고 하였다.

당시에는 그냥 웃고 말았는데, 참 불편한 경험이었다. 처녀이든 결혼한 사람이든 늦은 시간에 여자 혼자 택시를 이용하면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안심귀가제’ 등을 이용해 밤 늦은 시간에 여자들이 안전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늦은 시간에도 여자들이 마음 놓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GPS를 활용한다든지, 등록된 사람만 차량을 운행한다든지 하는 등의 안전한 귀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리라 본다. 여성들에게 안전이 확보된다면 여자들은 마음 놓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택시 이용에 대한 불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택시 이용에 대한 불안이 늘 남아있다. 이 불안이 해소되어야만 여성들은 마음 놓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어느날 타 지역에서 기차를 이용하여 광주역에 도착한 적이 있다. 늦은 시간이라 버스는 끊겼고 역 앞에는 수 많은 택시가 있었다. 나는 줄 서서 기다리다가 택시를 탔다. 그리고 목적지를 말했다. 집까지는 5~10분 거리였다. 그러자 기사는 너무 짧다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1시간 가까이 기다렸는데, 5분거리면 돈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광주역에서 목적지가 가까운 사람은 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인가. 12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어떻게 집을 가란 말인가.

그 말은 들은 나는 한편으로는 기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1시간이나 기다렸다는데 짧은 거리 때문에 제대로 밤 별이를 못하게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것이다. 한편으론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던 경험이었다. 기사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님에게 본인의 불편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좋은 택시 사례 : 언제가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기사에게 지역을 말하고 갈 수 있는지 물은 적이 있다. 그러자 기사는 택시는 손님이 원하면 어디든지 간다고 말하며 타라고 하였다. 하지만 예전에 어떤 기사는 행선지를 말하면 그쪽은 가지 않는다며 내리라고 한 적도 있었다. 이것은 분명히 승차 거부에 해당한다. 당시엔 그 기사를 신고할까도 생각했는데 차량번호도 몰랐고 경황이 없어서 그냥 지나간적도 있었다. 오래전의 경험이긴 한데 그 당시엔 상당히 불쾌했던 생각이 난다. 그러나 이 기사는 손님이 원하면 기사는 당연히 어디든지 가야한다고 말했다.

- 우리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망각하고 어느 지역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 본 후에 택시를 타기도 한다. 그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손님을 가려 태우기도 하기 때문이다.

- 딸과 함께 택시를 탔는데, 짐이 많았다. 그러자 기사가 문을 열고 내리면서 뒤 트렁크를 열더니 우리의 짐을 모두 실어 주었다. 또, 목적지에 도착해 하차할 때도 차에서 내려 우리의 짐을 모두 내려 주었다. 이런 서비스에 익숙치 않은 나는 고마운 마음도 들고 '참 친절한 기사님 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보통은 뒤 트렁크만 열어주고 기사는 차 안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기사의 그런 친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기사가 짐을 실어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권리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기사 분을 만나면 '내가 횡재했네', '오늘 재수가 좋네' 이렇게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이런 친절은 기사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 광주에 이런 좋은 택시 기사가 많아졌으면 한다. 짐이 많은 손님에게는 차에서 내려서 짐도 실어주고 언제든지 어느 곳 이든지 손님이 원하는 곳이면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택시가 많아졌으면 한다. 그리고 언제나 웃으며 손님을 맞아주는 그런 택시 기사분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례7. 이○○(37세)

대부분의 일명 ‘아줌마’라는 칭호를 가진 기혼 여성들은 자녀들 때문인지 나이에 걸맞는 억척스러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늘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다닌다. 특히나 택시를 기다리는 여성들은 더욱 그러하다. 필자 또한 짐을 나서면 늘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늘 아이까지 대동하고 다닌다. 우리의 이런 모습이 사회악도 아니고 혐오감을 주는 것도 아닐진데 왜 우리는 친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

작년 가을, 타 지역 축제에 갔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셔틀버스를 놓쳐 아이와 함께 택시를 기다렸다.

다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 교통은 혼잡하고 사람도 많고 해서 택시를 잡을 수 있을지 꽤나 걱정을 했다. 그래도 빈 택시들이 곧잘 오기에 다행이다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선뜻 문을 열어주는 택시는 없었다. 핑계는 가지각색이었다. 교대시간이어서 들어가는 중이라 못 태운다고도 했고,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말도 들었고, 분명 올바른 방향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향이니 길 건너서 타야 된다고도 했고, 콜을 받고 가는 길이라 못 태운다고도 했다. 하지만 어이없고 황당한 것은 그 모든 택시들이 저만치 앞에서 홀로 서있던 다른 누군가를 태우더라는 것이다. 난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아니, 눈치가 없어서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한 시간을 넘기고, 아이들은 지쳐 쓰러져 갈 무렵 한 시간 삼십분이 다 되어가는 때에 다행히 맘 좋은(?) 택시기사분이 우리를 태워주셨다. 왜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너무 감사하다며 넘죽 인사까지 해가며 탔다.

아저씨는 ‘왜 그러냐’ 물으셨고, 자초지종을 설명 드리니 참 이상하다고 왜 승차거부를 했는지 본인도 이해가 안 된다 하셨다. 목적지인 주차장이 외진 곳도 아니고, 기본요금만 나오는 거리도 아니고, 방향이 틀렸다는 말도 아니라고 하시며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싸잡아 욕을 먹는다 하셨다. 짐도 많이 들고 있고 아이까지 딸려 있다고 택시비를 안주는 것도 아닌데 본인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하셨다. 내 마음에 동조를 해주시는 아저씨 덕분에 불쾌지수와 분노지수가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즐거운 여행길 마무리가 그래서 그날의 추억조차 꺼내고 싶지 않게 되었다.

물론 가볍게 혼자 빈 몸으로 타서 하차도 가볍게 획 내리는 손님이 더 좋긴 하겠지만 일 년에 한 번씩은 장사도 안되고 돈벌이도 안되니 택시요금 올려야 한다면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당사자들이 왜 돈을 주고 타겠다는 손님도 마다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비단 승차거부만이 문제가 아니다. 한번은 여자친구와 둘이서 대낮에 택시를 탄 적이 있다. 우리를 태운 택시기사는 툼미러로 슬쩍 우리를 훑어보더니 자기가 아는 택시기사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했다. 크게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아저씨는 그렇게 혼자 이야기를 시작했다. 친한 택시기사가 있는데 어느날 낮에 30대 여자손님을 태우게 됐더라. 기사분이 “어디로 모실까요?”라고 두세번을 물어도 여자손님이 대답을 안해서 바람 쏘이러 가실거냐고 묻고 둘이서 근처 외곽 산장에 가서 밥도 먹고 결국 모텔도 갔다 헤어졌다는 것이다. 자기도 그런 손님 만나고 싶다면 부럽다는 말을 계속 해댔다. 우리에게 그런 손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기분도 상하고 수치스럽고 짜증도 나고... 우리는 가다 멈추고 내렸지만 만약 혼자 탔더라면 그 요상한 분위기는 어떻게 감당했을까 싶다. 혼자라면 함부로 대꾸하거나 편잔을 주기에다 무서운 것이 현실이지 않은가! 얼굴과 몸매는 이래도, 그래도 나는 여자니까...

이렇게 은근슬쩍 우리는 택시 안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있고,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있다. 직접적이지 않아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요상한 분위기 속에서 택시는 달린다. 그저 빨리 택시가 멈추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저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서 얼른 그 공간에서 탈출하고 싶을 뿐이다.

나의 딸아이도 자라면서 앞서 말한 이런 상황을, 혹은 더한 상황을 여러번 당할 수도 있다. 그때마다 난 미안하겠지. 내 아이의 미래를 더욱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지 못함에...

오늘 오전에 잠시 성교육 강좌를 듣고 왔다. 강사분의 첫마디가 이랬다. “여러분! 모든 폭력은 한 고리 안에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해야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합니다.”라고. 맞다. 우리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집단지아 단위집단인 가정이 변해야 한다. 올바른 부모교육이 세워져야 사회도 바로 서고, 올바른 성인교육이 세워져야 자녀교육도 바로 선다. 그래서 난 나의 아이를 더욱 바르게 되라 다독인다.

그래야 후손들의 사회가 더욱 건강한 사회가 되겠지 하고. 뜬금없는 결론에 이른 것 같지만 우리 여성들에게 성추행을 일삼는, 혹은 승차거부를 하는 행위 자체도 건강한 가정교육이 안된 성인들이 너무 많은 사회여서 그렇지 않나 생각한다.

사례8. 주○○(44세)

불편했던 경험:

나는 흔히 말하는 <길치>다.

서울에서 살다 광주에서 산지 11년째다. 서울에서는 대중교통이 워낙에 발달해 있고 지역도 넓어(요금부담) 택시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어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었다.

그렇지만 광주에서는 길치인 내가 살기엔 힘든 지역이다.

버스노선도 모르겠고 지하철은 1호선 밖에 없으니 나에겐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난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땐..)

난, 택시 기사 아저씨들이 계속 얘기 하시는 게 불편하다.

그냥 조용히 가고 싶을때가 있다. 어르신일 땐 더욱이 그렇다. 대답을 해줘야 기분이 덜 언짢으실 것 같아 대답 한 번 하면 끝이 없다.

언젠가 한 번은 애들과 같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도로에 차가 많은걸 보고 기사아저씨 하시는 말씀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렸어. 일본이나 미국에서 확 쳐들어와서 또 한 번 나라를 뺏겨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하신다. 60대 정도의 어르신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들을 애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가볍게 하실 수 있는지.. 정말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또 다른 경험.. 난 거의 콜택시를 이용한다. 택시에 승차를 한 후 아들을 수완에 있는 학원에 내려주고 신가동의 집으로 와야 하는 길이었다. 3분후 도착이라는데 10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연락했더니 곧 도착한단다. 다행히 금방왔다. 왜 이렇게 늦으셨냐고 했더니 차가 막혔단다.

가까운데 계셨으니까 온다고 하셨을 텐데 그렇게 막혔느냐고만 하고 출발했다. 조금 후 늦은 이유를 알게 됐다.

수완을 들러 신가를 가자고 했어야 했는데 난 수완지구만 말을 하였다.

가는 도중 콜 대기 연락이 왔는데 수락을 하신모양이었다.

내가 신가들려 수완을 가야한다고 말씀드리며 그 손님께 못 간다고 연락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그분께 전화하더니 말씀하신다. “차가 막혀서 10분 정도 더 기다려 주세요”라고.. 차가 막히다니!!

당연히 거절했어야 옳았다. 신가동 들러 다시 수완까지는 10분에 어림도 없는 거리였는데 말이다. 그때 나에게 든 생각은 그래서 나도 아까 10분이나 기다려야 했던 이유가 기사아저씨의 욕심이나 올바르지 못한 대처 방법 때문이었지 않나 싶다.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욕심을 부리는...

그래서 정말 바빠서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시간까지도 빼앗는 일.

많은 사람을 상대하여야만 하고 계속 앉아서 운전하는 일이 어렵다는 건 아니다.

난 택시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니 고마운 마음도 크고 가까운 거리에 가는 경우 미안해 하면서 택시를 타는 경우, 함박웃음으로 괜찮다고 말씀해주는 기사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내가 바라는 건 특히 아이들이 있을 땐 바른 언어를 사용해주시고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사례8. 한○○(45세)

요즘처럼 교통난이 심할 때 택시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다. 운전에 대한 부담감과 주차에 대한 불편함을 잊을 수 있고, 빠르게 도착하기도 하니 편리한 점은 참 많다. 특히 과거에 비해 현재에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여성들도 음주로 인해 택시를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었지만 요즘은 성폭력, 성추행 등 많은 사건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여성들이 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많은 불안감을 안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여성들뿐만 아니라 일반여성들에게도 낮이든 밤이든 택시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는 안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최근에는 택시기사 모집부문에 많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모지역에서는 택시기사 분들이 전과기록이 있는 분들도 기사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소식을 방송매체를 통해 들었다. 그럴지 않아도 택시 이용하는데 많은 불안감이 생겨 잘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 더더욱 이용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학교 다닐 때 친구가 택시 기사분에게 성폭력을 당할 뻔 했던 경우가 있어 그 후로 택시는 되도록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

나에겐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어서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 택시를 타지 않는 편이다.

부득이한 경우 택시를 이용하게 될 경우 혼자타지 않고 여럿이 같이 타거나, 저녁이 아닌 아침이나 낮에 타는 경우가 있고 만약 혼자 타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차량번호를 먼저외우고 핸드폰으로 친구나 가족들에게 먼저차량번호와 도착지를 알린다.

차량안에 들어가면 운전자얼굴과 운전면허허가증에 나오는 신분증을 확인한 후 기사분에게 말을 걸어 도착할 때까지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어 침묵의 시간을 갖지 않으려고 애쓴다.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 차량이 참 깨끗하다. 운전을 잘 하시네요. 빠른 길을 잘 아시네요 등등..”이야기를 나누고 내릴 땐 꼭 “고생하셨습니다.” 하며 내린다.

물론 택시이용자에게만 문제와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니다. 택시기사분들도 피해를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친구가 시골에서 택시를 하는데 택시안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사무실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다. 택시기사분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 고객이 택시를 이용하면서 불안감은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

택시기사분들에게는 술취한 고객에서 억울하게 폭력을 당하는 경우 좋은 자료로 이용할 수 있어 좋을 것 같다.

택시를 이용하는 여성분들이나 택시 기사분들의 안전을 모두 생각하여 좋은 대안들이 나왔으면 한다.

사례9. 한○○(37세)

1. 택시 기사님의 언어 성추행

목적지에 왜 가냐 물으셔서 왜 간다고 말했더니, 거기 가지 말고 자기(기사)와 좋은 곳에 가자고 기분나쁘게 웃음. 자기가 밥도 사고 술도 산다고 하면서 계속 거기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있자는 농담아닌 농담을 함. 처음에는 ‘예’ 하면서 웃고 넘기려 했으나, 같은 말들이 계속되어서 불쾌해 반응없이 있어도 멈추지 않음.

2. 손금 봐주겠다며

손크기를 보더니 보통 남자로는 성에 안차겠다며 남편과 펜찰냐는(성적으로 펜찰냐는 뉘앙스) 사적인 부분에 대해 질문함. 자기가 손크기나 생김을 보면 대충 아는데 하면서 부부관계에 대해 자꾸 물어봄.

3. 정치적 부분에 강요

선거철에 택시를 타면 많은 기사님들이 정치적 견해에 대해 일장 연설을 하심. 그런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승객들도 있을 텐데, 어느 후보가 어떻드니, 한국 정치가 망했다느니 듣고 싶지 않은 얘기에 대해 내리는 순간까지 일방적인 연설을 하심. 이럴 때 반응이 시큰둥 하거나 승객이 듣고 싶지 않은 눈치 일때는 조용히 목적지에 가 주시는 센스! 필요하다.

사례10. 박○○(37세)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여전히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기에 어쩌다 한 번씩 타게 되지, 매일같이 출퇴근 수단으로 이용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처럼 큰 비용을 지불할 때에는 그만큼의 서비스를 기대하게 된다.

일본의 택시 회사들이 기사들에게 서비스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것은 다들 대중매체를 통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실제로 일본에서 느낀 택시는 내가 마치 회장님이 된 것 같았다. 사실 이 정도까지의 수준이 아니더라도, 택시를 타서 기분이 망치고 싶진 않다.

나는 뚜벅이 아기 엄마로 임신 때부터 택시를 이용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 택시를 타고 나서 심중팔구는 기분이 나빠서 내리곤 한다. 분명 모든 택시가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불편함을 느꼈다.

누가 봐도 임부로 보이는 만삭 때나 아기띠로 아기를 안고 탑승을 했음에도, 거침없는 난폭운전은 임신 중이었을 때도 아기와 함께 일 때도 엄청난 스트레스이다. 승차 후에 임신 중이니까, 아기가 있으니까 천천히 가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지만 빠른 속도와 난폭 운전은 내가 느끼기에 많이 조심하시지 않는다. 우리나라 택시는 무서울 게 없는 거리의 무법자임은 분명한 것 같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를 이용할 때 더없이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시스템 역시 불편하다. 아기 엄마가 아닐 때에도 가까운 거리를 이용할 때는 쭈뼛거리며 택시를 타야했는데, 아기 엄마가 되니까 가까운 거리여도 택시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 더 어려워졌다. 한번은 아기와 문화센터에 다니는데 그날따라 폭우가 내렸다. 평상시 같으면 걸어 나가서 택시를 잡지만, 아기를 데리고 그럴 수 없어 자주 이용하는 콜택시를 불러 기본요금이 나오는 거리의 마트를 가야한다고 말하니, 기사님이 내릴 때까지 욕을 하였다. 비오는 날이라 거리에 손님도 많았고 그 손님들 태웠으면 멀리 갔을 것인데 괜히 콜을 잡았네, 왜 먼 거리의 다른 동네 마트에 가지 않고 코앞에 마트를 가냐며.. 휴우~ 나도 기본요금 거리를 콜 불러서 요금을 더 드려야지 했는데, 어찌나 욕을 하시던지 한마디도 대꾸하고 싶지 않았다. 비오는 날 애를 안고 타는 사정은 딱 봐도 보이지 않느냐는 말이다. 그래서 기본요금도 인상한 것 아닌가.. 인상된 기본요금을 내고 당당하게 타고 싶다. 제발 좀!!

그리고 얼마 전 뉴스에 보니 모든 대중교통에서 승객 탑승여부와 상관없이 금연을 하도록 되었다고 한다. 정말이지 택시를 탔는데 담배냄새가 가득해서 내릴 때까지 호흡곤란인 적이 있다. 꼭 지켜지길 바란다. 탔는데 담배냄새 난다고 내릴 수도 없고, 어서 빨리 내리기만을 바라며 아주 미칠 노릇이다.

또 한 번은 잘 모르는 곳에 가자고 했더니, 내가 아는 곳도 뱅뱅 돌아서 가는데 택시비가 왕창 나온 적이 있다. 아직도 이런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후진적인 행태라니 부끄럽다.

요즘은 아이 때문에 밤에 출입을 하지 않지만, 밤에 택시를 이용할 때에는 여성 대부분이 안전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택시를 탈 때 기사님 몰래 번호판을 슬쩍 봤다가 부모님께 택시번호를 문자로 남기는 것 참 많이 해봤다. 최근엔 카드를 미리 결제해 승차정보가 지정된 사람에게 전송되는 '택시안심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여성은 드물다. 그 이유로는 홍보의 부족도 있겠지만,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당당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 기사를 의심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있을 것이다. 택시안심서비스가 활발히 이용되려면, 택시 기사 교육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지금의 현금영수증 여부를 당연하게 물어보는 풍토처럼, 여성 승객이 승차 시 기사는 당연하게 택시안심서비스를 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칭찬도 빠지면 섭섭할 것 같다. 얼마 전 또 아이와 함께 택시를 탔는데, 동요를 틀어주시는 기사님이 있었다. 신기해서 동요CD도 있네요 라고 물었더니, 손님에 따라 맞춤 선곡을 하신단다.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셨지만 감동은 크게 다가왔다. 내가 택시를 타면서 느낄 때 택시는 손님이 타고 도착지로 가고 요금만 받으면 되는 단지 운송업일 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그러나 택시는 서비스업이면서 운송업이어야 한다. 왜냐 택시에 실리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주체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를 적어보았는데, 이런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는 정책이 꼭 개발되고 시행되길 바란다.

사례11. 이○○(22세)

예전에 아버지한테 자동차에 대해 배울 때 자동차의 기본은 안전이라고 들었다. 그래서 항상 차를 볼 때면 저 차는 얼마나 안전한지를 따져봤다. 그러나 택시를 볼 때는 안전을 따지기 보단 얼마나 싸고 빨리 달릴 수 있는지를 봤다. 그래서 같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모순된 기준으로 택시를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이것은 택시를 타는 손님에게서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택시를 운전하시는 기사님한테서도 나타난다. 택시를 그렇게 자주 타는 편은 아니지만, 내가 타는 택시의 대부분은 제한 속도를 넘기고 신호를 무시하는 일이 많았다. 마치 이게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다. 바로 어제 일이다. 심야 영화를 보고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12시를 넘은 시간이라 한적했지만 자동차의 속도는 120을 넘고 있었다. 고가도로를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순간 바이킹을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정도로 매우 빨랐다. 그렇지만 기사님께서 아주 당연하게 코너를 도는 부분에서만 속도를 줄이시고 계속해서 속도를 높이셨다. 또 고가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진입을 못하도록 막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기 위해 무시하고 오른쪽으로 갔다. 신호등이 직진 방향이었을 때도 왼쪽으로 꺾는 일을 서슴지 않아 하셨다. 물론 손님의 입장에선 기사님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든 말든 상관이 없을 것이다. 자기가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 대부분 돈이 덜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기사님의 교통법규위반 행위는 기사님과 손님 모두에게 단 몇 초의 시간을 줄이는 기회비용으로 생명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각적인 만족보단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해 걱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 택시를 타면서 종종 느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게 없다는 것이다. 언젠가 기사님께 “유창허니문으로 가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디?”라고 답변하셨다. 잘못들은 줄 알고 “유창허니문이요”라고 다시 말씀드렸더니 “아 유창허니문?”이렇게 말씀하셨다. ‘손님이 왕이다’라는 생각은 없지만 적어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존댓말을 쓰듯이 손님에게 존댓말을 쓰는 건 예의이지 않을까? 그리고 바로 어제 잔돈이 없어서 만 원짜리를 드렸더니 잔돈이 없냐고 물으셨다. 그래서 잔돈이 없으신 줄 알고 카드로 계산할까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잔돈이 있었는데 나중에 잔돈이 없어진면 바꾸러 가기 귀찮으니까 물어보신 거였다. 순간 어안이 병병해서 나도 모르게 표정이 안 좋아졌는데 잔돈을 주시면서도 투덜대시기에 기분이

매우 언짢아졌다. 하지만 역시 잔돈을 던져서 주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것은 없다.

그러나 좋은 기사님도 계신다.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님이 있다. 그 분은 나를 결혼 적령기의 여자라고 오해하시고 좋은 남편감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우선 키 작은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하셨다. 키 작은 남자는 뭐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투리라 잘 이해 못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의 남편을 만나지 말라고 하셨다. 그 이유는 나중에 바람을 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신 것 같았다. 아무튼 그 말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닐지라도 좋은 의도로써 그런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히 생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좋은 택시 기사님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에는 안 좋게 남은 기사님이 많다는 것이 안타깝다. 기사님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잘못으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

우리도 무조건적인 빠름보다는 안전한 빠름을 원해야 하고, 기사님도 손님이 빨리 가달라고 하는 말을 신호까지 위반하라는 말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택시 기사님이 피로와 스트레스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가 잘 안 되면 기사님과 손님 모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택시를 탄 날보다 앞으로 탈 날이 더 많이 남아있는데 이왕 타는 거 기분 좋은 택시를 타고 싶다. 택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사례12. 윤○○(24세)

1. 늦잠을 자서 학교에 가려고 택시를 탔다. 그런데 갑자기 택시 기사 아저씨께서 시외버스 요금을 물어보시면서 스마트 폰으로 찾아 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셨다. 처음에는 아무 의심 없이 찾아봐 드렸다. 그런데 찾아보고 있는 중에 학교에 도착해 버렸다. 그래서 아직 못 찾았다고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면서 택시에서 내리려 하였다. 친절하시던 기사 아저씨께서 갑자기 무섭게 돌변하시며 시외버스 요금을 알아보고 알려달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셨다. 그러고는 내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시면서 알려줘야 한다고 강요하며 말씀하셨다. 그 때는 알려드리지 않으면 택시에서 안내려주실 것 같은 분위기여서 너무 무서운 마음에 드리기 싫었지만 기사 아저씨가 혹시나 나쁜 행동할까봐 무섭고 학교에 못갈 것 같아서 핸드폰 번호를 드리고 내렸다. 다음에도 연락이 올까봐 무서워서 택시에서 내린 후에 번호를 차단해 버렸다.

그리고 스마트 폰으로 아저씨가 알아보달라고 부탁하신 것을 검색하는데 갑자기 기사 아저씨가 오빠라고 불러보라며 하는 것이었다.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쁘고 수치스러워 성희롱처럼 느껴졌다. 택시에서 빨리 내리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내가 어려서 이렇게 행동하시나 하는 생각에 기분 나쁘고 어떻게 처신 하는 것이 맞을지 몰라서 고민 됐다.

2. 학교 가는 길에 택시를 탔다. 택시 기사 아저씨가 항상 학교 가는 길이 아닌 멀리 돌아가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원래 길을 알려드리면서 빠른 길로 가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택시 기사 아저씨께서는 다른 길이 빠르다고 하시면서 내 말을 무시하셨다. 그러더니 그 길이 신호도 많이 걸리고 더 차가 막혀서 택시 요금이 훨씬 많이 나오고 학교 수업에도 늦어서 교수님께 점수도 감점되고 내 기분도 너무 나쁘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 짜증났다.

3. 택시를 타고 가는 중에 다른 차가 내가 타고 있는 택시 앞에 끼어들기를 하였다. 그러자 택시 기사 아저씨가 그걸 보고는 내가 뒤에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심한 욕을 하시면서 끼어들기 한 차를 쫓아가려고 하고 그 차를 따라서 무섭게 운전 하셔서 내가 어찌 할 바를 모르고 겁이 났다.

4. 택시에 타자마자 택시 안에서는 담배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그 담배 냄새가 너무 불쾌했지만 이미 타버렸기 때문에 참고 출발하였다.

그러던 중 갑자기 택시 기사 아저씨의 핸드폰 벨이 울렸다. 그러자 택시 기사 아저씨가 핸드폰을 한 손으로 받아서 운전하셨다. 블루투스를 이용하거나 이어폰을 이용하여 운전이 지장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으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불안했다. 거기다가 아저씨가 통화하시느라 운전이 집중도 안하셔서 느리게 가셔서 신호도 계속 놓치고 다른 차들이 뒤에서 뱅뱅 거려서 괜히 내가 민망했다. 뒤에 손님이 타있는 것을 까먹은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의 통화엔 집중하시고 자신의 업무인 운전하시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아서 불쾌했다. 사실 운전은 목숨과도 연관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보다 안전을 중시하고 뒤에 승객에게 책임을 다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운전 중에 급한 전화가 온다면 운전이 지장 없이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있다가 전화하겠다고 말하고 끊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5. 택시를 타고 집을 향해 가는데 기사 아저씨께서 나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갑자기 합석을 시킨 적이 있었다. 아니면 꼭 다른 승객을 이미 태운 후에 나에게 양해를 구한다는 식으로 물어보실 때가 있다. 이미 승객은 타 있는데 내가 거절하는 것은 상황이 우습게 돼서 싫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을 만든 적이 있었다. 미리 정중하게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충분히 서로 이해하고 기분이 나쁘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처럼 행동하실 때면 어쩔 수 없이 허락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다.

길을 일부러 돌아가신 다거나, 아니면 기사 아저씨가 내가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놓는 경우, 과속하신다거나 다른 차에 피해를 주면서 끼어들기를 하셔서 뒤에 타있는 승객이 무서움을 느끼게 하시는 경우, 약간의 수치스러운 말로 성희롱을 당하는 것 같은 말을 비꼬아서 하시는 경우, 사실 요즘은 택시를 타고 무서운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길로 갈 때의 공포감 등등 여자가 혼자서 택시에 탈 때에는 참 무서운 경우가 많고 불쾌하고 언짢은 일이 많다. 아무리 택시 번호를 외워서 타고 서로 주의를 한다고 해도 택시를 이용하기 싫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사례13. 박○○(23세)

불경기 속에서 택시 운전기사들은 부담스러운 택시비로 인해 탑승자들이 줄어들면서 한 푼이라 더 벌기 위해 신호와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는 택시들이 급증하였다. 또한 가까운 거리는 돈이 안 된다며 거기 안가니깐 내리라고 하시는 분들도 등장하게 되었다. 아니면 먼 곳으로 이동하는 사람을 따로 찾아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발생하게 되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바쁜 일이 있거나 늦으면 바로 택시를 타고 약속장소로 이동하였으나 요즘은 아무리 약속에 늦거나 가까운 거리, 상당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택시를 타기에는 너무 비싸 아직 대학생으로 써는 탈 영두를 잘 내지 못한다.

가끔 택시를 탈 상황이 되면 택시기사 아저씨들이나 아줌마들은 요즘 대학생들이 참 안쓰럽다며 위로의 말을 하시거나 자신의 과거를 말씀하시면서 이 힘든 것도 지금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감정들이라며 열심히 노력을 하면 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될 것이라고 위로를 해주신다. 정말 부모님 같은 분들의 말씀이라 더 귀담게 되고 그들의 과거를 통해 자신감도 얻을 때도 있다. 또한 아직 어린 학생이라며 택시비를 덜 받으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며 가까운 거리는 기본 요금만 받으시는 분들도 있다.

친구들과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지역의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택시를 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어떠한 날은 너무 빠른 속도로 인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창문에 머리를 박을 때도 있고 속이 울렁거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허나 안전속도와 친절, 따뜻한 격려가 함께 이루어지는 택시들이 있어 편안한 이동과 손님에게 먼저 말해주고 진심어른 충고들로 택시 안에서 많은 배움을 받는다.

지금까지 택시를 타면서 가장 기억 남는 일이 두 가지 있다. 가장 불쾌한 일과 감사한 일이 있다.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기 때문에 집에 올라가서 반찬을 가져오면 택시 아저씨들이 반찬가지고 타면 안 된다며 훈육을 하시거나 빨리 트렁크에 넣으라고 욕박지르시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김치를 가져가는 날은 마치 내가 죄인이 된 것처럼 느껴져 아무리 집이 많아도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치 냄새가 심해서 택시 기사 분들께서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는 알지만 화를 내지 않았으면 한다. 한국 사람은 김치 없이는 밥을 먹기 힘들다는 것을 아시는 한국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많은 터미널에서 창문 너머로 반찬이면 트렁크에 넣어 달라고 욕박지르는 것은 너무했다. 마치 오염물질

은 자신의 택시에 가지고 탈 수 없다는 듯이 말하여 기분이 확 상했다. 그 날 이후 엄마가 담그신 김치를 자취방에 가져오는 일이 없어졌다. 또한 냄새가 나지 않는 반찬을 집으로 가져 올 때도 그 욕박지르는 것을 듣기 싫어 버스를 타는 경우가 부쩍 늘어났다.

친구와 타 지역으로 둘이 여행을 간적이 있었는데 그 곳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설명된 책자나 음식점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답답하고 절망감을 느끼며 침울한 순간이 있었다. 이곳으로 여행을 온 우리들이 잘못했다고 자책까지 하였다. 이 침울한 순간 2시간이 넘게 걸리는 도로 위를 걸어가며 택시를 잡았다. 이 택시 기사 분은 여자 둘이서 위험한 곳을 걸어다니냐고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다며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걱정해주셨다. 그리고 직접 여기가 이 동네서 맛있는 맛집이고 어디에 내려서 몇 번을 환승하면 버스 터미널로 간다고 친절하게 알려주셨다. 또한 학생들이라고 택시비도 반절만 받으셨다. 여행객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기사분의 모습을 보고 이러한 분들이 더 많이 계셨으면 한다. 이러한 아저씨 덕분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편안하게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 택시를 탈 때마다 고마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불쾌한 경우들이 있다. 아직은 불친절한 택시기사보다 친절한 기사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택시는 우리의 편리한 이동수단이자 택시 기사 분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며 부모와 같기 때문이다.

사례14. 김○○(24세)

늦은 밤 저는 혼자 택시에 탔습니다.

현금이 없던 저는 일부러 “카드택시”라고 적혀있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카드 계산을 하겠다고 기사 아저씨께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택시에 카드택시라고 적혀 있어서 당연히 된다 생각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카드를 들고 앉아서 ‘이 카드로 계산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착하기 10분 전 택시 기사 아저씨께서 카드 기계를 끄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목적지 도착 후, 카드로 계산하겠다고 기사 아저씨께 이야기하자 카드기계를 꺼버려서 다시 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현금 없냐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다행히 조금 현금이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카드택시라고 적혀있는데 일부러 카드기계를 꺼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카드택시를 탈 때는 “카드로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탑니다. 이상하게 카드로 계산한다고 할 때 마다 손님이 미안한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들과의 술자리 약속이 구시청에서 있어서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기사분이 2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 분이었습니다. 팔에 문신도 하고 있고 클럽에서 나올법한 노래를 들으면서 운전하고 계셔서 한편으로는 무서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기사 분은 “구시청은 왜 가느냐?”, “술 마시니 좋겠다.”, “부럽다.”, “몇 살이니?”, “어디 대학교 다니느냐”, “무슨 과니?”, “남자친구 있느냐?” 등등 자꾸 사생활을 물어보셔서 대답을 안 하기도 애매하고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처음엔 좋게 대답했는데, 점점 사생활을 물어보시니 그냥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분이 자꾸 무전기로 다른 기사 분과 욕을 하시면서 대화하셔서 무서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물론 제 욕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화를 하실 때 욕을 섞어가면서 이야기 하시고 하니 뒤에 앉아 있는 저는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빨리 내리고 싶은 마음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까운 거리를 가려고 할 때, 택시에 탈 때면 저도 모르게 괜히 죄송해지고 민망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택시 기사 아저씨께서 가까운 거리 간다고 한 소리 하시면서 가는 내내 궁시령 궁시령 혼잣말을 하실 때가 많아요. 특히 뭐 이렇게 가는 것은 돈도 안되네..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실 때에는 괜히 택시를 잡기도 민망하고 타서 목적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죄송하답니다. 사실 제가 제 돈 주고 타는 것인데도 죄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또 가끔은 목적지를 말하면 거

기는 안 간다고 하시면서 승차거부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지금은 승차거부를 못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이런 경우는 드물어 졌지만 승차거부 하 실 때면 기분이 나쁩니다.

네 번째, 롯데마트 앞에서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저는 택시가 길게 줄서있는 것을 모르고 반대편에서 택시가 유턴해서 오길래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랬더니 택시 승강장에서 맨 앞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 기사 아저씨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며 제가 타고 있던 택시를 막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타고 있던 택시 기사 아저씨는 어이가 없었고, 화를 내시던 택시 기사 아저씨는 줄 서 있었는데 그 줄을 무시하고 태웠다고 하시면서 기분 나빠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승객의 입장에서 내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약속시간에도 늦었는데 이러니 그냥 가겠다고 죄송하다고 간 적이 있습니다. 롯데마트 주변에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면서 싸우니 민망하고 기분도 언짢았습니다.

다섯 번째, 어느 날 택시에 탔는데 여자 분이 기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사 분께서 밤에 운전할 때 술이 취한 남자 승객들이 타시면 성희롱 적인 발언을 많이 하신다고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돈을 더 준다고 모텔에 가자고 하신다거나 술이 취한 척 하시면서 몸을 쓰다듬으시거나,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여자 분이 택시 기사하신다는 이유로 술이 취한 승객들에게 성희롱 적인 말로써 수치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자라는 이유로도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행동하실 때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정확하게 교육되거나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성희롱 하시는 말을 서슴없이 하신다거나,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대로 길을 돌아가거나 하시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승객에게 물어보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없었으면 합니다.

사례15. 윤○○(19세)

택시 불편한 점들

1. 예전에 학교 가는 날인데 늦잠을 잤다. 친언니가 콜택시를 불러 줬다. 그런데 콜택시가 생각보다 너무 늦게 오고 가까운 길이 있는데도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호가 많이 걸리고 더 오래 기다리는 먼 길로 돌아서 갔다. 차마 택시 기사 아저씨께 왜 먼 길로 가시냐고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택시비도 많이 나오고 '내가 여자고 어려서 이러나?' 라는 생각에 기분이 나빴다. 결국 학교 수업 1교시가 끝나고 도착하여 선생님께도 혼이 나고 청소를 하였다.

2. 친구들과끼리 뮤지컬 관람을 하고 택시타고 집으로 가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께서 계속 말을 걸으셨다. 말 걸어주시고 하는 건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 주시려고 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과하게 "어디 학교 다니냐?" "뭐하고 왔냐?" 등등 사적인 질문들을 엄청 하셨다. 나보다 훨씬 어른이셔서 말을 무시할 수는 없고 해서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아저씨께서 더 이상 말을 못 걸게 친구들이랑 틈을 주지 않고 말을 멈추지 않았다. 택시를 내리고 나서 친구들과 나는 택시 아저씨 부담스럽지 않았냐는 등등의 불만을 토로 하면서 집을 갔던 기억이 있다. 친절하게 말씀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사적인 질문들이 많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들이 종종 있다.

3. 눈이 와서 길이 퐁퐁 얼어있던 겨울 나는 엄마와 언니와 함께 외할머니 댁에 다녀왔다. 돌아 올 때 택시를 이용하였다.

겨울이라서 길도 미끄러운데 택시들은 신경 쓰지 않고 차들 사이로 끼어들고 신호위반하고 속력을 내면서 가는 택시들은 많이 봤다. 역시나 우리 택시도 마찬가지였다. 아저씨께 말은 못하고 무서워서 옆에 손잡이를 꼭 잡고 가고 있었다. 그 때 우리가 타고 있던 택시가 얼음에 미끄러져 길에서 한 바퀴를 돌았었다. 진짜 나는 택시가 도는 순간 이렇게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웠던 기억이 있다. 택시 아저씨들이 신호 위반은 물론 속력도 지키지 않고 무법자처럼 다니는 것은 택시를 타고 싶지도 않게 만들 뿐만 아니라 택시를 타더라도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무서울 때가 많다.

4. 요즘 택시들은 차 내부나 외부를 화려하고 개성 넘치게 하고 다니는 차들이 많다. 물론 택시를 꾸며 놓으면서 타고 다니는 승객들도 기분이 좋고 즐거울 수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친구들과 함께 놀러가려고 택시를 탔다. 그 차에는

젊은 택시기사 아저씨인데다가 차 내부가 노래방 형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물론 처음 택시를 탔을 때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아기자기 잘 꾸며져 있어 기분은 좋았다. 그런데 택시기사 아저씨께서 우리들에게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하셨다. 우리는 노래를 부르기 싫었지만 아저씨께서 자꾸 부촉이셔서 참 난처했다.

결국은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노래를 한 곡 하기는 했지만 자꾸 부촉이는 것은 참 언짢았다. 물론 승객이 먼저 하고 싶어서 자처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노래를 하라고 부촉이는 행동은 많이 불편하고 안했으면 좋겠다.

나는 고등학생이고 여자다 보니 한 번씩 어리고 약한 사람이라고 기사 아저씨께서 막대하시거나 길을 돌아가시거나 하실 때는 기분이 나쁘다. 물론 아저씨께 항의하고 싶지만, 보복이 올까 두렵기도 하고 괜히 나쁜 소리했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참고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일부러 개인 택시들 보다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운전자의 신분이 명확한 회사에서 운영하는 택시를 타려고 노력한다. '내가 만약 나이가 많거나 남자였다면 이렇게 행동하실 수 있을 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럴 때는 여자로 태어난 것이 참 싫다.

사례16. 최○○(40세)

택시를 이용하면서 난, 이럴 때 정말 불쾌했다!

택시는 급한 용무가 있을 때 사실 부득이하게 이용하게 되는 교통수단이다. 나로서는 요금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탈 때마다 약간은 긴장하는 나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탈 때 인사를 크게 하고 들어간다. 일부러... 그것도 나만의 전략이기도 하다. 나 물렁물렁한 사람 아니거든... 하면서 말이다.

택시를 이용하면서 불쾌했던 경험은 우선

호칭에 대한 문제이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택시기사가 내내 아줌마, 아줌마,,,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데 생각보다 불쾌했다. 물론 내가 아줌마인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을 보고 아줌마라고 판단하는 지,,, 그리고 ‘아줌마’라고 부르는 뉘앙스는 그다지 존중받는 느낌이 아니었다. 존중까지는 아니더라도 웬지 다 같은 손님으로 보는 것 같지 않았다. ‘손님’이라는 표현을 쓰면 좋을 텐데 그 택시기사는 말 끝마다 아줌마, 아줌마 해서 아주 불쾌했었다. 지금 같았으면 ‘손님이라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그 때는 왜 바보처럼 기분 나쁜 말을 듣고만 있었는 지 속상하다.

아저씨니 아줌마니 하는 말보다 다 같은 손님이니 중성적인 표현으로 ‘손님’이라는 호칭을 꼭 써줬으면 좋겠다.

둘째, 택시는 아주 좁은 공간에 기사와 손님인 내가 단둘이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은 데 택시기사에 대한 인상 등을 살피면서 나에게 혹시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긴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난 별 말 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는 게 좋은 데 가끔 말을 걸고 뭔가 자신의 의견이나 가십거리들을 말하는 기사들이 있다. 한 번은 성적인 말을 하면서 나에게 동의를 구하는? 안 그러냐며... 응큼하게 물어보는 기사도 있었다. 완전 밥맛이었지만 기사를 기분 나쁘게 하면 혹시 내가 위험해질까 봐 아; 예~ 하면서 듣는 척을 억지로 하기도 한다. 이때만은 정말 내가 고객인데도 불구하고 한없이 약한 자가 된다.

택시기사님들이 하루 종일 일하면서 라디오를 친구삼아 듣기만 하니 뭔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가려서 좀 했으면 좋겠다. 능구렁이처럼 성적인 말을 돌려서 이야기하는 그런 택시기사 나빠요...

셋째, 가까운 거리를 갈 때도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기도 한다. 짐이 많다거나 빨리 시간에 맞춰야 한다거나 ...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택시를 타는 데 가까운 거리를 가자고 할 때 기분 나쁜 티를 내는 택시기사들이 있었다.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를 타는 데 가깝던 멀든 손님 입장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택시 안에서 눈치보며 요금내고 택시를 이용한다는 게 정말 화 난다. 근데 거기다 대고 항의하지도 못했던 나도 속터지지만 말이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덜하지만 예전에는 미리 타기전에 어디갈거라고 미리 허락(?)을 구하고 택시를 탔던 경험이 있다. 어쩔 때는 그런 불편한 기색을 마주하는 게 싫어 탈까 말까 고민하다가 걸어서 가기도 한 기억이 있다.

특히, 터미널이나 이런 데서 시외를 외치며 호객하는 기사님들은 꺾렁꺾렁 건달 같다.

나는 택시가 우리 광주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데 정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대중교통수단이 아니어서 지원도 부족하고 근로여건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고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이지만 그와 함께 문화를 선도하는 이공이가 되었으면 한다. 외지에서 광주를 처음 방문하게 될 때 첫 대면자가 어찌면 많은 택시기사님들일 것이다. 좋은 문화와 인상을 남기면 두고 두고 광주를 기억할 것이다. 나 또한 좋은 기사님을 만나게 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절로 감사합니다~ 인사가 나오게 되는 것 같다.

택시기사님들 힘드시지만 책임감을 갖고 좋은 문화 선봉자가 될 수 있게 우리 서로 노력해요!

사례17. 오○○(47세)

얼마 전 서울에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서 택시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하루 동안에 좋은 예와 싫은 예를 동시에 체험 하게 되어 몇 자 적어본다. 우선 아침에 이용한 택시의 예다.

새벽 5시 20분 출발하는 버스를 타야 해서 집에서 4시 40분경 부름택시를 이용하여 버스터미널에 가야 되는데 새벽에 택시를 이용할 때는 불안감이 더 있는데 부름으로 택시를 타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는 듯하여 평소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새벽에 택시를 여러 번 이용 했지만 이번에는 택시에 타자마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주위를 살펴보니 택시 안에서 나오는 상쾌한 향과 청결함, 그리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동시에 친절하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택시 기사님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터미널에 도착 했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을 할 수 있었다.

택시를 이용하면서 몇 번 안 되는 기분 좋은 느낌이랄까~~

서울에서 일정을 마치고 남편과 함께 송정역에서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 인사를 하면서 타는데도 기사님의 무시에 적잖이 당황스러웠으며 나도 모르게 오전의 기사님과 비교가 되었다.

운전도 거칠게 하시는데 순간 멀미가 날 정도로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면서 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 옆 차선의 기사님과 경적을 울리면서 싸움이 시작되는데 마구잡이 욕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차마 듣기에 민망할 정도 심한 욕설 이었는데 한번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욕을 해 남편이

“기사님 손님이 타고 있으니 그만 하라”

고 하는데 순간 다름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사님의 태도가 무서웠다.

기사님이 욕설은 멈췄지만 집까지 도착하는 동안 내내 맘이 편치 않은 경험이었다. 택시에서 내린 후 남편이 일부러 욕을 심하게 하는 기사님들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자 혼자 탔을 경우에는 더 한다는 것이다.

순간 나도 혼자 탔을 경우를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늦은 시간 택시를 타게 되면 꼭 집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면서 가는데 택시를 타기 전 집에 전화를 해서 몇 분 후 나한테 전화를 걸도록 미리 정한 후 택시를 탄다.

늦을 시간 택시를 이용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보도되는 것은 다른 범죄하고는 느낌이 사뭇 다르다.

폐쇄적인 공간이고, 달리고 있는 차라 내가 대응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 더 두려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우리나라 회사택시, 개인 택시를 운영하는 주체는 고객응대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라는 맘이다.

사례18. 김○○(35세)

택시이용중 경험한 나쁜사례 :

전 현재 자가용이 없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버스도 많이 이용하고 바쁘거나 늦은 저녁엔 택시를 많이 이용하지요. 아무래도 먼 거리는 버스를 주로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택시를 타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택시기사 분들은 가까운 거리를 갈때면 왜 이리 거칠고 무서워 지는 걸까요? 그리고 저에겐 어린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면 콜택시를 많이 이용하게 되죠. 그런데 가까운 거리를 가게되면 일단 목적지를 말하기 전부터 주눅이 들게 됩니다. 택시를 타자마자 친절히 인사를 하셨던 기사분이 목적지를 말하고 나니 험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출발하는 상황을 여러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땐 아이를 업고 나와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를 탄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 단지가 크편이고 제일 안쪽에 있는 터라 한번 나가려면 힘이 드는데도 기사분에 냉랭한 모습이 불편해서 그런적이 꽤나 된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탔는데 차안에서 담배 찌든 냄새와 언제 씻었는지 알수 없는 기사아저씨에 쾌쾌한 냄새들... 정말 서비스직중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쩔 이리 다니실 수 있는지 택시라는 좁은 공간에 손님을 응대 하면서 자기 관리라는걸 진정 모르시는것 같아 “아! 그래서 택시기사란 직업을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무시 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들더군요.

그리고 이런 일도 겪었습니다. 목적지를 말했더니 기사아저씨가 모르는것 같아서 그럼 네비게이션을 켜세요... 했더니 이거 켜면 더 오래 걸린다면서 알아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대략에 위치를 보여 드렸더니 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더니 목적지 근방에 도착해 모르겠다며 뱅뱅 돌더니 우리보고 찾아보라는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지요. 어찌됐든 급하니 주위사람에게 전화해 물어 물어 찾아 갔는데 도착해서 택시비를 그대로 받는 겁니다. 택시기사의 본분을 잊고 행동한 것도 화가 나는데 길을 몰라 헤매다 택시비가 배로 나왔는데도 미안하던 사과도 없이 뻔뻔하게 나온 요금을 다 받아 챙기는 그 아저씨를 보고 어찌나 화가 나던지... 다시는 그런 기사분 안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택시 이용 중 좋은사례 :

아무래도 낮보단 저녁에 택시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저녁이라 그리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땐 안전이 더욱더 중시되는 상황이죠. 기사분들 마다 운전 하는 방식들이 다 틀리고 하겠지만 어떤 분은 아이가 있건 없건 마구 운전을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유독 아이를 생각해 조심히 운전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나와 아이를 존중해 주는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밤이라 집앞에서 내리면 현관입구에 들어 갈때까지 내린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기다려 주는 배려까지...그런게 진정

서비스정신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웃고 맞아 주시는 택시 기사분들 보면 그날에 기분까지 좋아 진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먼거리를 가든 가까운 거리를 가든 웃으며 맞아 주셨으면 합니다. 어쩔 땐 진짜 택시 타면서도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기분이라고나 할까? 집에까지 오면서도 무슨 정신으로 왔는지 모를 정도로 불편함을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분들 이것도 하나에 서비스업입니다.

제발 자다 일어나 세수도 안하고 나온 사람처럼 모자 꼭 눌러쓰고 냄새 풀풀~풍기면서 다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쩔땐 냄새가 심해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려 도중에 내리고 싶을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존중 받고 싶으면 남도 존중하고 배려할줄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례19.

택시기사에게도 젠더감수성이 필요해~

오○○(북구 용봉동 거주)

몇 년 전 대전으로 출장을 다녀오다 택시를 탔을 때의 오싹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 내리니 밤 9시가 지나가고 있었다. 밀린 일을 처리를 하기 위해 사무실로 가는 택시를 타러 승강장으로 갔다.

택시승강장은 택시를 타려는 사람과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로 만원이었다. 순서가 되면 하나씩 택시승강장을 빠져나갔다. 나도 순서가 되어 탔다. 밤이어서인지 택시 안은 많이 어두웠다. 매일 자가운전으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 약간 어두운 것이 낯설지는 않았다. 뒷자리를 앉은 나에게 택시기사아저씨는 백미러를 통해 반가운 인사를 했다. 나도 인사를 하고 서구청부근에서 내려달라고 했다.

그때만 해도 서구청이 새로 신축하기 전이어서 그 시간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주차장이며 어두운 거리... 지금의 서구청 앞 전경과는 사뭇 달랐다.

아저씨는 백미러를 통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떻게 내려왔소?” 친근한 전라도 사투리로 말을 붙였다. 내가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타다보니 외지인이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었다.

“대전 출장다녀오는 길이에요. 일이 남아서 사무실가려구요....”

“이 시간에 아가씨가 겁 없이 다니네”

하면서 백미러를 통해 뭐라 표현하기 힘든 불편한 눈빛을 보내며 웃고 있는 모습으로 내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순간 멍칠했다.

“뭐지?”

머리가 쭈뼛 서고 몸에 소름이 돋는 듯 느낌이 엄습해왔다.

당장이라도 내리고 싶은 맘이 굴뚝같았다. 그 말조차도 나오지가 않았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았다. 빨리 사무실 앞에 도착하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말을 잇지는 못하고 경직된 얼굴을 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다.

그 이후에도 아저씨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집은 어디냐?’ 하는 말이 계속되었고 틈틈이 백미러를 통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애써 시선을 외면하며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했다.

그런데 사무실 앞에 도착하니 그날따라 거리는 더 캄캄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사무실건물도 불빛하나가 없었다. 지금이야 새로 지은 서구청사에 거리에는 카페도 많고 거리도 밝아졌지만 그 당시는 밤 시간에 혼자 거리에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생각을 해 보니, 그날 택시기사는 여성승객이 편안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말을 걸었을 수 있고 그리고 별 생각 없이 백미러를 통해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는 시선을 보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택시 안에 있던 여성승객인 나의 입장에서는 어두운 택시 안, 불필요하게 계속 말을 거는 택시기사 아저씨, 그 좁은 공간에서 백미러를 통해 보내는 택시기사아저씨의 시선.... 분명 택시기사아저씨와 승객은 정반대의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택시기사님은 여성승객을 대하는 젠더감수성의 부족해서 생긴 경우도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우리가 여성친화적인 도시는 여성들이 심야시간에 맘 놓고 택시를 탈 수 있어야 하고 심야시간에 거리를 거닐고, 안전한 도시공간권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두운 택시안의 문제, 택시기사들에게 젠더감수성 교육, 어두운 밤거리 조도개선을 통해 여성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이처럼 된다면 내 삶에서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던 그때의 그 10분이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강하게 내 기억 속에 각인되어 밤 시간에는 택시를 타지 않는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사례20. 손○○(30대)

1. 10년 전 대학시절...이사를 하려고 빈 상자를 들고 택시를 탔었습니다. 기본요금 1,500원 하던 시절... 목적지까지 택시요금 1,800원이 나왔는데 기사님께서 상자를 들고 탄 학생의 모습이 불쌍해 보이셨는지 300원 깎아주셨습니다. ㅋㅋ
2. 목적지가 가까운 즉, 기본요금이 나오는 거리를 요청하면 거부하시거나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이며 그 중에서도 버스와 달리 승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하지만 기본요금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해서는 안 됩니다. 먼 거리를 간다고 대접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승객도 기본요금 거리를 갈 때는 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3. 택시 타고 기사님께 인사드렸더니... 기사님께서 이런 손님은 꼭 성공할 사람이라고 폭풍 칭찬을 해주시고 이름, 나이, 인적사항을 수첩에 적으시면서 미터기를 안 누르신 나머지 돈을 적게 받으신 기억이 있었음.
4. 요즘도 택시에서 담배 냄새가 날 때가 있음... 정말 불쾌한데.. 말은 못하고.. 내릴 때 까지 창문 가까이 얼굴 돌리고 속으로 택시탄거 후회함.
5. 택시 기사님들에 대한 성의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사회적 범죄들 속에서 택시 탑승 시, 특히 늦은 시간에는 여성 탑승자들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택시 기사님들의 성적인 농담이나 성에 대한 언급은 불쾌감과 불안감을 넘어 두려움마저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것 중, 택시 기사님이 자신의 딸의 일탈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딸의 성 문란함을 계속해서 깊이 이야기하시고 여성이 문제라며 여성 비하적인 말씀을 계속하시며 백미러를 통해 자꾸 쳐다보셨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화제를 바꿔보기도 하고, 불편함을 조심스레 이야기해보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으시며 계속 말씀하셔서 결국에는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 하차하였습니다. 성희롱을 당했다는 느낌과 여성 비하적 언어에 심히 불쾌감을 느꼈으며 택시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늦은 시간 택시를 탈 경우에는 일부러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하였습니다. 택시 기사님들에 의한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성인식과 무지함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고마운 택시 기사님들도 많지만 몇몇 분들로 인해 택시 기사님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기사님들에 대한 성인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6. 택시라는 공간은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서의 작은 소음은 승객에게는 큰 소음으로 다가옵니다. 간혹 스피커폰을 켜시고 지인 분들과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시고 욕설도 하십니다. 작은 대화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승객이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너무 긴 통화나 욕설, 괴성은 불쾌감을 준다는 것을 알고 정정해주셨으면 합니다.

7. 택시에서 기사님과의 소소한 일상에 대한 대화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는 택시 기사님들의 지루한 일과에 도움이 되며 승객에게도 좋은 말씀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정치적 견해 또는 종교적 강요 등은 불편함을 줍니다. 정치적 견해는 개개인마다 선호하는 정당·인물 등 다르며 심지어는 관심의 정도가 다른데 과도하게 어필하시거나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 역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또는 무신교로 매우 다양한데 특정 종교를 언급하시며 믿음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간혹 무서움마저 집니다.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 이야기 보다는 좋은 말씀이나 오히려 인생선배로써의 덕담 및 조언 등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8. 요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 들어 잔돈을 거슬러주지 않으려는 기사님들이 있습니다. 한번은 잔돈을 받으려 기다리는데 “그걸 받으려합니까”라며 돈을 던져주듯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몇 개는 택시 뒷자리 바닥으로 떨어지고 너무 민망하고 화가나 줍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동한 만큼 돈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받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처럼 거슬러 주지 않으려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례21. 윤○○(35)

지금은 자가용이 있어 택시를 탈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월급의 30%이상을 차지할 때도 있을 정도로 택시를 많이 이용하였다. 많게는 하루에 4~5번을 탄 적도 있다. 더운 날씨나 추운 날씨 그리고 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이나 상황에서 정말 유용하게 이용되는 것이 택시이기 때문이다. 이만큼 많은 도움을 주는 택시이지만 좋고 고마운 이미지보다는 택시를 타기 전에 불쾌한 마음을 걱정하며 타게 되는 것이 택시인 것 같다.

그 불쾌했던 사건을 몇 가지 이야기 해보면...

몇 년 전 임신초기에 유산이 조금 우려되는 시기에 갑자기 택시를 타게 됐다. 유난히 골목으로만 가고 과속방지턱을 속도도 줄이지 않고 넘어 다니고 급출발 급정지는 습관처럼 하는 택시를 탔던 기억이 난다. 임신부이며 조금 조심해줬으면 좋겠다고 친절히 말씀 드렸지만 내말에 대꾸조차도 하지 않았으며 운전도 변함없이 난폭하게 하였다.

작년 병원 가는 길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택시를 탔는데 그전에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웠는지 차안에 담배 냄새가 가득했다. 아이가 아파 병원 가는 길인데 담배냄새가 가득한 택시를 이용하게 된 것이다. 이 상황에 대해 화를 낼 수도 없고 굉장히 불쾌하고 속상했던 경험이 있다.

택시를 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타고 원하는 곳에서 내리고 싶은 것도 있다. 하지만 유턴하기 귀찮다고 다른 손님이 바로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사님이 편한 곳에 내려주면 택시비는 택시비대로 내고 더운 날 혹은 추운 날 고생하며 또 다시 걷게 된다.

걸어가자니 멀고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곳에서 마침 옆을 지나가는 택시를 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때마다 고민하게 되는 게 있다. ‘가까운 거리인데 걸어가자~’ 라며 통명스럽게 한마디 한 후 침묵이 흐르면 미안하기도 하면서 슬슬 화가 나기도 한다. 가까운 거리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내는 건데 뭐가 저리 불만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 일을 몇 번 겪은 후에는 가까운 곳을 갈 때는 택시를 타면서 한마디를 하게 된다. ‘가까운 곳인데 죄송해요~’ 라며 멋쩍게 웃어 보이면 ‘가까운 거리라도 많이만 타면 좋겠네요.’ 라며 웃어 보이는 기사님들도 분명 있다. 그리고 난 택시를 탈 때 내가 갖고 있는 과일이나 군것질 거리를 꼭 택시기사님께 꼭 나눠드린다. 단, 불친절한 기사님은 절대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군것질거리를 나눠 드릴 때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지만 대부분 굉장히 좋아하시며 이동하는 내내 기분 좋은 대화를 많이 하게 된다.

이런걸 보면 좋은 택시기사님들이 훨씬 많을 텐데 몇몇 분들 때문에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친절히 일하시는 택시기사님들을 우리가 같이 욕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현재 택시기사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필수 교육시간을 주는 것은 어떨지 고민을 해본다. 택시도 분명 여러 사람을 대하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언젠가 TV에서 봤던 ‘친절과 안전’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일본의 MK택시가 생각난다.

MK서비스의 기본은 모든 서비스를 손님의 비위에 맞춰라.

MK 택시기사의 4가지 친절의 의무가 있다.

첫째, Welcome : MK택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행선지 복창 : 00역으로 가시는 것이 맞습니까?

셋째, 기사소개 : 오늘 기사는 000 입니다.

넷째, 고객안전 : 감사합니다. 잊으신 물건은 없습니까?

이상 4가지 친절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차비를 내지 않아도 좋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

MK택시 유태식 회장의 말을 인용하자면, “파일럿과 택시 기사의 책임과 임무는 똑같다. 비행기를 타는 손님만 존경 받는 것이 아니라 택시 타는 손님 역시 똑같이 인명수송의 위대한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왜 택시 기사들이 파일럿보다 사회적 존경을 덜 받는 것인가? 그것은 당신들이 친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 처럼 친절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꾸준히 친절 교육을 실천하면 택시 기사들의 사회적 지위는 파일럿을 능가할 것이다.”

맞는 말이다. 이걸 친절이 몸에 베인 일본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일까? 우리나라는 ‘나중에 할 것 없으면 택시운전이라도 하지~’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택시운전에 대한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다. 하지만 교육하고 노력한다면 우리도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이 많은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택시기사님들은 매일 회사에 내야하는 사납금 맞추기도 힘겹다고 한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 친절을 강요한다는 것은 정말 잔인한 것 같다. 사납금에 허덕이지 않고 친절하게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과 변화가 필요하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택시기사님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하고 직업에 대해 좀 더 보장해준다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함을 보여주지 않을까?

사례22. 이○○(38세)

1. 여자 혼자 댕 다고

아무런 양해없이 담배를 핀다.

콜록콜록 해도 문 열면 그만이신 분.

손님이 댕으면 끄는게 당연한것이 아닌가.

2. 운전 중 통화하기.

운전할 때 위험한 일이다.

전화가 오면 다음에 건다고 끊어야지. 온갖 사담을 다 이야기 한다.

심지어 전화를 건다. 뒤에서 불안하게 타고 가게 된다.

이럴 땐 그냥 내리고 싶다.

3. 골목으로 안갈려고 하는것.

아이들을 태우거나 짐을 많이 실고 갈 때 면 눈치가 보인다.

아파트에 살면 그나마 나을 텐데 주택에 살땐 욕먹으면서 골목길로 드러선다.

치사하지만 아이들과 짐을 함께 해야할텐 꼭 참아야한다.

사례23. 최○○(20대)

택시를 타면서 좋았던 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점은 빠르게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스를 놓쳤을 때나, 버스나 지하철이 더 이상 다니지 않는 시간에도 항상 택시를 타고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때보다 더욱 빠르게 갈 수 있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좋으며, 이곳 저곳을 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장소로 바로 갈 수 있어서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처럼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을 서서 가지 않아도 되고, 특히나 무거운 짐을 들었을 때나, 짐이 많을 때에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비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에도 정류장까지 걸어가고 내려서 걸어가는 불편함 없이 가까운 곳에서 타고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콜택시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 멀리까지 나가지 않고도 집 앞으로 불러서 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바로바로 부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좋은 기사님을 만날 경우에는, 돈이 부족하거나, 당장에 현금이 없을 경우에도 계좌이체나 혹은 금액을 조금 깎아 주신다거나 하는 기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럴때마다 정말 고마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안좋은 점을 들자면 가장 크게 불편하다고 느꼈던 점은,

할증 시간에 기사님들께서 신호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빨리 갈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차가 없다고 신호를 지키지 않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니, 안전하게 집으로 가려고 탄 택시에서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도착할 때까지 불안함을 느끼면서 버스에 탑니다.

또한 요즘 택시에서도 인신 매매와 같은 안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대체 어떤 택시를 타야하는지,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큼

니다.

안전 택시로 표시가 되있는 택시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사 아저씨들께서 요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일부러 먼 길로 돌아서 간다거나, 다른 길로 빠져서 길을 잘못 든다거나,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곳인데도, 멈춰달란 곳 보다 더욱더 가서 멈춘다거나, 택시가 멈추고 나서도 요금이 계속 올라가도록 고지 않는다거나하는 사소한 부분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또한 택시를 타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길을 가다가 계속 경적을 울리면서 따라올 때도 있어 밤에 걸어가다가 깜짝깜짝 놀란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님들이 신호를 안지킬 때도 있지만, 차선을 지키지 않고 끼여들기를 마구 할 때도 있어 그때가 가장 공포 스러웠습니다.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 편하게 택시를 타기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한번씩 다른 승객과 합승을 하는건 어떨겠냐고 할 때가 있는데, 이 점은 정말 꼭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는 길에 두명의 승객을 태워서 가면 돈을 더욱 많이 받을 수는 있겠지만, 편하게 가고 싶은 길에 모르는 승객과 타는 불편함도 있을뿐더러, 혹여나 납치수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과, 무슨일이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에 편하게 갈 수가 없어 당장에라도 내리고 싶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내리기 힘든 곳에서 내려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른 차들에 이동 방향에 방해가 되는 곳이나, 갑작스럽게 멈춰서 내려준다거나, 멈추면 안되는 곳에서 내려줄 때도 있어 뒤에 오는 차에도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내리는 손님도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잘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드택시가 요즘 많은데, 카드 기계가 안되거나, 되는 택시라고 표시되어있기는 하나, 카드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 당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현금이 없어서 카드택시로 일부러 골라서 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도 카드가 안되니, 현금을 뽑아오거나, 집에 가서 다시 가지고 나와야하는 경우가 있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택시마다 꼭꼭 카드기기를 확인하고 운행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었지만, 한번씩 택시 기사님들이 욕설이나 성희롱과 같

은 발언을 하는 기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욕이 나오는 경우도 있
기야 하겠지만, 너무나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시는 것을 듣다 보면 괜히 무서워지
기도 하고, 특히나 개인적인 것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별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어보시니 불편
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저도 가끔씩 운전을 하는데, 기사님들이 여성 운전자들에게 욕을 하는 것
을 보면, 괜시리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운전자라고 해서 괜히
무시하고 욕설을 하는 것을 듣다보면, 내가 운전할 때도 다른 기사님들이 저러지
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기분도 나빠 괜히 택시가 더 타기 싫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례24. 윤○○(41대)

택시, 비용부담은 좀 되지만 빨리 가야 하는 길에, 길 모르는 타지에서 이용하기 좋은 교통수단이였다. 그런데 심야 택시강도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사건 등이 이슈화되면서 이제, 택시는 약간은 두렵지만 어쩔 수 없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된 것 같다. 나의 택시이용은 주로 비오는 날(눈오는 날) 아이들과 어디를 가야하는데 그곳의 주차시설이 안 좋거나, 타지에 교육을 갔다가 길을 모를 때, 또는 아침 일찍 떠나야하는 출장등에 택시를 많이 이용한다. 길거리에서 서서 가는 택시를 잡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지금은 거의 콜택시로 등록된 번호를 부르는 경우가 많다.

요즘 콜택시는 먼저 종합센터에서 접수한 뒤, 가장 근거리 택시를 문자로 안내하고 담당기사가 다시 폰으로 전화연락을 주고 택시를 타는 절차를 이룬다. 정말 편리하다. 그리고 문자서비스를 주므로 몇 미터에 택시가 있는지를 알게 되어 시간도 맞출 수 있어 편리하다. 이것은 택시를 잡는 방법의 편리성인 반면, 택시를 타고나서 택시 안에서의 절차는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타는 승객에서 인사를 했으면.. 도착지를 먼저 물어봐 주었으면,, 어떤 길로 갈지를 물어주기를,,, 여성의 경우 필요 없는 질문은 삼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로 남성인 기사와 타는 승객 1명이 그 좁은 공간에서 있을 때 어색함이 흐른다..

경로에 대해 먼저 물어봐주고, 콜 택시명함처럼 기사이력에 대한 명함을 건네고 필요 없는 말은 삼가면서 예의를 갖춰준다면 정말 금상첨화겠다.

사실, 교통질서를 가장 잘 지켜야하는 차량은 버스나 택시 등 공용차량이다. 그런데 가장 질서가 안 지켜지는 것이 택시이며, 택시기사는 승객의 편리함과 빠른 이동을 이유로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나 그 택시 안에서 승객은 불안에 떠다. 재난사고가 많은 이때에 대중의 발인 택시가 질서를 지키고, 택시안에서의 절차질문으로 좀 더 편안했으면 한다.

사례25. 정○○(28세)

제가 느끼기에 여성의 택시 이용의 불편한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난폭운전이고 다른 하나는 불필요한 친절함입니다. 제 경험으로 모든 택시기사가 이러한 것은 아니지만 한 명씩 이러한 기사들이 있기에 택시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고 주위 친구들로부터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접하기 때문에 택시를 타기가 망설여지고 타더라도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난폭운전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단어에서 느껴지다시피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것입니다. 난폭운전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특히 젊은 택시 기사들이 과속을 많이 합니다. 그로인해 경적을 많이 울리고 급정거나 급한 핸들조작이 빈번히 일어나고 한 번씩은 아찔함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둘째, 신호위반을 하는 것입니다. 늦은 시간이 되고 차량 운행이 많지 않을 때에 특히 활증시간에 택시 기사들은 신호위반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을 습관적으로 하는 기사들은 차량 운행이 많은 낮에도 신호위반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셋째, 욕설과 폭언입니다. 택시들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솔직히 아무 곳에서도나 정차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회전차선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기다리지 않고 바로 출발하여 가장 바깥 차선에서 안쪽 차선으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종종 뒤 차량의 운전자와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버스 기사와의 마찰인데 마찰이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상대방과 욕설과 폭언을 나누고 심한 경우 정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차량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운전을 하면서 혼자서도 욕설을 하시는 분이 있고 간혹 여성운전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승객인 저는 불편하고 불쾌할뿐더러 기사분의 기분이 나빠지니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넷째, 네비와 휴대폰입니다. 가끔씩 네비로 DMB를 시청하면서 운전을 하는 기사들이 있고 간혹은 네비에 영화를 받아와서 영화를 보면서 운전을 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있으신 기사들의 경우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운전할 때에 네비 이외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은 불법인데 지적을 해드리면 기분만 상해하시고 분위기만 싸해져서 지적도 못하겠고 승객인 저는 내내 불안하기만 합니다. 다섯째, 말 안듣기입니다. 간혹 기사 중에는 제가 이러한 경로로 목적지에 가달라고 요구를 해도 제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이 아는 경로가 더 가깝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여성으로서 무시를 받았다는 생각에 모멸감을 느끼고 불쾌합니다.

다음으로는 불필요한 친절함입니다. 여성승객이 타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친절을 베푸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친절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 걸기입니다. 제 성격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는 택시를 탔을 때에 기사가 이런저런 말을 걸어오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간혹 제가 정신이 없거나 바빠서 급할 때에는 말을 걸어오면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둘째, 히터나 에어컨, 창문 닫기 등입니다. 히터나 에어컨을 지나치게 틀어주시거나 그로 인해 가슴이 답답하여 창문을 열었는데 얼마 뒤에 창문을 닫아주시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위에서 들은 말들이나 인터넷에서 본 글들에 의하여 저는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어느 때에는 불안하여 목적지가 아닌 곳에서 내려서 걸어서 집까지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셋째, 먹을 것입니다. 택시 범주가 문제가 되면서부터 먹을 것을 주는 행위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지만 아직도 먹을 것을 주시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자인 저로서는 당연히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위에 지적한 사항들은 아무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리 말했다시피 불필요한 친절함이라고 했습니다. 승객이 먼저 원하지 않는다면 기사가 먼저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성의 택시 이용의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여성의 안전을 위하여 여성 택시 기사들도 많이 보이는데 위에 언급한 내용들은 여성 택시 기사들도 해당하는 내용이니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안전 불감증이 대두되면서 제가 택시에 바라는 점은 승객이 탑승 시에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권해줬으면 합니다. 간혹 승객이 기분이 상해하여 쓴 소리를 한다고 해도 기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승객이 잠깐 타는 거지만 택시도 버스와 같이 승객의 안전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꼭 안전벨트 착용을 권해줬으면 합니다.

사례26. 김○○(46세)

마이카 전성시대인 요즘도 난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음주를 사랑하니까 약속이 있거나 급하면 미리 택시친구한테 예약을 한다. 주택이라 기사들이 꺼리기 때문이다. 집이 경신여고 근처라 늘 그 주변에서 택시를 많이 타는데 난 무조건 앞자리 에 앉는게 편하다 역쉬 사모님 버전이 내겐 맞지 않나봐!!! 그런데 기사님 말로는 뒷 좌석에 앉는게 정석이라고 한다. 일단 기사님이 성실한 분위기면 좋다. 웬지 지저분하고 끈적이는 기사들은 처음부터 도착할 때까지 편하진 않는다. 간혹 이런 기사들은 폰번호 주면서 만나자는 말도 한다. 기분이 매우 나쁘고 화가 난다.

수다왕답게 가리지 않고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한다. 정치 시사 그리고 경제까지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기사님도 계신다. 그런 분은 신뢰가 간다.

나중에 앙케이트 삼아 물었더니 젊은 30대 아이엄마들이 정말 짜증이라고 한다. 공중시설인 택시 의자에서 아이들이 뛰고 과자 흘리고 말썽피워도 한마디 했다가 그날 컨디션이 더 나빠진다고 한다. 학생들도 기본예의가 너무 없어서 힘들다고 한다.

나이에 비해 지나친 스킨쉽과 언행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더 힘들게 한다고 한다.

기사님이 가려고 하는 노선에 시비를 걸어서 끝까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노선이면 더 적게

나왔다는 손님도 많다고 한다.

내 경험으로는 친구 녀석이 잔돈 때문에 내리려고 할 때 가슴을 만진 적이 있어서 매우 기분 나빴다. 그리고 자주 이용하니까 사생활이 노출 되서 개인적으로 놀린 적도 있어서 기분 나쁜 적도 있었다.

좋은 기사들은 짐도 잘 내려주고 작은 나머지 잔돈도 꼭 주신다. 대부분이 당연히 남겨주지도 않고 주라고 손 내밀기도 민망한 적이 많다.

다른 의견을 준 사람의 얘기들

“ 길을 잘 몰라서 택시 탔는데 네비도 업그레이드 안 해놓고 사용법도 어버더버.....

가다가 행인에게 물어보고 가다가 행인에게 물어보고 차라리 힘껏 뛰어가는게 나을 것 같았던 일이 떠오른다. 아c 또 열 받네.“

“난 택시타고 불쾌했던 일은 없었던거 같은데.....^^

다들 친절하고 좋으신 분들만 만났었나봐~~~~

딱히 찾으려면 늦은 밤 택시타고 같이 있었던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택시 번호 물어 보길래 앞에 부착된 정보보고 불러줬더니 좀 기분이 나쁜신 듯.....

세상이 어찌려고 이리 못 믿는 세상이 되었나 하시는데 잠시 민망한 기억은 있네용~~~~^^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기사분께 양해를 구하는게 먼저였을 듯....ㅠㅠ 내 실수였네요~~~~^^

동감합니다^*

사례27. 허○○(28세)

택시 승차 경험을 돌이켜 보았을 때, 좋은 기사님이 운전하시는 택시를 많이 이용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좋은 기사님이라고 생각하지만 간혹 택시를 이용했을 때 기분이 언짢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밤늦게 탔던 적이 있는데 기사님께서 험하게 말을 하시면서 요즘 젊은 여자들 욕을 하시는 겁니다. 기사님께서 당시 며칠 전에 술이 잔뜩 취한 여대생을 태웠는데 본인에게 반말을 하고 무례하게 했다는 이유로 살인충동을 느끼셨다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어디 어두운 곳 데려가버릴까 생각도 들었는데 참았다고 하셔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 여대생도 잘못은 있었지만 그렇다해서 그런식으로 다른 손님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기사님도 올바른 행동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저는 일행과 타고 있었고, 음주를 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기사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원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지 말고 다니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기사님을 자극하면 안되겠다는 판단에 정말 기분 나쁘셨겠다고 정도로만 맞장구 쳐드리고 말았습니다. 혹시나 다음 번에 비슷한 상황이 있을 경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웠습니다. 제가 탔던 택시 중 제일 공포심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두 번의 똑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요즘 택시들이 거의 카드결제가 되기에 제가 말한 목적지가 다다를쯤에 카드를 꺼내들고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기사님이 목적지 도착하기 전에 미터기를 정지 시키시는 겁니다. 거의 다와서 요금 안 올라가게 해주시려는 건가하며 저야 요금 내는 입장이니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착 후 카드를 드렸더니 카드 긁는 척을 좀 하시더니 왜 미리 카드결제라고 말씀안하셨냐고 하시면서 카드결제인지 몰라서 이미 미터기를 꺼버렸다고 하시는 겁니다. 다행히 현금이 딱 택시비 만큼은 있던 터라 드리고 내렸습니다. 내려서 생각해보니 제 손에 카드가 있는 걸 백미러로 보시고 미리 미터기를 끄신 것 같아시습니. 그걸 생각하니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던지 왜 카드택시라고 써 붙이고 다니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또다시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같은 기사님이었나 싶을 정도로 앞에 쓴 내용처럼 똑같이 하셨습니다. 카드결제라고 미리 말하지 않아도 다른기사님들은 결제만 잘 해주시던데 짧은 기간내에 두 번의 같은 경험을 하니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해서 앞으로 택시 탈 때 목적지 얘기하고 카드결제라고 말하면 또 오хи

려 길을 돌아간다던지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불편했던 경험은 기사님이 길을 돌아서 갈 때였습니다.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아 촉박한 상황이었는데 버스를 타려니 늦을 것 같고 택시로는 충분히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급히 택시를 잡고 탔습니다. 터미널까지 평소에 길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전에도 터미널까지 택시를 여러번 이용했던지라 걸리는 시간이나 요금이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날따라 기사님은 길을 꽤 돌아가셨고 요금도 몇백원 차이가 아닌 천원 이상으로 더 나왔습니다. 이미 차도 놓쳤고 기사님이 길을 돌아가는 걸 안 순간 기분이 상해 내릴 때 왜 길 돌아서가시냐고 한마디하고 내렸습니다. 빨리 가 기위해 택시를 탔던건데 오히려 돌아가고 요금도 더 나오고 버스도 놓치고... 터미널간다니까 이 지역사람이 아닌줄로 아시고 그런 것 같아 더욱 더 화가 났었습니다. 타지에서 온 사람이라도 그렇게 운행을 하면 안되는데 말이죠. 정말 하루내내 짜증이 솟구치는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탔던 택시의 기사님은 출발할때부터 유쾌하게 해주셔서 목적지까지 가는 내내 정말 즐거웠습니다. 평소 택시에서 내릴때 '수고하세요' 라고만 하고 내리던 저도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하며 내렸더니 기사님도 기분이 좋으셨는지 껄껄웃으시면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짧았지만 너무나도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탔던 친구들도 기사님이 너무 좋으시고 재밌었다며 다들 즐거워했습니다.

택시도 사람을 만나는 일종의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운전하시느라 피곤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적어도 승객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특히 밤시간대에 여성승객을 태웠을 땐 언행에 있어서는 더욱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고 무서운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때라 여성들이 밤길 다니기 더욱 힘들기 때문에 귀갓길 택시를 믿고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더욱 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례28. 김○○(35세)

안전한 택시에 대한 단상 1.-택시 내부 환경

언제부터인가 택시를 타면 먼저 걱정부터 앞서게 된다.

타게 될 택시 기사는 어떤 분일지, 택시 안은 담배 냄새없이 깨끗할지, 현란한 인테리어는 없을지...

택시를 잡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택시 내부의 인상은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나를 편안하게 하거나 아님 불안해서 등을 뒹 등받이에 붙이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세워 있게 만들기도 한다.

우선 택시 안에서 나는 냄새다. 담배냄새와 불쾌한 남자냄새(아~이건 편향된 시선이지만 적당한 말이 없네요)가 섞여 냄새나는 택시를 타면 일진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거기다 뒤쪽에 조화로 담쟁이 같은 것이 장식되어있거나 cd를 꽂아서 인테리어를 해놓은 택시, 방음 천장을 만들어 놓은 택시는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공적인 공간인데 남의 사적인 공간에 들어 온 것 같은 불편함을 느낀다.

택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공영제, 준공영제 여부를 떠나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공적인 운송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택시를 이용한 살인사건, 성폭력 사건등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택시의 내부 환경도 승객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택시 내부의 환경을 점검할 수 있는 관리지침도 필요할 것이고 운송회사는 영업 이익만 생각하기 보다는 고객들의 안전도 중요시 해야 한다고 본다. 택시내부 환경은 고객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외부 시야가 확보되어 위급시에 자신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게, 너무 사적인 공간처럼 느껴져 기사와 단둘이 타는 공간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들이 많이 타는 택시가 좀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느껴진다면 택시를 더 잘 이용할 것이고 불안하지 않을 것 같다.

안전한 택시에 대한 단상 2.-택시 운전기사

2013년 겨울 친구들과 모임을 마치고 풍양지구에서 봉선동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다. 12시가 된 시간에 캄캄해서 저쪽에서 빈차등을 켜고 오는 택시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더니 2차선에 갇길 주차가 되어 있는 곳에서 생각보다 빠

르게 우리 앞에 획~하니 멈춰섰다.

내가 먼저 뒷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택시외부가 굵힌자국이 많이 있었다. 문을 열고 친구가 먼저 뒷자석에 타고 나도 바로 탈려고 하는 순간 택시 내부에서 나오는 술 냄새가 같은 이상한 냄새에 순간 멈췄다.

먼저 탄 친구도 모르고 탔는데 영 분위기가 좋지 않아 다시 내려야 하나 생각 하는 듯 얼굴이 굳어져 있었다. 그때 운전기사가 어서 오세요..하는 말에 이미 친구가 타고 있고 한발만 걸치고 있던 발을 택시에 몸을 싣게 되었다.

원래는 봉선동 내가 내리고 친구 집으로 갈 생각이었지만 두사람은 그냥 두 집의 중간지점을 목적지로 말하고 가기로 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운전기사의 모습은 뒷머리가 감지 않은 듯 딱이 지고 자고 일어난 듯 까치집이 지어져 있었고 바지는 트레이닝복을 입고 아주 편한 신발을 신고 있었다. 정말 최악이었다. 가는 동안 친구랑 나는 불안에 떨며 아무 일없이 목적지에 다다르기만 기다렸다.

목적지에 도착을 했을 때 우리가 내린 쪽 반대편에 다른 여성 두명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사는 우리를 택시에서 내려주고 불법으로 유턴을 해서 두 여성을 태우러 갔다. 택시를 탈 때 운전기사쪽 바깥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쪽도 심한 굵힘 자국을 볼 수 있었다. 친구와 나는 무사히 내린 것에 안도했지만 바로 탄 두 여성들이 엄청 걱정이 되었다.

버스와는 달리 택시 운전기사는 유니폼을 입지 않는다. 장시간 동안 운전을 해야 하는 특성으로 불편한 신발과 옷을 강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사가 모자를 눌러쓴다거나 너무 편한 트레이닝복을 입는 다거나 잘 씻지 않아 냄새를 풍긴다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회사의 유니폼을 입게 하는 것은 어떨까. 회사에 대한 이미지도 나아질 것이고 택시에 대한 신뢰도 훨씬 좋아질 것 같다.

사례29. 강○○(43세)

불편했던 경험:

자동차가 없는 40대 주부로 아이를(6살) 키우면서 외출을 할 때면 대부분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먼거리를 이용할 때는 콜 택시를 부를 때 불편함이 없는데, 아이가 아파서 가까운 동네 병원을 가고자 목적지를 말 할 때 부담스럽다. 가자고 하는 마음도 불편하고, 기사님들의 표정도 반감지 않은 눈치다.

좋은택시 사례:

-택시를 타고 먼거리로 이동할 때면 대부분 기사님들과 사회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주부로 알고 있는 내용과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생활하시는 기사님들의 의견을 듣는것은 즐거운 일이다.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갈 때 가까운 거리여도 여자 기사님들은 (콜택시)항상 웃으면서 이야기 하신다.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있어서 그런걸까?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콜택시를 부르면 모범기사님들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례30. 황○○(18세)

사례1. 대부분의 택시 기사아저씨들은 남자이다. 솔직히 남자인 여자이던 누가 택시 운전을 하는 건 별로 상관없다. 그러나 기사 아저씨들은 여자인 내가 손님으로 택시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전엔 방해가 되는 운전자 특히, 여자들에게 ‘여자가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는 운전도 못하면서’ 라는 등 여성차별 발언을 서슴없이 한다.

뒤에서 듣는 여자 기분 나쁘게... 집에 계시는 아저씨들의 부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말하기를 바란다.

사례2. 택시를 타 보면 생판 처음 보는 택시 기사아저씨들이 나에게 말을 건다. 나이, 학교, 어디를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이러다 내 사촌의 친척의 팔촌까지 알게 될 판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꺼려한다. 물론 하루 종일 운전만 하고 다니는 아저씨들 보면 ‘적적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지만 좀 지나치다고 생각될 때도 있다. “그만 물어보세요.”하고 싶지만 나 같은 아이가 어른에게 말하기도 불편하고 ‘조금만 참자.’ 그러면서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를 바랄뿐이다. 우리는 호구조사를 당하려 온 게 아니라 택시를 타러 온 것이다. 그러니 너무 사적인 질문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

사례3. 우리가 택시를 타는 이유는 무엇인가? 솔직히 답은 하나다. 빠르고 편하게 도착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가 우스워질 정도로 택시기사들이 길을 모른다. “아저씨! ○○으로 가주세요”하면 “요즘은 너무 많은 아파트에 건물들이 들어서다 외우기도 어렵다며 제가 길을 잘 모르니까 좀 알려주세요.”... 당황스럽다. 나는 편하게 택시를 타고 싶었지만 졸지에 길안내 네비가 되어버린 느낌이다. 그래도 내가 길을 알 때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언젠가는 나도 길을 몰라 다른 택시를 타야해서 바로 내린 적도 있다. 이런 아저씨들은 네비게이션도 없다. 또 어떤 택시기사아저씨들은 일부러 더 멀리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빠른 길을 놔두고 꼭 신호가 걸리는 길로 가서 돈을 더 받으려는 공공이가 뻥히 보인다고나 할까?! 내가 “이쪽 골목으로 가시면 신호 안 받고 가실 수 있어요.” 하면 택시를 탔으면 택시 기사가 가는 쪽으로 가는 거라면서 무언의 무시하는 느낌을 주고 여자고 어린학생이라서 그런지 운전엔 대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식의 발언이 매우 거슬린다. 우리는 빠르게 가기위해 택시를 탔지만 아저씨들은 돈을 위해 우리를 태운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돈이 넘쳐나서 평평 돈쓰는 갑부도 아

니고 뱅뱅 돌아갈거면 버스를 탔지 택시를 탈 이유가 없지 않는가?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길안내 네비도, 돈 많은 갑부도 아닌 모르는 길을 편하고 빠르게 손님임을.

사례4. 욕은 좋지 않다. 기분이 좋다가도 누군가 욕을 하는 것을 들으면 기분이 안좋아지는 것이다. 운전하면서 성격이 괴팍한 아저씨들은 아주 욕을 퍼 부으신다. 나에게 하는 욕이 아님에도 듣고만 있어도 화가 난다. 굳이 저렇게까지 말을 안이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욕을 한다고 해서 분이 풀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뒷자석에 누가 앉던지 간에 의식하지 않고 욕하시는 택시기사아저씨들은 들었으면 좋겠다. 아저씨들 만약 뒤에 앉은 손님이 당신의 자식이고 부모이면 앞에서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례5. DMB시청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아져 더 이상은 DMB시청은 불법이 되었다. 10대인 나도 아는데 어른들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택시 기사님들은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러나 알기만 하지 행동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우리가 수업시간에 몰래 먹는 과자를 더 맛있게 느끼는 것과 같나? 운전 중에 몰래 보는 DMB가 더 재미있나? 설마 손님인 우리를 위해 DMB를 준비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내가 탔을 때 채널을 돌리거나 내게 무슨 프로를 보고 싶냐고 물어 본 아저씨는 아직 못 만났으니... 어찌된 이유이든 내가 손님으로 탔을 때에는 잠시나마 나의 생명은 기사아저씨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니 아저씨, 나는 오래 살고 싶다고요!! 운전 중에 통화하시는 것도 불안해용~~

사례6. 담배나 여러 냄새로 택시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택시기사아저씨가 운전 중에 담배를 피기도 하고, 자신의 정치색을 강요하는 아저씨도 있다. 예를 들어 박정희는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전라도 쪽이다 보니 특히 이명박이나 박정희를 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것을 강요하고 안 그러냐고 계속 물으시니 어찌 할 바를 모르겠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선거철에는 더 심하기도 하는데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은 좋으나 어린 내가 좋지 않은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굳이 열 까지는 안내셔도 되지 않을까?

사례7. 목적지에 막 도착하자마자 미터기가 이제 막 100원이 올라갔는데 그 돈을 꼭 받는 아저씨들이 계셔요? 너무 아까워... 특히 4100원이 되는 경우 솔직히 4000원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막 100원 올라간 것을 꼭 받아갑니다. 그리고

잔돈을 좋게 주지 아니하고 막 쥐서 택시 안에 떨어지게 되는데 다시 찾으려고 하면 바쁘다고 가야된다고 기다리지도 않고 해서 택시 안에 나의 피 같은 동전을 두고 내리게 되고 택시는 가버린다.

불편한 진실만을 말하다보니 택시가 다? 물론 저희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택시 아저씨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니 좀 더 노력하고 개선해서 '좋은 택시'만들기 프로젝트성공하게요.

사례31. 오○○(39세)

심야에 택시를 탄 적이 있었다. 늦은 밤 택시를 탔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약간의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합승을 해도 되겠냐고 기사님이 물어보셨고 난 거절을 하지 못했다. 결국 합승을 하게 되었는데 모르는 사람과 한 공간에 있다 보니 너무 불편했다. 그래서 택시를 잘 안타게 되었다.

5명의 아이들 데리고 택시를 타게 되었다. 가야하는 거리는 5분정도였고, 기본요금 거리였다. 그런데 아이를 많이 태웠다고 1000원을 더 요구했다. 요금을 내긴 했지만,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야 청구하는 요금이 상당히 기분 나쁘다.

나는 아이가 셋이다. 그래서 아이들과 한번 외출을 하려면 짐이 적지않다. 둘째 아이가 아파서 입원하게 되었다. 입원을 위한 물품들을 챙겨서 택시를 탔다. 평소에도 들고 나서야 하는 짐이 적잖은데 입원물품까지 챙기고 보니 아이셋에, 짐까지 참으로 많았다. 택시가 셋지만 기사는 트렁크를 열어줄 뿐 내 짐을 실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다.

짐 실고, 아이 태우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나를 쳐다보며 빨리 탔으면 하는 눈치를 계속 주었다. 도착해서 아이들을 챙겨 내리려고 하는데 어린 아이들여서 모두 엄마손을 기다리고 있다. 아픈 아이가 있으니 내리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기사님이 한말씀 하신다. “빨리 내리세웁!” 와~ 내가 일부러 천천히 내리는건가? 눈이 있으면 어떤 상황인지 알텐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빨리 내리라니??!! 그럴잖아도 어린 아이들과 짐 때문에 힘이 들고 짜증나 있는데 내 마음에 불을 당긴다. 하지만 뭐라 할 수는 없었다. 난 서두르고 서둘러서 아이들과 짐을 내렸다.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기분이 많이 나쁘다.

택시를 타는 건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다른 대중교통에서 누릴 수 없는 편안함이 있어서인데 내 돈을 다 내고도 겪지 않아야 할 불편과 언짢음을 겪어야 한다면 굳이 택시를 타야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않을까?

더군다나 택시는 특성상 한 명의 승객과 기사만이 한 공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남자기사님과 한공간에 단 둘이 있다는 이유 자체가 때로는 불편하고 두려움이 있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험한 인상을 쓰거나 불친절한 말투 등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우선 택시에서 내리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생기게 된다. 승객이 이유없는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많은 택시에서 편안함과 친절함을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사례32. 이○○(70세)

도로 주행은 나 혼자만 잘 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상황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행 중에 운전자는 전방을 비롯해 사방에 촉각을 세우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운행중에 DMB를 시청하는 기사님을 봅니다. 물론 운행중에는 안본다고 얘기를 하지만, 안보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안켜야 맞는 게 아닌가요? 차를 세워놓고 승객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차가 세워졌으니 괜찮습니다.

하지만, 운행중에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데 승객까지 태운 상황에서 그러는 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에 장착된 건 차량이 운행되면 DMB가 작동 안된다지만 요새는 핸드폰이 있어서 차량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DMB시청이 가능합니다. 핸드폰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운행중 핸드폰 통화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디서 듣자니 핸드폰 통화가 음주운전과 비슷하다고 하더군요. DMB거나 핸드폰이거나 운전자의 시야확보나 사방주의를 방해 하는 것이니 운전 중에는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둘째 딸이 많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집에 오려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조금이라도 택시를 빨리 잡아 얼른 집으로 갈 생각에 딸아이가 빨리 걸을 수 없지만 먼저 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환자가 오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딸아이는 아픈 몸을 끌고 힘겹게 걸어왔습니다.

택시를 잡아두어서 미안하지만 딸아이를 재촉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힘겹게 택시 쪽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택시가 횡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나도, 딸아йд도 모두 황당했습니다.

시간이 돈이라는 택시를 잡아두었으니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환자가 힘겹게 걸어오는 걸 보고 있었고, 이제 타기만 하면 되는데 가버리니 약올리나? 싫은 생각도 들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승객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승객만의 이익이나 편의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이 있어서 택시를 이용하는 상황이라면 일반 승객과는 다르게 상대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례33. 이○○(46세)

짐이 많았다.

택시를 불렀다. 콜택시가 도착했다.

택시가 좀 멀리 섰다. 나를 못봤을까? 아닌데?

주변에 나밖에 없는데?

택시를 좀 움직여 달라고 했다. 슬슬슬 차를 움직인다. 트렁크를 두드렸다.

트렁크를 열어준다. 그것으로 끝이다.

난 덩치가 크고 힘이 제법 세긴 하지만, 그 날 그 짐은 나 혼자 이기기에는 크고 무거웠다. 기사님을 봤다. 나에겐 조금의 관심도 없다. 무슨 오기였을까? 혼자서 그 짐을 혼자 트렁크에 실었다. 기분이 나빴다. 화가났다. 기사님은 도착하도록 아무 말씀이 없었고, 나 역시 평소 나의 친절함을 전혀 보이지 않고 내내 불편한 마음으로 있다가 차에서 내렸다. 도착지에서도 나는 나 혼자서 그 짐을 내렸다.

아들이 전화를 했다. 택시타고 가요. 택시비가 없어요. 내리는 데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지갑을 뒤지니 현금이 몇 푼 안된다. 아무래도 택시비를 현금으로 못낼 거 같다. 딱이 현금 찾을 수있는데가 보이지 않기도 했고, 요샌 카드결제가 되는 택시가 많아서 카드를 믿고 기다렸다. 다행히 택시는 카드결제가 되었다. 카드를 쓱 내미니 난감해 하는 얼굴. 카드단말기가 꺼져있었다. 켜지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했다. 결제 승인이 쉽게 나지 않았다. 카드를 여러번 긁었다. 승인이 나고 택시는 떠나갔다. 9천얼마였을 게다. 기다리는 잠깐 사이 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한다. 현금으로 드리지.. 현금이 없었고 찾을데도 없었시야!!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면서 편했던 적이 없다.

택시를 타면 좁은 한 공간에 기사님과 둘만 있게 된다.

가는 동안 대화도, 라디오도 없으면 참 무겁고 불편한 시간이다. 기사님 표정이 화나 있어 보이면 더욱 좌불안석이다.

편도 4차선의 넓은 도로를 시원하게 달리고 있는데 자가용이었던가?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택시가 심하게 흔들렸다. 택시를 심하게 흔들어 놓은 차는 쓴살같이 정말 찝싸게 내뺐버렸다. 놀란 가슴을 추스르다가 기사님을 보았는데 얼굴이 버얼겔다. 이런!! @#\$\$%&!! 순간 내용은 뒤로 젖혀지고 택시가 무섭게 달린다. 그 차를 기어코 잡아서 운전자를 어찌해보리라는 택시기사님의 태도에 난 저절로 긴장을 했고, 놀래킨 차를 놓쳐서 쫓아가는 것을 포기 할 때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명줄이 십년은 준 거 같았고, 도착해서 내릴때까지 씩씩거리는 기사님 눈치를 보아야했다.

첫 두 사례는 세 번째 사례에 비하면 애교수준이다. 손님이 댔거나, 그러지 않거나 그런 주행을 한다는 건 위험천만한 일인데 손님이 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참으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본다. 운전자로서 안전운행에 대한 사명감이 꼭 필요하다!!

사례34. 이○○(46세)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 딸만 둘을 둔 엄마이다. 일단 택시에 대한 나쁜, 무서운 이미지 때문에 절대로 택시를 태우지도 않고, 한번도 태운적이 없습니다. 왜냐구요?

다들 딸둔 부모라면 공감이 되겠지만, 어디 무서워서, 딸자식들 밤늦게 택시를 태우겠냐구요. 대낮에도 정말 난폭운전은 기본이고, 성적인 농담까지 하는 기사분들.

아니 아무 대꾸도 안해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차도 구입하고, 나의 개인 일이 있는데도, 학교에서 늦게 오거나,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솔직히, 나의 직업도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택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택시의 외부, 내부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광주시에서 지원해주는 택시라도, 외형을 똑같이 해서, 무언가 통일되어서, 회사를 표시할수 있도록, 그러면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고, 또, 그런 택시를 골라서 선택해서 이용할수 있을것 같아요. 지금은 고객으로써, 선택의 권리가 제안되어 있는듯 합니다. 그리고, 요즘 현금을 잘 안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저같은 경우도 현금을 잘 안가지고 다녀서 일부러 은행인, 현금인출기 있는 곳까지 가서 현금을 찾아서 택시를 탑니다. 왜냐구요?? 카드택시이긴 하지만, 대부분 가까운 거리를 가기 때문에 카드결제하기다 애매하고 좀 미안한 마음에, 무서운 마음에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여성들은 가까운 거리를 많이 가지(집근처) 장거리를 택시로 이용하지는 않으니깐요.

잘은 모르지만, 택시회사 또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운전자 처우가 많이 열악하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미소짓는 얼굴로 손님을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잘은 모르지만, 도급택시? 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관리가 되지 않은 택시종사자가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택시회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운수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노력을 하면, 택시업계의 불황도 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노력해서 좋은 택시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35. 김○○(46세)

우선 ‘택시’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저 편리한 교통수단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물론 저도 편리하게 이용하기는 하지만, 택시기사들도 일종의 서비스업 이 아닙니까. 평소에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저는 가끔은 택시를 이용하면서 제가 돈을 주고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해야하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택시 기사들도 많습니다. 가끔은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얼굴이 구겨질 때도 있습니다.

우선 택시의 장 단점부터 말해보겠습니다.

택시 이용 이라는 것이 대중교통 운행시간이 종료된 후에 언제 어디서든지 이용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으며, 초행길에 편리합니다. 쇼핑이나 장 본 후에 귀가하기 편리하며 정 확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반면에 대중교통 이용요금보다 비싸고 초행길을 눈치채 고 돌아가는 운전기사가 있으며, 유가 변동에 따라 택시요금도 급상승하고, 난폭 운전에 사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이제 이러한 단점에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째, 탑승 하자마자 굳은 표정으로 차가 막히든지, 뒷 차가 갑자기 끼어들든지 하는 일에 욕설만 하는 택시기사도 있습니다.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 르겠고 불편함만 커집니다.

반대로 친절한 택시기사님들도 있지만, 위의 상황처럼 기분이 같이 안좋아지게 만드는 택시기사님들도 계십니다. 힘든 일 하시느라 힘드신건 알지만, 고객에게 불편한 상황은 만들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날씨가 더워지면서 기사님들의 짜증에 고객도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싸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 약 이 상황이 일어났다면 택시 기사 잘못입니다. 물론 짜증을 못 참고 표출한 고 객도 잘못이 있지만, 애초에 원인 제공을 한 택시기사의 잘못도 있지 않을까 합 니다. 승객들은 이러한 택시기사님의 표정과 욕설, 말투 하나하나에 기분이 달라 집니다.

짜증나는데 티도 못내는 승객들은 내려서야 이 택시기사는 어쩐다 저쩐다 라고 불평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반갑고 친절하게 맞아주는 택시기사와, 무표정으로 쌀쌀맞게 구는 택시기사와 두 택시를 타봤을 경우 승객들은 어떤 택시를 더욱 타고싶어 하는지 생각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친절한 택시기사님들이 운전 하는 택시를 타고싶어 합니다.

둘째, 애초에 탑승조차 못하게 승차 거부를 하시는 기사님들.. 정말 교대시간이 라서, 고객이 술에 취해 보여서, 딱봐도 돈 없다고 잡아 뿔 것 같은 손님들을 스

캔하고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기사님들이 계신다. 그럴거면 뭣하러 택시기사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택시가 많이 다니지 않는 길에서 가끔 택시를 잡았는데 승차거부를 당하면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택시를 잡을 때도 승차거부가 많습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태우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승차거부에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택시 기사들이 승차거부를 못하도록 택시회사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써놓고는 승차거부를 할 경우 신고하면 처벌하는 방법은 어떨까합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말이지만 승차거부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렇게라도 해서 승차거부를 안 당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광주에서는 외곽 촌쪽, 골목길 같은데서 승차거부가 심하다고 합니다. 이런 곳은 사람도 많이 없고 택시가 잘 다니는 길이 아니라 택시도 거의 없는데 가끔가다 지나가는 택시마저 승차거부를 해버리면 콜택시라도 불러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통합적으로 취객, 짐이 많은 승객, 장애인, 말이 안통하는 외국인 등등 택시기사가 꺼려하는 사람들은 모두 승차거부다. 무조건 태워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승차거부는 제발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돈 몇 백원 더 벌어보려고 뱅뱅 돌아다니는 기사님들.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닌가요. 초행길을 눈치채고는 일부로 돌아가는 양체 운전 기사들이 많습니다. 안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바쁘지 않았더라면 버스를 이용했겠지 택시까지 탔으면 적어도 다른 먼 길로 돌아가는 일은 있으면 안되지 않을까요. 가끔 그러다가 가격이 뺄뿔기가 되어 고객이 가격에 대해 물으면 당연한듯이 “원래 이 정도 나와요.” 라는 식으로 말하면 고객은 정작 할 말이 없어집니다. 택시 기사들이 양심적이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네비게이션이 있는 데도 도착지를 헤메는 기사님들.. 탑승할 때 도착지를 말했는데 이상한 곳으로 갈 때, 뒤늦게 말을 하면 그제서야 바른 길로 가는 기사님들 애초에 네비게이션에 위치를 찍으면 될 것 아닌가요. 왜 모르는 길을 헤메서 두볼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잘못 갔던 길에서 나온 요금을 차감하면 몰라. 요금은 그대로 오르고있고 짜증도 점점 올라갑니다.

이런 택시에 대해 따지는 승객들이 있다면 적반하장으로 밀어붙이는 택시 기사들도 있습니다. 되려 “애초에 다른 택시라도 잡았으면 똥잡아요.” 라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승객은 기분 좋게 돈을 지불하고 귀가 할 수 있을까요. 택시 기사들의 양심적인 운전이 승객들에게는 기분이 더 좋을것입니다. 그렇다면 간혹가다 고생하신다고 수고비를 드리는 우리 가족 사람들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또 그 경우만 있는게 아닙니다. 자기가 잘 못 들어놓고는 다른 목적지로가서 고객이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 인데요.” 라고 말했을 때 짜증을 내며 돈을 받고는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걸 제가 겪은 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목적지에서 돈만 주고 내려버린 사람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른 채 가까운 돈만 낭비해야하고 또 다른 택시를 잡아 타야하니 끔끔합니다. 차라리 모르는 길은 그냥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택시기사 라고 무조건 길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비게이션도 설치하는 것인데 아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가다가 길을 헤메다 불상사가 생기는 것보다는 애초에 네비게이션에 위치 등록을 하거나, 네비게이션이 없다면 승객에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물어봤다고 승객이 길을 모르다며 화를 낸다면 그건 승객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당당하게 길을 모르겠다고 하고 양해를 구해 가는 길을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다섯 째, 나와 다른 정치관이라 스포츠개념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기사님들.

이럴땐 그냥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다. 맞장구 치기도 뭐하고 어색함을 달래려고 말을 거는 것이긴 하지만, 되려 그게 고객에게 불편 해 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와 정치관이 다른 데도 불고하고 이게맞다. 이 사람이 맞다. 이걸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해버리면 고객 기분이 나빠질 상황이 올 수가 있고 난감한 상황이 오기도 한다. 자기 정치관은 혼자서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같은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대화했으면...

여섯 째, 여성 고객에게 기분나쁜 말을 하는 택시기사님들...

밤 늦게 구시청 이나 총장로 같은 곳에서 택시를 잡으면 “술 많이 드셨나봐요?” 그리고는 치마를 입었을 경우 백미러로 자꾸 훑훑훑 쳐다보는 경우. “저랑 같이 어디가서 한잔 더 하고 들어가실래요?” 라는 말 등을 하는 택시기사들도 있다. 늦은 밤이라면 여자들은 더 조심하게 되고 무서워 하는데 택시기사가 그렇게 말해버린다면 여자들은 납치같은 경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놓고 오해받으면 기사는 되려 화를 냅니다. 애초에 원인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떨까 여자들에겐 듣기싫고, 수치감들게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택시기사들은 그냥 택시회사에서 신고당하면 바로 짤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고 안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정신상태를 가지고 있는 택시기사 들은 있으면 안 됩니다. 승객은 승객으로만 생각해야지 노래방을 가자고 하던가, 술을 먹으러 가자고 하던가 번호를 물어보던가 하는 것은 택시기사 라는 업종을 하고있는 택시기사 행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째, 택시 기사 자신만을 생각하는 기사님들

정말 많은 경우다 택시를 잡아서 타면 30도가 넘어가는 찌는 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고 애써 드라이한 머리가 날아가게 창문을 열어놓고 가시는 기사님들이 있습니다. 창문을 닫으면 덥다고 열어버리시는 기사님들.. 보통 고객이 편하게 창문을 닫아주시거나 에어컨을 틀어주시거나 하지 않나요? 자기들 돈 아깝다고

에어컨도 키지 않고 더운데 그냥 달리시는 기사님들.. 고객들을 위해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승객이 편하라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어주시는 것이 아닌가요. 물론 자신도 시원하고 따뜻하긴 하지만, 돈아끼려고 승객이 불편하게 놔두는 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여덟 째, 이건 우리 딸이 이야기 해 준 것입니다. 택시기사들이 학생이라고 반말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공부나 하지 왜 돌아다니냐.” 라는 식으로 오지랖이 넓게 행동하시는 기사님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부모도 하지 않는 막말을 하는 기사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듣기에도 기분이 정말 나빴을 것 같은데 우리 딸은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아무리 고객이 어리다고 해도 기사님들이 최소한의 에티켓정도는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신다면 이러한 불상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홉 째, 장난하면서 운전하는 기사님들과 거칠게 운전하는 기사님들이 것도 우리 딸이 알려준 일입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한손으로 핸들을 잡고 가거나 차가 많이 없는곳에서 차를 오른쪽, 왼쪽 왔다갔다 하는 기사님을 봤다고 합니다.

심지어 핸들에서 손을 떼고 운전하시는 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딸은 정말 당황스러워 했다고 했고, 듣는 나도 기가 차서 말을 못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 장난을 해 버리면 고객은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생각 한번 더 해보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이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가끔은 노약자가 이런 택시를 타면 어떻게 되려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노약자가 이런 택시에 탈 경우 되게 불편해질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세게 밟거나 일부로 빨리빨리 달리거나 신호위반 등을 하는 기사님들이 자주 보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일입니다. 운전은 조심히 부드럽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탑승해 있는 택시는 더욱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 째, 택시 요금 카드결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즘은 현금을 많이 들고다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청소년도 청소년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현금을 잘 들고다니지 않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만 꺼내쓰지 보통 사람들은 카드를 이용합니다. 그 점을 고려하여 택시에도 카드 결제를 만들어서 고객은 편하지만 카드결제할 때 기사님의 눈치가 되게 안좋습니다. 기사님들이 카드결제를 되게 안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기사님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끔 정책을 만들어서 카드결제를 유도하게끔 한다면 고객도 편하고 기사님들도 편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도 어떨까 합니

다.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서 카드결제하는 승객들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합승 시키려고 하는 택시기사들. 고객의 경우에는 매우 불편합니다. 비슷한 길을 가면서 돈을 더 받으려는 기사들의 일석이조에 대해 고객들은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편리하게 이용하려는 대중교통을 탑승자와 상관없이 비슷한 거리라며 합승시키려고 하는 기사님들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다고 싫다고 딱잡아 말하기도 그렇고 하는 수 없이 합승시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건 택시기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택시를 타려는 사람도 빈차가 아니라면 불러서 잡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기사와 승객 모두가 고쳐야 할 점인듯 합니다.

그리고, 택시 정류장 또한 부족합니다.

줄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세치기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택시정류장은 정말 간혹가다가 버스 정류장 근처에 하나 둘씩 있습니다. 적은 택시 정류장도 문제지만 택시 정류장에 택시는 세워두고는 자리를 비우는 기사님들도 있습니다. 기사님이 없어서 그 뒤에 있는 택시에 가서 타려고 하면 뒤 쪽 택시기사는 앞 택시를 타라고 하신다 그럴경우에 승객은 가만히 기사님이 올때까지 멍 때리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불편한 문제점입니다.

택시 기사들의 차량 내부 상태도 썩 좋은 것 만은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차량 내 원인모르는 이상한 냄새가 날 때도 있고 에어컨이나 히터의 필터를 청소하지 않아 쿨퀴한 냄새와 공기가 탁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뒷좌석의 손잡이 부분은 다른 승객들이 뺄어놓은 껌, 진드기 등 이상한 액체나 끈적거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잡는 택시라도 차량 내부가 깨끗한 택시와 차량 내부가 지저분한 택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괜히 탑승한 승객이 찻찻해지지 않도록 차량 내부 관리를 한다면 더욱 우리 사람들은 택시를 이용하고 싶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간혹 가다 택시 요금을 가지고 거짓말을 치시는 택시기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뒀을 경우 가는 길에 오르는 택시 요금을 더 올려버리거나 위에 말 처럼 먼 길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영락없이 돈만 아깝게 더 지불해야 하고 손해가 커집니다. 택시기사가 돈 벌기 힘든 직종인 것은 안다. 하지만 계속 언급하듯이 양심적이게 행동하고 양심적이게 운전하고 양심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나요.

하나 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분들.

저로써는 되게 급하고 바빠서 빨리 가달라, 정말 급하니깐 좀 빨리가주시면 어떨겠나 라고 물어보면 아무렇지 않게 태연한듯이 콧노래만 흥얼흥얼 거리다가 계속 빨리좀 가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얼굴에 짜증을 팍팍 티내시는 분들이 계십

니다.

버스보다 택시를 더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시간이 없거나, 바쁘거나, 급한일이 생겨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택시만 이용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이 이러한 상황에 택시를 이용하는데 택시기사들은 느리고 여유있게 가는것뿐만 아니라 콧노내까지 부르며 승객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승객들의 기분은 어떻게 될까요 또 승객은 분노 할 것입니다. 아니면 또 택시에 대한 불편함이 생겨 나겠죠.

사람들이 택시는 이용하고싶어 하도록 환경을 바꾸거나 친절함으로 다가가는 것은 어떨까요

이 경우는 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위의 상황중 하나 이기도 한데요. 제가 총장로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빨리 가야될 상황이라서 총장로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를 타고 동강대학교 정문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환도로를 타냐고 물어 보시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주위를 보니 전혀 처음 보는 배경 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자 동신대학교 병원으로 가는 것 아니었냐고 되묻더라고요 당황해서 동강대학교 정문으로 가달라고 했었다고 말을 하니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렇게 또박또박 말 했으면 되지 왜 두볼일을 시키냐구요. 전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로써 나이도 많으신 것 같아 크고 정확하게 말해줬고 또박또박하게 말 한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들으니 말이죠.

그래서 다시 동강대학교 정문으로 가달라고 하니까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요금은 차감되지 않았어요. 왜 요금이 그대로냐고 물어보자 잘못말해서 고생했으니까 그대로 둔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캐물어 봐야 싸움만 커질 것 같아서 조용히 평소 집 오는 거리의 두배정도를 더 내고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때 기분은 되게 찝찝하면서 괜히 화가 났구요.

택시 기사 아저씨들이 고생 한 것은 알지만 승객이 기분 안좋아 지도록 말을 하면 괜히 승객 기분도 안좋아 질거예요. 택시 내부 환경이나, 운전 하는 방식보다는 저는 택시 기사님들의 양심과 친절함이 사람들에게 더 좋을 듯 합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양심을 가지고 운전 하신다면, 승객들은 기분도 좋아지고 훈훈한 대화도 이어질 것이며, 택시 기사를 하면서 기사님도 되게 보람차지 않을까요? 그리고 친절하게 다가와 주신다면 승객들도 밝고 환하게 대해 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더운 날씨에 대한 짜증도 많이 수그러질 테고 즐겁게 일하시고 즐겁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겠지요.

택시 기사님들이 한번 더 생각해주시고 행동 해 주신다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도 택시를 더 이용할수 있게되고, “아, 이 택시 기사님을 다음에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승객들도 늘어날 것입니다.

사례36(오○○)

택시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저는 직장일 때문에 서울과 대전등 타도시에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택시운전에 대한 비교가 많이 되는것 같습니다.

대전에 몇 번 출장을 갔을 때, 터미널에서 회의 장소로 이동할 때, 주로 택시를 이용합니다. 어느날은 택시에 올랐을때, “어서오세요! 어디로 가십니까” 먼저 물어봐 주시는 센스,

정말 놀라지 않을수가 없다. 내가 광주에 살면서 그런 택시는 한번도 만나 본적이 없기에. 그리고, 뒷좌석에 올랐을때, 택시운행정보가 뒷좌석에도 있는 겁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보통 택시운행정보가 앞좌석에 있어서, 빼꼼히 훑쳐보듯 봐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히, 키가 작은 저는 여러 가지고 불리하지요. 그래서 앞좌석에도 봤더니, 또 있는 겁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보통 여성이용자들은 뒷좌석에 앉습니다. 안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내릴 때도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정말이지, 고객으로서 대우받는 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너무 감사하다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라고 대꾸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택시는 서비스업이자, 공공운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법에 속하지는 않는 걸로 되어있지만, 없어서는 안될 시민들이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가용이 아직 없는 여성들이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심야시간이나, 아기와 함께 움직일때, 짐이 많을때는 정말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택시운전자분들도 많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들음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좋은택시문화 만들기 사업을 하시니까, 정말로 여성이 편안한 택시가 만들어지면 사회적 약자,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될수있 을거라 기대됩니다.

부록2

광주광역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3-01-01 조례 제 419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통해 시민과 우리시를 방문하는 택시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선진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브랜드택시”란 시민과 고객이 안심하고 신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지정받은 택시를 말한다.
2. “브랜드택시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시가 지정한 브랜드 택시 이용 고객 접수, 배차 및 소속 브랜드택시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곳을 말한다.
3. “브랜드택시 운송사업자”란 시가 브랜드 택시로 지정한 일반 및 개인택시 조합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브랜드택시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2. 택시 운행 서비스의 개선
3. 택시업계의 선진화 유도
4. 도시이미지 제고 등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시장은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

제5조(브랜드택시 운송사업자 등의 책무) ① 브랜드택시 운송사업자, 콜센터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운송약관은 물론, 교통질서 등을 모범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브랜드택시 운송사업자 및 콜센터 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

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브랜드택시 운송사업자, 콜센터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조(브랜드택시 및 콜센터 지정 운영) 시장은 이 조례 및 시장이 따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갖춘 택시 운송사업자 및 콜센터 사업자를 브랜드택시 및 콜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브랜드택시의 기본 요소) 브랜드택시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GPS 수신기를 이용한 지정배차 서비스 제공
2. 선승인제를 포함한 카드결제 서비스 제공
3. 안심귀가서비스 제공
4. 식별 가능한 외장 사용 등

제9조(콜 시스템 구축 및 관리) ① 콜센터는 시내에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호출상담 등 사업운영에 적정한 사무 공간 및 상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콜센터는 호출수신, 차량 관제, 개인정보 보호, 차량의 운행정보관 리체계 등 브랜드택시 운영에 적합한 통신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콜센터 관리·운영과 준수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브랜드택시 지원) ① 시장은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브랜드택시 및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운영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중복가입 금지) 브랜드택시는 1개의 브랜드택시 콜센터에만 가입하여야 하며, 브랜드 택시 이외의 콜센터에 중복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속 택시의 일정대수를 나누어 각각 별도의 콜센터에 가입시킬 수 있다.

제12조(콜 전화번호의 통일) 브랜드택시 콜센터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콜 전화번호는 시민의 인지도 제고 및 편리성 증대를 위해 가급적 단일한 번호로 통일한다.

제13조(통일된 외장 사용) 브랜드택시는 고객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통일된 차량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브랜드택시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브랜드택시가 항상 청결·친절하고 신속·편리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콜센터 사업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운수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및 조치) ① 시장은 연 2회 이상 브랜드택시 및 콜센터에 대한 점검 및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관계법령 또는 시장이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지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정요건 미달 또는 법령 및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세부적인 조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시민 만족도 조사 및 포상) ① 시장은 브랜드택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연 1회 이상 시민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

② 시장은 브랜드택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콜센터 사업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3.1.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이 조례 시행 이전에 브랜드택시 및 콜센터로 지정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광주여성민우회

2003년 3월에 태어나 직장과 가정, 지역사회 그리고 여성들의 일상 생활 속의 차별과 소외를 해소하고 참여하는 여성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여성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사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우회가 만들어 가는 세상

- 성평등한 노동권,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세상
- 풀뿌리로부터의 변화를 만드는 신나는 지역여성운동
- 성폭력 없는 세상, 내 몸의 주인은 나!
- 다양한 차이가 공존하며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한 활동!
- 가족내 평등한 관계, 다양한 가족선택권이 존중받는 사회
- 더불어 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사회개혁 활동
- 여성이 자신의 몸과 건강의 주체가 되는 사회

나의 작은 참여가 세상을 바꾸는 웃음이 됩니다.

민우회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가입 및 후원안내

회원 월 1만원 이상

문의전화: 062-529-0383 이메일 gjwomenlink@hanmail.net

후원계좌: 광주은행 001-107-338129(예금주 광주여성민우회)